

주체90(2001)년

6.15주간

6.15Weekly　　　　　　제14호 (9월 21~27일)

노작 미국 ≪워싱턴타임스≫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반미반전
일본군국화책동

6.15공동선언을 훼방하는 자들과는 추호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 자주통일 선언대회

전국대학생 조선일보 반대모임 공식 출범

≪대학생의 정치활동과 민주노동당≫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14호 (9.21~27)



미국 ≪워싱턴타임스≫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발췌)

주체83(1994)년 4월 16일

－ 2년전 주석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셨을 때 세계는 조선반도의 정세가 평화적으로 완화될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정세는 악화되었으며 모든 측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당신들이 옳게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정세는 2년전에 비하여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와의 합의사항을 어기고 자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고 나오면서 남조선과 조선반도주변에 무력을 증강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까지 발동하여 우리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도 미국의 핵소동에 추종하여 북남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결렬시키고 북남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로부터 조선반도의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동서간의 냉전이 종식된 오늘에 와서도 힘으로 남을 위협하는 것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집중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 귀국은 남조선과 함께 반세기전에 전쟁의 참화를 겪었습니다.
최근 귀국의 한 공무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화에도 준비되어있고 전쟁에도 준비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인민들이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고 희생적인 노력의 대가로 재건을 이룩한 조선에서 왜 전쟁가능성이 논의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각본밑에서 누가 ≪승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민은 평화를 사랑하며 자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건설하여놓은 창조물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전쟁은 북에도 남에도 다 이롭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 민족은 큰 재난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일관하게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미국과의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바라며 조국통일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더 없이 귀중히 여기며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누구든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무력으로 우리를 정복하려든다면 우리도 자위권을 행사하여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압력과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거나 압살해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태를 전쟁에로 몰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어떤 침해로부터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결심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통일문제와 핵문제에 관한 회담들이 결렬되는 것은 결국 아시아의 전략적 또는 경제적 장래를 일본과 중국에 내맡기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두개의 조선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미래를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의 미래를 성과적으로 개척하려면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민족이며 조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힘도 조선민족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선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없습니다.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민족자주만이 독립과 번영의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얻은 진리이며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조국이 통일되어 온 민족이 힘과 지혜를 합쳐나간다면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될 것이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아시아와 세계인민들의 공동위업에 더 잘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귀 회담대표단 성원들중 한사람의 발언은 많은 미국사람들로 하여금 당신들이 남조선과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 발언을 독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그것은 전쟁열이 올라 분별없이 덤벼드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한 개별적 일군의 발언이며 그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당신께서는 조미관계를 모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로 이끄는 궤도에로 돌려세우려면 전망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미사이에 합의하여 선포한 공동성명에는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으로 위협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원칙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조미쌍방은 이 원칙들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조미사이의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난달에 평양방송은 일본이 핵무장정책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귀국의 공식적인 비핵화정책을 다시 고려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당신께서도 비핵화정책을 재 고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일본의 핵무장화는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며 이것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무장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의의없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최근 미국의 한 정책전문가는 근 반세기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무시해온 미국의 정책이 핵문제로 하여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신은 귀국의 핵문제가 조선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끄는데서 중요한 요소로 된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공화국을 무시하고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정책을 실시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의 일부 선견지명있는 인사들속에서 조미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데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것처럼 ≪핵문제≫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들사이의 관계개선은 서로 이해하고 의사가 통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그 어떤 수단을 쓴다고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귀국이 1992년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국제사찰을 받는다, 안받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어있습니까?

우리는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인 첫날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 것도 남조선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와 같은 성의있는 노력이 무시되고 도리어 사찰공간을 통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규정된 원칙에 배치되게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드는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이 자위적 조치로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후에도 우리 핵활동의 청백성을 입증하기 위한 선의의 표시로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필요한 사찰을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사찰과정에 일부 문제들이 제기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 효력발생을 임시 정지한 특수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도적 상황이며 앞으로 핵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이 원만히 진행되면 자연히 해소되게 될 것입니다.

– 지난달에 귀국 외교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불공정하기때문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입니까?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유관측들의 태도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핵문제를 자기의 이기적 목적에 이용하려 하거나 공정성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기구가 그 누구의 부당한 요구에 추종한다면 핵문제는 언제 가도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협상자체가 쌍방의 호상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만큼 어느 일방이 자기의 요구를 절대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핵문제해결의 첫째 원칙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보장되고 서로의 이해가 이루어지면 핵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시종일관합니다.

미국이 진실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나온다면 핵문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복잡한 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생각보다 헐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 귀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외에 1991년에 남조선측과 핵무기의 생산, 시험, 배비 및 재처리를 금지할 데 대한 합의서에 조인하였습니다.

당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영변의 재처리시설을 유지함으로써 이 합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조선반도의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우리 나라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막고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진으로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랜 기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이 ≪재처리시설≫이라고 떠들고 있는 우리의 방사화학실험소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평화적인 핵동력공업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핵무기개발≫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미회담에서 핵문제의 일괄타결안이 성사되어 경수로납입이 실현되면 우리의 핵활동의 평화적 성격에 대하여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미국정보기관 일군들은 귀국의 무기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보고있습니다.

귀국이 핵무기를 성과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미 핵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보기관들이 신빙성도 없는 정보자료들을 조작해 가지고 우리가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느니, 핵무기를 1~2개 만들었다느니 하고 떠드는 것은 다른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떠나기 전에 미국에서는 위성정찰자료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재처리능력을 배로 늘이고 있다는 보도들이 대서특보되었습니다.

이 보도들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서방에서는 우리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억측과 과장된 보도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서방나라들이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있지도 않는 ≪핵무기개발≫과 억지로 연관시키면서 큰일이나 난 것처럼 소동을 피우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핵의혹≫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당신이 깊이 분석하시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귀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국은 어떤 결과를 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는 냉전시기의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50년대의 전쟁심리를 털어버리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남조선과의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러한 낡은 관념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계층은 의연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정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정책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 미국은 남조선에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을 전개할 의향을 표시하였습니다.

국방성의 고위관리들은 귀국 군사전문가들도 이 미사일들이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이 무기들의 전개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끌어들이면서 그것이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라는 것을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미사일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전쟁무기이며 그것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것은 긴장한 조선반도의 정세를 더욱 첨예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인민들도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것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남조선에 반입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귀국은 북조선에 대한 유엔의 있을 수 있는 경제제재조치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귀국은 어떻게 대응할 작정입니까?
또한 귀국은 이러한 제재로 하여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까?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하여 끝내 ≪경제제재≫와 같은 부당한 압력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온갖 적대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군사적 도발도 경제적 제재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도 질식시킬 수도 없습니다.

– 워싱턴의 전문가들속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김일성**주석께서 미국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교관계수립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경제관계를 요구하십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추진시키기 위한 그 어떤 시간표라도 가지고계십니까?

나라들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베푸는 혜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그 어떤 혜택을 바라고 관계를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조미 두 나라 인민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며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선의적인 대조선정책을 정립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조미사이의 관계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당신께서는 트루맨대통령이후 모든 미국대통령들의 재임기간 귀국을 영도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조선전쟁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클린턴대통령에 대한 당신의 인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그의 정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클린턴행정부 시기에 와서 조미사이에 대화가 열리고 중요한 원칙들에 합의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결실을 위하여 일관성있게 성의있는 노력을 계속해나가는 것입니다.

– 미국무성은 아직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국가부류에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하여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반공화국정책의 일환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배격하며 테러를 조장하고 지원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

– 남조선과의 통일대화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해 남은 1995년을 아직도 통일의 시간표로 보십니까?

나라의 통일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입니다.
북과 남은 지금까지 대화를 통하여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도 합의를 보았고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공동선언도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는 지난해 5월에 북남최고위급의 특사교환을 실현하여 조선반도의 핵문제도 해결하고 통일의 방도도 모색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당국대화도 하고 민간급에서도 대화를 하여 온 민족의 화합과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들은 ≪핵문제≫를 전면에 내놓으면서 민간대화는 물론, 당국대화까지 모두 막아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얼마전에 있은 공화국정부, 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에서는 오는 8월 15일에 평양이나 서울에서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 개별적 인사들과 해외동포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대회를 가질데 대한 제안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당국을 포함하여 온 민족의 폭넓은 대화를 실현해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성의를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현안문제들과 조국통일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1995년은 우리 7천만 겨레가 약속한 조국통일의 시간표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조선동포들은 그동안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인민이 조국통일의 목표로 내세운 1995년은 이제 한해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이 어떻게 단합하여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조선민족은 그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인 것만큼 모든 것을 초월하여 능히 단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도 내놓았습니다.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이 굳게 단합하여 투쟁한다면 그 어떤 난관과 장애도 이겨내고 반드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당신은 오랜 기간의 정치활동을 회고해볼 때 당신께서 구상하여오신 모든 것을 수행하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 구상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왔습니다. 우리는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고 이 땅위에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웠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참다운 인민의 사회, 사회주의제도를 세움으로써 우리 인민은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세기적 염원을 실현하였으며 자주적 인민으로서 존엄과 영예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 계승되고 완성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해놓은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여야 하며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숙망이자 나의 숙망입니다. 우리는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이며 우리가 개척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 것입니다.

2. 9.18사변

≪세기와 더불어≫ 2권 제5장 무장한 인민



나는 안도의 혁명조직들이 자기 궤도에 들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1931년 여름과 초가을 화룡, 연길, 왕청 일대의 지방조직들에 나가 5.30폭동 후 흩어졌던 대중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하였다.

내가 돈화를 활동거점으로 삼고 안도, 룡정, 화룡, 류수하, 대전자, 명월구 등지와 련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한창 전개해나가고 있을 때 9.18사변이 터졌다. 나는 그때 돈화근처의 한 농촌마을에서 공청열성자들과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

9월 19일 이른 아침에 진한장이내가 머무르고 있던 마을로 뛰어와 관동군이 봉천을 공격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전쟁이요! 왜놈들이 끝내 불집을 일쿠었소!≫

그는 무거운 짐을 걸머진 사람처럼 신음소리를 숨가쁘게 내지르며 토방우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전쟁이라는 그 한마디의 말은 진한장의 입에서 눈물겹도록 비장하게 울리었다.

오래전부터 이미 예견했던 사변이고 또 사변이 발발한 시기도 대체로 예상과 비슷이 맞아떨어졌지만 나는 조선민족과 수억만 중국민족이 당하게 될 재난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도 거대한 전환이 오리라는 예감 때문에 가슴을 떠박지르는 것 같은 충격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후 우리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사태발전의 진상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1931년 9월 18일밤 심양 북대영 서쪽 류조구에서 일본만철회사 소유의 철도가 폭파되었다. 일제는 장학량군이 철도를 폭파하고 일본수비대를 공격했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걸고 불의의 침공을 개시하여 일거에 북대영을 점령하였으며 19일 아침에는 봉천비행장까지 차지하였다.

심양에 뒤이어 안동, 영구, 장춘, 봉성, 길림, 돈화와 같은 동북지방의 대도시들이 관동군과 압록강을 넘어온 조선주둔군에 의하여 련달라 점령되었다. 닷새도 못되는 사이에 일본침략군은 료녕, 길림 두 성의 광대한 지역을 거의다 강점하였으며 전역을 계속 넓혀가면서 금주방향으로 육박하였다.

문자 그대로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진상을 오도하며 중국측에 사건의 책임을 전가시켰지만 세상사람들은 누구도 그들이 내돌리는 여론을 믿지

않았다. 잔꾀가 많은 일제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날 사건을 조작한 당사자들도 인정하였지만 만철회사소속의 철도를 폭파하고 9.18사변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장본인은 관동군 특무기관이었다. 우리는 그 당시 출판물들에 글을 내여 류조구사건은 만주를 먹기 위한 일제의 모략이며 간계라고 폭로하였다.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앞두고 대기상태에 있던 1931년 9월 18일 아침 이 사건의 조작자의 한 사람인 도히하라겐지 대좌(심양특무기관장)가 갑자기 서울에 나타났다. 그는 조선주둔사령부 고급참모 간다 마사다네를 찾아가서 신문기자들이 시끄러워 군에게 찾아왔다고 자기의 조선방문 리유를 에둘러 설명하였다. 만주사변이 터지면 숱한 기자들이 자기에게 달려들어 성화를 먹이겠는데 그 성화가 싫어서 미리 조선으로 도피해왔다는 소리었다.

같은 시각 일본항공본부장 와다나베 죠따로 대장은 서울을 방문하여 조선주둔군 사령관인 하야시 센쥬로 대장과 함께 백운장이라는 큰 술집에서 연회를 차리고 휴식을 하였다고 한다. 만주사변과 같이 어마어마한 불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행차치고는 너무나도 안온하고 여유작작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력사기록을 읽게되면 어쩨서인지 조선전쟁이 발발하던 때에 트루맨이 별장에 가서 지내던 일을 상기하게 된다. 우리가 9.18사변과 조선전쟁이라는 서로 다른 두개의 전쟁에서 일맥상통한 점을 찾아보게 되는 것은 두 전쟁 다 선전포고 없이 돌발적으로 개시되었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그 두 사변을 도발한 인간들의 면모에서 제국주의들에게 고유한 교활성과 파렴치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성과 지배주의적 본성을 다같이 찾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력사를 비반복적인 사건들의 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개개의 사건들 사이에 존재하는 류사성과 공통적인 경향성을 우리는 또한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이 9.18사변과 같은 사변을 도발하여 만주를 먹어치우리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확고한 기정사실로 되어왔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장작림폭사사건을 조작했을 때에도 그것을 예감하였으며 ≪농학사≫의 신분을 가지고 간첩활동에 종사하던 관동군 참모본부 소속의 나까무라대위의 ≪실종≫사건이 꾸며졌을 때에도 그것을 예감하였다.

나는 특히 만보사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만보산은 장춘에서 서북쪽으로 70-80리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자그마한 농촌마을이다. 만보산 사건이란 바로 이 마을에서 수로문제를 둘러싸고 조선이주민들과 중국 원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말한다. 조선이주민들이 논을 풀려고 이통하 물을 끌기 위한 물길을 팠는데 그것이 그만 중국원주민들의 밭을 침범하게 되었다. 이토하를 막으면 장마철에 또한 강물이 범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공사를 반대해 나서게 되었다.

이런 때에 일본인들이 공사를 강행하도록 조선농민들을 사촉함으로써 분쟁은 확대되고 조선 국내에까지 파급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까지 내는 결과를 빚어냈다. 농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지방적인 분쟁을 민족리간책에 솜씨있게 리용한 것이다.

만일 그때 일본사람들이 리간질을 하지 않았거나 조중농민들중에 선각자가 있어 리성적인 사고를 조금이라도 하였더라면 분쟁은 간단한 언쟁으로 그치고 그 이상 확대되어 서로 마스고 두들겨 패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하여 조중인민들 사이에는 더 큰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반감이 조성되었다.

그때 나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 때문에 비슷한 불행을 겪고 있는 두 나라 인민들이 무엇 때문에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피투성이 싸움을 해야하는가, 항일이라는 대전제 밑에 두 나라 민족이 손을 굳게 잡고 공동투쟁에 나서야 할 때 물길 하나를 놓고 서로 악에 받쳐 ≪골육상쟁≫을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꼴인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참사가 빚어졌는가, 과연 이것이 누구한테 리롭고 누구한테 해로운 일인가 하고 거듭 생각하였다.

나에게는 문득 이 사건이 미리 꾸며진 연극으로, 박두해 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변의 전주곡으로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장춘령사관들이 농민들의 우발적인 충돌에 끼여들어 조선사람들의 리권을 ≪옹호≫해 나선것부터가 미심쩍었다. ≪토지조사령≫과 같은 략탈적인 법령으로 조선의 농토들을 배앗고 살인적인 농정을 실시해 온자들이 갑자기 보호자로 둔갑하여 우리 농민들을 ≪옹호≫해 나선것은 사실상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정치만화였다. 장춘의 ≪경성일보≫지국이 본사에 서둘러 만보산의 분쟁을 통지한 일도 그렇고 국내에서 신문호외를 찍어 조급하게 배포한 것도 모두 수상하게 여겨졌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을 리간시키기 위하여 일제의 영악한 두뇌들이 지방적인 자그마한 분쟁을 민첩하게 악용하여 엄청난 모략을 꾸몄는데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닐가. 그렇다면 놈들한테는 무엇 때문에 그런 모략이 필요했는가.

우리가 간도 오가자에서 혁명조직들을 재정비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분명 무엇인가를 다급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만보산사건의 여파가 채 가셔지지도 않은 그해 여름의 나까무라대위≪실종≫사건은 중일관계를 전쟁첩경에로 이끌어나갔다. 이 사건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본토에서는 련일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도꾜의 청년장교들이 야스구니진쟈에 모여 나까무라의 위령제를 지내고 자기들의 피를 뽑아 일장기를 그렸는가하면 그것을 신사나무에 높이 띄워놓고 국민들의 전쟁열을 고취시키었다. 형형색색의 만주관계단체들은 만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귀가 아프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나는 그때 일제의 만주침략은 시간상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그렇게 확정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조선을 먹은 다음에는 만몽을 먹고 만몽을 먹은 다음에는 중국을 먹으며 중국을 먹은 다음에는 아세아를 제패하려는 것은 ≪다나까상주서≫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기본국책이었다. 동아의 맹주가 되려는 야망에 사로잡힌 군국주의 일본의 강철바퀴는 이 국책에 따라 거침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나까무라대위의 ≪실종≫사건을 구실로 삼아 관동군병력을 심양에 집결시키고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진한장은 그때 일본군대가 당장 만주를 먹겠는데 우리는 모두 적수공권이나 다름없으니 어쩌면 좋은가고 하면서 몹시 불안해하고 안타까와하였다. 그는 국민당의 장학량군벌에 일정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우유부단했지만 일단 국권을 건드리는 사태가 벌어지면 중화민족 앞에서의 체면유지와 수억만 민중의 압력때문에 저항해 나서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진한장에게 국민당 군벌이 저항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말했다.

장작림의 폭사사건 때를 상기해보라. 관동군의 모략이라는 것이 명백하고 엄연한 증거도 나타났지만 동북군벌은 그때 진상규명도 하지 않았고 관동군에 한마디의 책임추궁조차 하지 않았다. 지어는 일본조객들까지 고인의 령전에 받아들이었다. 이것은 그 어떤 신중성이나 취약성, 우유부단성으로만 보겠는가. 국민당은 공산당의 박멸과 로농홍군에 대한 ≪토벌≫에 광분하여 수십만 대군을 강서중앙쏘베트구에 투입하고 있다.

일제에게 국토의 일부를 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당과 로농홍군을 박멸하자는 것이 국민당의 속셈이다. 외적으로 치기전

에 공산주의 세력을 숙청하고 국내의 정국부터 평정하자는 것이 국민당의 로선이다. 자기 선친이 폭사한 다음 국민당 쪽에 아주 기울어진 장학량은 그 저주로운 노선에 맹종하고 있다. 때문에 저항은 없을 것이며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것은 허황한 일이다.

진한장은 신중하게 내 말을 들었으나 공감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장학량군벌이 아무리 국민당 로선에 추종한다하여도 자기 군벌의 정치, 군사, 경제적 지반인 동북땅을 완전히 잃게 되는 마당에 이르러서까지도 침략자들에게 저항해 나서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종시 군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였다.

이런 때에 9.8사변이 터지고 수십만을 헤아리는 장학량군대가 아무 저항도 없이 심양을 내주었으니 진한장도 주먹을 부르쥐고 사색이 되어 나한테로 뛰어오지 않을 수 없었다.

≪성주 동무, 나는 몽상가였고 철부지였소≫

진한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온몸을 부르 떨었다. 그런 다음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를 계속 타매하였다.

≪장학량과 같은 사람이 동북땅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으니 나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소. 장학량은 중화민족의 신의를 버리고 항일을 포기한 겁쟁이고 패전장군이요. 전에 심양에 가보니 온 도시에 군벌군이 모래알처럼 쭉 깔려있더구만. 골목마다 신식총을 멘 군대가 씨글씨글했소. 그런데 그 많던 군대가 총 한방 쏘지 않고 퇴각하였으니 이런 분한 일이 어디 있소. 이걸 어떻게 리해해야 하오?≫매사에 침착하고 온화하던 진한장도 그날 아침만은 감정을 다잡지 목하고 목청을 돋구어 연방 고함을 질렀다.

장학량이 후에는 항일을 주장하고 국공합장에도 기여했지만 만주사변 때에는 그에 대한 평판이 좋지 못하였다.

나는 진한장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조용히 그를 달래였다.

≪진동무, 진정하오. 일본군이 만주를 침공하리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부터 예견했던 바가 아니었소. 그런데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떠드오? 우리는 이제부터 사태발전을 랭철하게 주시하면서 그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하오.≫

≪물론 그래야지. 그러나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러오. 내가 장학량이라는 사람한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소. 나는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소. 한잠도 못자고 고통에 시달리다가 곧장 이리로 달려왔소.

성주동무, 장학량이 통솔하는 동북군의 수효가 얼마인지 아오? 자그마치 30만이나 된다오. 30만! 30만이란게 간단한 숫자요? 그런데 그 30만이 총 한방 쏴보지 않고 하루밤 사이에 심양을 내주었으니. 아, 우리 중화민족이 그래 이렇게도 용렬하고 무력하단 말인가! 공자와 제갈량과 두보와 손중산의 조국이 이렇게도 망해간단 말인가!≫

진한장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그의 눈에서는 피방울 같은 눈물을 쏟아내리고 있었다.

그가 자기 민족앞에 닥쳐온 비운을 생각하며 그토록 분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었다. 그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가질수 있는 순결한 감정이며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였다.

나도 언젠가는 고행의 다박솔 밑에서 왜적에게 짓밟힌 조국을 생각하며 남모르게 눈물을 흘린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성안에 갔다가 일본경찰의 구두발에 만신창이가 되어 꿈틀거리던 어떤 로인의 모습을 보고 돌아와 진종일 분을 삭이지 못하고 만경봉에서 하루해를 보내던 어느 일요일의 석양에 있은 일이었다.

나는 그날 진한장처럼 우리 나라 력사가 자그마치 5천년이라는데 그토록 자랑스러운 력사국이 어떻게 되어 하루아침에 망국의 수치를 당한단 말인가, 이 수치를 무엇으로 씻는단 말인가 하고 비분에 넘쳐 생각하였다.

그러고보면 나나 진한장은 똑같은 수치를 체험한 셈이다. 이전에는 리념의 공통성이 우리를 접근시켰다면 그날부터는 처지의 공통성이 우리의 우정을 배가해 주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들은 불행한 때일수록 더 친밀해지고 우의와 사랑도 깊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날 조중인민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친형제와 같이 쉽게 가까와질수 있은 것은 바로 처지의 공통성, 목적의 공통성, 위업의 공통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국주의자들이 리윤을 위해서 서로 일시적으로 결탁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은 공동의 투쟁목표로 되는 인간의 해방과 복리를 위해 공고한 국제주의단결을 이룩해간다. 나는 진한장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었으며 중화민족의 수난을 조선민족의 수난으로 받아들이었다.

만일 수십수백만 대군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장개석과 장학량을 비롯한 정계, 군부의 우두머리들에게 돈화의 한 청년한테 있는 애국심이나 통찰력만이라도 있었더라면 사태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들이 민족의 운명을 자기자신이나 자기들의 당파적 리해관계 우에 놓고 반공이 아니라 련공을 하면 전체 민중과 무장력을 항전에로 불러일으켰다면 일제의 침략을 그 첫 걸음에서 좌절시키고 령토와 인민을 영예롭게 지켜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조국도 민족도 안중에 두지 않았다.

일본이 만주를 치기 전에 벌써 장개석이 장학량의 동북군에 ≪일본군측으로부터 도전이 있을 경우에는 신중성을 견지하며 백방으로 충돌을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명령서를 하달하여 군의 저항을 사전에 억제한 사실은 그후 수억만 중국인민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9.18사변이 폭발한 후에도 장개석의 남경정부는 중국인민과 중국군대는 일본군에 저항하지 말고 평정과 인내성을 발휘할 데 대한 투항주의적인 성명을 발표하여 군대와 국민의 사기를 저락시키었다. 만주의 운명은 벌써 9.18사변 전에 결정된 셈이었다. 지어 그들은 대표를 동경에 파견하여 일본정부와 비밀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이 교섭과정에 장개석은 일본이 중국의 다른 지역들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쏘중접경지대를 일본제국주의들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하는 것과 같은 매국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장개석은 수억만 인구와 수백만평바키로메터의 면적으로 자랑하는 나라의 주석이라는 자존심마저 줴버리고 일본사람들에게 국토의 한부분을 큼직하게 떼주는 것과 같은 망동을 거리낌없이 자행한 것은 그가 일본의 대포보다 지주, 매판자본가와 국민당관료들을 반대하는 국내인민의 총구를 더 두려워한데 있다.

그리하여 동북변방군의 30만 대군은 자기 무장력의 25분의 1도 못되는 관동군에게 밀려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 있는 광대한 만주땅 전체를 버리고 패주하게 되었다.

나는 망국의 비분에 젖어 통곡하는 진한장에게 말했다.

≪이제는 그 어떤 당파나 군벌이나 정치세력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소. 오직 자기자신의 힘만을 믿어야 하오. 대세는 우리들 자신이 민중을 무장시켜 반일전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소. 살길은 무장을 잡는데 있소.≫ 진한장은 말없이 나의 두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나는 그날 진한장의 기분을 돌려세우려고 온정일 그와 함께 보냈다. 망국의 설움으로 말하면 사실 진한장보다도 내가 더 많았다. 진한장은 조국의 일부를 떼운 사람이었지만 나는 하나의 옹근 조국을 송두리채 잃어버린 망국민의 아들이었다.

…

일화로 본 통일영수의 위인상

한민전 평양대표부 시사레포트 주체 90(2001)년 9호



주체83(1994)년 8월 어느 날 한 일꾼은 중요한 영화를 만드는데 참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느 한 극장으로 달려갔다.

영문을 몰라하던 그는 한참만에야 사연을 알 수 있었다.

어버이주석님을 잃은 가장 커다란 상실의 아픔을 안고 계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강의한 의지로 슬픔을 이겨내시며 주석님의 불멸의 조국통일영도업적을 영원히 빛내여 나갈 구상을 펼치시었다.

그분께서는 일꾼들과 영화촬영가들에게 위대한 주석님의 한평생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주석님께서 광복후 역사적인 4월 남북연석 회의를 몸소 지도하신 내용들을 영화화면에 잘 담아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남북연석회의와 관련한 사적자료들을 영화화면에 담을 때 연석회의 참석자들과 결부하여 만드는 문제 등 그 구체적인 방도들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전해 들은 일꾼은 불덩이 같은 뜨거운 것을 삼키며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 말로 위대한 주석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기 위해 끝없는 노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충성의 최고귀감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 안았다.

몇해전 설날에 있는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설명절모임에 참석하시었다.

그분께서 모임장소에 나오시자 한없는 영광과 기쁨에 차넘친 장내에는 민중의 뜨거운 마음을 담은 환영곡이 울리었다.

바로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휘자에게 거듭 손짓을 하시어 환영곡을 그치게 하시었다. 그러시고 나서 의아해하는 모임참석자들에게 오늘은 설명절이지만 통일애국의 길에서 희생된 이남의 투사들과 민중을 위하여 환영곡대신 추도곡을 울리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비로소 깨달은 연주가들과 참석자 들은 가슴에 세찬 충격을 받았다.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다 쓰러진 이남의 투사들과 애국민중을 못내 잊지 못해 하시며 설명절의 그 뜻깊은 자리에서 환영곡이 아니라 추도곡을 울리게 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분의 한없이 숭고한 혁명적 의리와 동포애, 고매한 풍모는 참석자 모두를 끝없는 격정과 눈물에 젖게 하였다.

주체79(1990)년 6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꾼들이 만들어 올린 조국통일상 메달과 상장견본을 친히 보아주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상 메달은 다른 메달들과 달리 금으로 하며 그 안에 통일된 조국을 상징하여 조선지도를 그려넣도록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일꾼들은 놀라움을 금치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영웅메달이나 금으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메달의 무게로만 잴 수 없는 통일혁명가들과 애국적 인사들의 투쟁과 공로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다.

조국통일위업에 한몸바쳐 투쟁한 통일혁명가들과 애국적 인사들을 가장 값높이 평가해 주시고 영웅처럼 내세워주시며 그들의 삶을 금과 같이 영원히 빛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깊은 사랑이 조국통일상에 그대로 깃들어 있다.

진보정당 건설에 대하여

통일여명 편집국 논설(편집국 보도 9호)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 이후 급진전하고 있는 오늘의 정세는 한국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그 변혁적 역할을 제고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광범한 국민대중을 자주민주통일사상으로 교양하고 각계각층의 대중조직과 통일전선조직으로 결집시키는 것이며 변혁적 역할을 제고하는데서 기본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대중적으로 세련되게 전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민족민주운동은 자주, 민주, 통일의 제 영역에서 주미철연대, 국보철연대, 민중연대, 시민연대, 통일연대 등 다양한 공투체들이 결성되어 있으며 **장차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기 위한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로 간고하고 장기적이며 복잡한 조직사상운동, 실천투쟁을 거쳐 다달은 오늘의 민족민주전선운동은 그러나 민족해방,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적 숙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전진하여야 한다.

이런 국면에서 **민족민주전선운동을 더욱 높은 수준을 강화발전하기 위한 예비**는 바로 합법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란 공산당이나 부르조아정당과는 달리 **애국적이고 통일전선적인 혁신정당**을 말한다.

주지하는 바 당의 **성격**은 그 **이념**과 **사회계급적 기초**에 의하여 규정된다.

합법적 진보정당은 식민지반자본주의라는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나 반대로 부르조아이념이 아니라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애국사상을 그 지도이념으로 한다.

또한 진보정당은 역시 한국사회의 성격과 한국변혁운동의 임무에 대한 과학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계급만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계급정당**이나 반대로 초계급적인 **시민정당**이 아니라 노동계급, 농민, 청년학생을 기본으로 하며 지식인, 중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중간계급을 대중지반으로 삼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전취목표는 사회주의정권이나 부르조아민주정권이 아니라 **자주적 민주정권**이 된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투쟁방도는 대중투쟁이나 선거투쟁의 어느 하나만을 절대화하고 다른 투쟁형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선거투쟁, 의회투쟁을 적극 결합**하는 것으로 된다.

한편 세계변혁운동사와 특히 브라질노동자당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변혁세력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다는 것은 **환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한 자주정권수립이란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선거공간과 의회연단을 활용하여 대중을 교양조직하고 동원하는 의의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무엇보다도 **대중의식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비합법 전위조직이나 반합법적 대중조직, 통일전선조직과는 달리 **합법적 수단과 공간**을 통하여 광범한 국민대중을 자주의식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진보정당은 대중의식화의 위력한 수단인 방송사, 신문사, 출판사, 교육기관을 일상적인 정당활동, 선전활동 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진보정당은 자신의 강령과 정책을 국민대중의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는 지자제, 총선, 대선 등의 선거에 결합하거나 의회연단을 통하여 광범히 선전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조직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자신의 당원을 대중조직이나 통일전선체에 파견하거나 대중조직의 핵심들을 인입함으로써 자신의 대중지반을 강화하고 광범한 국민대중을 대중조직과 통일전선조직에 결집시킨다.

진보정당은 통일전선사업을 최고수준에서 전개할 수 있는 정당형태의 조직으로서 국제통일전선운동의 경험으로 보아도, 한국의 60년대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를 건설하는데서 주동이 되었던 혁신정당의 경험으로 보아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는 합법적인 주체세력**이라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자신의 진보적 이념과 광범한 대중지반에 기반하여 기본대중운동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운동단체도 결집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당들과의 제휴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투쟁**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는 조직이다.

진보정당은 자신의 조직력과 선전수단을 발동하고 선거공간 및 의회연단을 통하여 한국의 민족민주단체들의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원호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투쟁의 원칙을 실천으로 구현하며 대중투쟁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진보정당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당차원**의 높이에서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진보정당의 건설은 제기될 수 있는 좌우편향을 경계하면서 원칙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은 무엇보다도 **자주민주통일을 그 지도이념과 강령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진보정당의 이념을 사회주의나 시민민주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에 기반하지 못한 그릇된 견해로서 각각 기성이론을 우리 사회에 기계적으로 대입시킨 교조주의적 좌편향과 변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개량주의적 우편향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한국변혁을 목표로 건설되는 애국적인 진보정당은 응당 식민지반자본주의라는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에 바탕하고 지난 수십성상의 간고한 변혁실천을 통하여 확증되고 내외에 공인된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좌표, 자주민주통일을 그 강령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지식인, 중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중간층을 그 사회계급적 지반으로 삼아야 한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 소수정예분자들의 비합법적 전위정당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진보정당을 영도계급이라고 하여 노동자계급만의 **계급정당**으로 건설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편협한 좌경적 견해이며 반대로 노동자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부정하며 초계급적인 **시민정당**으로 건설하는 것도 변혁적 원칙에서 일탈한 우경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한국변혁운동의 성격과 그 역량편성에 대한 과학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양심적인 지식인의 기본동력만이 아니라 지식인, 중소상공인,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중간세력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적인 대중정당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조직, 전선조직과의 밀접한 연계를 맺으며 그 기반 위에서 건설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나 각계각층의 대중조직, 다양한 명칭의 전선조직은 조직형태와 포괄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긴밀히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은 당연하다.

진보정당이 통일전선적인 대중정당이며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주체세력이라는 특성상 각계각층 대중조직, 전선조직과의 연계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기본과제라 할 수 있다.

진보정당건설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를 바로 보지 못하고 변혁운동은 대중조직, 전선조직**만으로 충분**하다는 식의 견해와 반대로 진보정당의 의의를 절대화하며 대중조직, 전선조직의 의의를 **폄하**하는 편향들은 다 같이 극복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이 그 어떤 시련과 탄압에도 끄덕하지 않으며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각계각층 대중조직, 전선조직이라는 대중적 지반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다음으로 **대중투쟁과 선거 및 의회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한편 그 실천적 성과를 조직하는 방향에서 건설하여야** 한다.

실천투쟁의 열풍 속에서 그 성과를 조직하며 건설되는 진보정당만이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며 전투적인 정치부대로서 장성발전할 수 있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이 대중투쟁에만 몰두하며 선거 및 의회 투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선거 및 의회 투쟁**만**을 정당건설의 동력으로 삼는 견해 역시 편향이 아닐 수 없다.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공동의 좌표를 지향하는 대중투쟁과 선거 및 의회 투쟁은 응당 밀접히 결합하여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그럴 때에만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의거하여 건설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존재한다.

지난 대선 시기의 ≪**국민승리 21**≫을 모체로 건설된 민주노동당은 지난 4.13총선에서 비록 원내진입은 좌절되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잠재력**을 보여주며 이후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령에 내포하는 일정한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인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전의 혁신정당들과 확연히 다른 진보정당이다.

50년대 진보당은 비록 200만표라는 상당한 득표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조봉암이라는 개인적 명망에 의거하였기에 이승만역적의 ≪간첩≫조작극에 무력하게 파괴되고 말았다.

60년 4.19봉기 이후 건설되었던 사회당, 사회대중당은 40개단체를 모아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역시 대중적 지반이 취약하여 박정희파쇼도당의 탄압에 와해되었다.

8-90년대 한겨레당이나 민중당은 진보적 이념을 표방하며 선전하였으나 여러 한계를 노정하며 총선 후 해체의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라는 기본계급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대선, 총선 이후에도 **갈수록 확대되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왕성하게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성과는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성공가능성도 없으면서 ≪선거변혁≫의 환상만 심어주고 분열만 야기할 것이라는 민족민주세력의 우려를 크게 불식시켜주었으며 점차 민주노동당을 기본으로 삼아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을 건설하자는 노선이 **대세**를 이루게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올해 초 대의원대회에서 **재창당**을 추진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성과와 혁신적 입장은 그간 진보정당건설에 소극적이었던 **전국연합**과 **한총련** 등의 민족민주세력으로 하여금 민주노동당과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힘있게 추동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장성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하여야 할 한계가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강령에서 사회주의라는 좌경적 부분을 개정하고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전취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강령에서의 사회주의적 요소는 비과학적이고 교조주의적이며 좌경적인 목표로서 민주노동당이 자주민주통일의 지향을 확고히 하는데서나 광범한 대중적 지반을 획득하는데서나 최대의 장애로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으로 **노동계급만을 지지기반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광범한 중간세력을 모두 망라하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기존의 부르조아정당과 별반 차이가 없는 지역조직망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본군중과 중간층을 폭넓게 인입하는 한편 **부문조직망 체계를 완성**할 때 지역조직과 부문조직이 조화를 이루는 명실상부한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으로 **민족민주전선운동에 적극 결합하여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서의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력이 한정되어 있고 전국연합이 지역간연합체의 한계를 조만간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반해 진보적 이념을 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정치적 잠재력을 확인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을 대중적 지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중간층을 묶어세우는데서 우월하다는 점, 통일전선운동을 당차원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해서 **향후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를 건설하는데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민족민주전선운동에 적극 결합하며 주체세력으로서의 응당한 역할을 다할 때, 민족민주운동의 발전과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지반축성은 질적으로 비약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으로 **자주민주통일투쟁을 원칙적이면서도 세련되게 전개함으로써 주체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반미자주를 주선으로 하는 자주민주통일노선을 원칙적으로 견지하면서도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조건에 맞게 신축성 있는 전략전술을 구사할 때 민주노동당은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민족민주운동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광범한 시민운동세력을 정치적으로 포괄하며 자주민주통일투쟁의 열풍속에서 치루어지는 선거만이 응당한 정치적 결실을 거둘 수 있음은 명백하다.

민주노동당이 당면한 내년의 양대선거를 발판으로 차후 총선에서 의회에 진입하는 정치적 성과를 달성한다면 이는 합법적 진보정당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전국적 범위에서 고르게 승리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민주노동당이기에 **당선이 가능한 전략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하는 전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과의 결합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제 민족민주세력의 합류가 실현된다면 민족민주대오의 정치세력화에 전환적 국면이 마련될 것이며 향후 선거국면과 정치정세는 판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애국적 민주세력을 인입하기 위하여 더욱 주동적이며 목적의식적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그럴 때만이 모든 면에서 도약하는 전환적 계기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격동적인 정세발전의 요구, 절박한 전선운동의 요구를 당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틀어쥐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애국적이며 통일전선적인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강화발전될 때, 한국민족민주운동은 승리를 향한 비약적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9월 9일

서울



유시민의 100분토론
– 당면정세와 진보정당건설

노동운동가 김현준 투고문(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13호)

통일여명 편집국은 진보정당건설과 관련하여 통일여명의 애독자 한 동지가 투고한 글을 공개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풍자적 성격의 단편소설과 같은 것으로서 사실주의적 원칙으로 작성되었을 뿐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특히 불가피하게 유시민씨나 최규엽씨 등 일부 인사들의 실명을 등장시킨 점, 널리 양해되기를 바라며 그분들에게 정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저 청년들의 유머라고 보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시민 –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20일은 이미 예고해드린대로 당면정세와 진보정당건설과 관련하여 여러 정치인들을 모시고 100분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중있는 분들이 패널로 나오셨는데요, 제 오른쪽에는 가까운 데로부터 김중권전민주당대표, 이회창한나라당총재, 김종필자민련명예총재가 나오셨고요, 왼쪽에는 브라질에서 룰라브라질노동자당대표가 먼 걸음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최규엽민주노동당자통위원장이 나와주셨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화면을 통해서 지난해 민주노동당의 출범식장면과 국회의원총선거장면,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김대중대통령이 6.15공동선언에 합의하는 장면, 올해 부시정권이 미사일방어체계구축을 공식발표하는 장면,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공식방문하는 장면, 8.15민족통일대축전행사와 방북대표구속장면, 그리고 최근 미국비행기테러사건 등이 나왔습니다. 다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중권 전대표부터 해서 정세와 관련해 짧게 말씀해주시지요. 김전대표님은 최근 당무를 거부하다가 결국 당대표에서 물러나셨는데...



김중권 – 그간 당대표를 맡으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하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몇마디 하지요. 당대표라고 하지만 디제이당에서 사실 실권은 없지요. 권력이라는 것도 청와대에 주 1회 직보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비서실장은 배석하지요. 8월초 보고시 말입니다, 10.25구로을보궐선거얘기가 나왔어요. 그 때 일단 한번 떠볼려고 한광옥실장에게 선거에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실장은 예상대로 고사했지요. 그러자 각하께서 저를 가르키면서 자네가 한번 수고해주지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기뻤지요. 저는 그후 이것을 내락으로 알고 일을 추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망할놈의 청와대비서실에서 흔드는거예요. 뭐 제가 나가면 참신성이 부족해 떨어진다나. 김한길정도가 나가야 한다나. 그러니 제가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당사에 안나가고 이틀은 당무를 거부하며 몽니를 부린 겁니다. 보궐선거를 계기로 대권에 도전해보려고 했는데, 청와대비서진들 때문에 꼬인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대구경북지역표를 고려한다면 디제이는 저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당대표에서는 쫓겨난 셈인데, 그러니까 한광옥이 대표하대요. 구로을은 예상대로 김한길로 결정되었고... 청와대비서진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디제이는 저 못 버립니다. 어차피 다음 대선도 지역선거 아닙니까. 정세에 대해선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권력욕밖에 없는데...

유시민 – 하하, 그렇게 된거군요. 다음으로 이회창총재님께서 말씀해주시지요. 듣자하니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날 텔레비전을 끄고 골방에서 손자와 화투를 치셨다고 하는데...

이회창 – 아니, 그걸 어떻게...

유시민 – 뭘 그렇게 당혹해 하십니까.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한민전 ≪구국의 소리≫ 방송에 나왔잖아요.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기도 하지요. 요즘은 인터넷에 인터넷 ≪구국의 소리≫라고 매주 꼬박꼬박 뜨는데... 인터넷을 할 줄 모르시나요. 보기보다 무식하시군요. 그건 그렇고 어디 하실 말씀있으면 하시죠.



이회창 – 요즘 그래서 운동권이 일제히 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거구만. 최근들어 더 심해졌더라고...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난 해 6.15선언 이후 어디 마음놓고 나다니질 못했습니다. 김영삼전대통령이 고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안에서 깡통에 볼일 볼 때만 해도 남얘긴줄 알았는데, 올해 내가 그 짝이더라 말입니다. 사실 내가 지은 죄가 많기는 하지요. 아버지가 친일검사였다는 것은 그렇다치자고. 그렇지만 약관의 25살나이에 박정희대통령 심복노릇하며 민족일보 조용수사장을 사형선고한것은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거지. 김영삼대통령시절, 그 밑에서 대북전쟁책동에 앞장선거나 아이엠에프신탁통치에 결정적으로 한건 한거나 다 역사에 남을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현정부 들어서는 이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미군영구주둔을 주장하는가하면 ≪국가보안법개정불가론≫이니 ≪상호주의론≫니 ≪퍼주기론≫이니 다 내가 늘어놓은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욕먹어도 싸지요. 그래도 부시정권 들어서니 좀 살 만해집디다. 부시각하께서 김대통령의 6.15선언실현정책에 제동을 걸며 한미회담에서 망



신줄 때는 정말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죠. 부시각하께서는 내년 대선에 나를 밀고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6.15선언파탄시키는데 완전히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지요. 민족앞에 죄를 짓든, 국민들이 뭐라하든 말입니다, 반북입장, 6.15반대입장만 확고히 틀어쥐면 대권은 따놓은 당상이예요. 최근 조선일보나 수구보수세력들이 모두 나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거 세상이 다 알지요? 다 부시각하께서 시킨거예요. 부시각하께서 방한하시는 10월 중순까지 우리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 수구보수세력들이 더 날뛸거예요. 일종의 충성경쟁이지요. 김종필명예총재가 임동원이 친 것도 다 부시각하의 눈에 들려고 한거 아닙니까. 우린 해임될 거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어요. 뭐 우리가 장관해임안 낸게 어디 한둘인가요. 하여튼 각하께서 밀어주시니까 김영삼전대통령도 김종필명예총재도 결국 나와 손잡게 될 겁니다. 세상 참 재미있게 돌아가요. 조선일보요? 그 신문은 ≪대쪽신문≫이예요. 왜 정부는 헌법에 나와있는 ≪언론자유≫를 유린하는 겁니까. 아무튼 세상이 혼탁한건 정치인들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법을 안지켜서 그런거예요. ≪법대로≫해야 합니다. 내가 출세한 것은 다 ≪법대로≫ 했기 때문이예요.

유시민 – 아니, 조선일보사주구속은 세금비리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헌법에 반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아닌가요. 이건 사회자가 보기에도 모순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총재님, 이마에 땀 좀 닦으시지요.

이회창 – 음음, 당신도 정치해봐요. 조선일보는 사실 우리 당 기관지나 다름없잖아요. 조선일보 밀어줘야 내년 대선에서도 그 흑색선전덕을 볼게 아닙니까. 정치판에 뛰어든 후 는것은 궤변이요, 한것은 망동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김종필총재님.

김종필 – 유구무언이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하지 마오. 허흠, 사오택일(四・五擇一) 잘 하라, 4는 1을 구(救)함이요, 5는 1을 육(戮)함이라. 4.19는 통일을 구함이요, 5.16은 통일을 죽임이라는 뜻이지. 나, 쿠데타 이래 5.16정신, 반통일정신으로 살아왔어. 오직 친미친일로 출세하고 반북모략으로 권력을 유지했던 천하의 사대매국정치인이 바로 나야. 이회창총재, 아직 나 따라올려면 멀었어. 내공을 더 쌓아야돼. 이제사 얘긴데, 김대중대통령의 정권창출도 다 당시 미국의 지시 하에 내가 나서서 된 거야. 이총재 당신이 대통령 됐으면 아이엠에프때 국민들이 가만있었겠어. 다 들고일어나서 뒤집어져도 몇번은 뒤집어졌어. 국민들이 민주투사라고 생각하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니까 국민들에게 ≪고통분담론≫도 먹히는거고, ≪노사정회의≫이라는 개량조치도 가능한거야. 또 호남도 쥐죽은 듯 조용해진거 아닌가. 지금 외환위기 벗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단물 다 빼먹고 흔들 때로 흔든 국제자본이 이젠 됐다싶으니까 놔두는 거지 뭐 현정부가 한게 있나. 경제는 더 나빠졌어. 민심은 갈수록 험악하고. 김대통령이 노벨상이다 6.15선언이다 뭐다 하지만 국민들의 지지여론은 바닥이잖아. 이 참에 공조깨고 나와야지 언제 나오나. 우리도 단물 빼먹을 만치 빼먹었고, 여태까지 사정도 충분히 피했고...자민련의 정체성을 찾아야 선거에 한마디 할께 아닌가. 물론 부시각하의 말씀이 계셨지. 이젠 김대중과 끊고 이회창을 잡을 때가 됐다고 말이야. 8월초에 방미할 때 들었어. 미국이 확실히 믿는 것은 40년넘게 충성스런 나야. 친미친일이 나보다 더 골수에 박혀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 그후 ≪제이피대망론≫이니 뭐니 하며 여론몰이하고 임동원이를 제물로 삼아 공조깬거야. 김영삼전대통령에게는 8월초에 밀사보내서 공조깬다고 귀뜸해줬지. 8월 25일 자민련,민주당,민국당3당합당기자회견 예정됐었다는 얘기 알지? 그 판깨고 아침에 일본으로 출국한 것도 다 이런 속심이 있었기 때문이지. 나, 정치 9단이야, 정치 9단. 디제이도 눈치챘을거야. 눈치채면 어쩔거야. 부시각하가 시킨 일인데. 게다가 레임덕아닌가. 그래도 디제이는 디제이야. 그 와중에 이한동총리를 꼬득였어. 이한동이 배신자, 세상물정을 아는 나이인데.. 방망이로 내뒤통수를 쳐어. 어디 두고보자고



유시민 – 얘기가 험해지는데, 거기서 끊겠습니다. 듣고보니까, 머지않아 이회창총재님과 김종필명예총재가 손을 잡겠군요. 역시 공통점이 많은 분들이십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최규엽자통위원장에게 돌리겠습니다. 원래는 권영길민주노동당대표가 나오시기로 했는데 대신 나오셨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이번 8.15방북사건부터 말씀해주시죠.

최규엽 – 우리 당의 권영길대표께서 올상반기내내 있었던 10만킬로민생대장정을 하신 것 알고있지요? 저기 앞에 있는 정치인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시지요. 그 후과로 건강이 좋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일전에는 방청석에서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토론자로 자리에 앉고 보니 나날이 발전하는 민주노동당의 위상을 보는 것 같아 감개가 무량합니다. 물론 이북 갔다 온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요. 한마디로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했습니다. 장성발전하는 노동자, 농민의 위세를 볼 때는 크게 감동했지요. 말많은 3대헌장이니 5대헌장이니 하는 기념탑앞에서의 행사도 노동자, 농민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물론 언론보도처럼 제가 앞장선 것도 사실입니다. 앞장선거 당연하지요. 참관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황석영씨 왈, 자기는 뒤에서 말리기만 했다는데, 하하, 갔다온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실제 말리는 것처럼 하면서 제 뒤를 민 게 황석영씹니다. 그 날 참관하는데 반대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애기아닙니까. 사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소리인데, 그 돌멩이 앞에서 행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 식이라면 조선인민군이 깔아놓은 도로를 지나가는 것은 왜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까. 지난 해 노동당55돌행사에 참가했을 때는 이번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요란한 것입니까. 우리 당 부대변인의 논평에도 나와있듯이 반북세력의 파쇼광란극에 현정권이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예요. 저 앞에 계시는 이총재님 말입니다, 어디서 대권언질을 받았는지 요즘 완전히 반통일수구세력의 대장이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선일보가 어떻게 ≪대쪽신문≫입니까. 비록 조선일보가 한나라당기관지나 다름없다고 해도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하여튼 한나라당, 조선일보덕분에 저도 오래간만에 공안당국의 밀실수사도 받아보고 참 세상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계기에 연방제 완전히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이거 철폐시켜야 합니다. 연방제가 문제시되는 한 이런 마녀사냥극은 또 반복될 겁니다. 우리 당은 이번 기회에 연방제를 공론화시키는데 앞장서기로 하였습니다. 남북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데 상호존중하며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자는 연방제가 뭐가 문젭니까. 6.15정신이자 곧 연방제정신인겁니다.



유시민 – 역시 말씀을 재밌게 잘 하시는군요. 이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워낙 맺힌게



많아서인지 끊지 않으면 밤새도록 말씀하실 것 같네요. 그럼 국내정세 얘기는 이 정도하고 최근 국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몰고온 미국뉴욕테러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딱 두 분의 얘기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창총재님과 최규엽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창 – 이번 테러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새뮤얼 헌팅턴인가 하는 미국교수의 문명충돌론, 그 얘기가 맞습니다. 물론 나 아직 그 책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 그 책 내용에 대해선 물어보지 마세요. 하여튼 미국을 상대로 감히 테러를 하다니 간이 부었어요. 이 기회에 이런 무리를 끝장내야 합니다. 미국정보기관이 라덴을 지목했다는데 미국정보기관이 그렇다면 그런거예요. 일각에는 음모론이니 뭐니 하지만 다 공산당빨갱이들이 하는 헛수작이예요. 미국과 같이 신성한 자유국가에서 그런 조작을 할 리 없잖아요. 하여튼 미 부시대통령께서 의회연설에서 천명하셨듯이 세계는 미국을 지지할 것인지 테러를 지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그 대목 나오는데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이 다 나오데요. 역시 부시각하께서는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십니다! 물론 그 연설문은 나처럼 비서진들이 썼겠지요. 우리 당 비서진들 각성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연설문 못 씁니까. 어쨌든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일각에서는 라덴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느니, 아프간국민이 무슨 죄가 있느니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미국이 라덴을 찍었으면 그만이지요. 5천명이 죽고 미국의 자존심이 깨졌는데 빨리 희생양 만들어야죠. 아프간국민이 고생하는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 왜 이슬람을 믿고 그래요, 기독교 믿어요. 그러면 문명국되고 천당갑니다. 우리 나라도 이번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일본보세요. 얼마나 기민하게 반응합니까. 본받아야 합니다. 이번 전쟁으로 한바탕 무기소화하고 나면 미국경제 뜰거고 미국경제 뜨면 우리 경제도 뜹니다. 그러니 무조건 전쟁해야 합니다. 묵념하고 조기달고 다 이거 소용없어요. 무조건 참전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부시각하의 10월방한이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셔서 저 한번 크게 밀어주셔야지 한나라당 통솔하기도 쉬워지고 후원금도 팍팍 들어오는데... 참, 텔레비젼 보니 부시각하께서 라덴보고 ≪디스 맨≫이라고 하시데요, 야, 얼마나 통쾌하던지, 이 소리는 김대통령이 올해 미국가서 기자회견 때 들었던 소리잖아요. 역시 부시각하께서는 통찰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람 볼 줄 아십니다.

유시민 – 점입가경이군요. 이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다음 최규엽위원장님.

최규엽 – 이건 자민투위나 전국연합의 대변인이 가장 잘 코멘트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드리지요. 이번 테러사건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외강경정책이 빚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인과응보지요. 부시정권이 들어서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이 더욱 노골화되고 신냉전기류가 확산되었습니다. 엠디니 하는 것도 다 지배주의야심의 산물이지요. 물론 그 배후에는 군산복합체가 숨어있다는 것은 상식이고요. 이처럼 강경일변도로 나가면서 이스라엘만 밀어주니 이슬람세력이 왜 열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라덴이나 이슬람세력이 이번 테러사건을 저질렀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있다면 미정보기관들이 흘리는 이러저러한 소문만 있을 뿐입니다. 무고한 미국국민들이 5천명이나 죽은데 대하여는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미국민들은 자신들의 팍스아메리카이념이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노를 불러오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미국민들은 그간 이라크전쟁, 유고전쟁을 햄버거먹고 콜라마시면서 영화보듯 즐기지 않았습니까.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도 전쟁때 미군에 의하여 수백만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당했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에이피통신이 밝힌 노근리양민학살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에이피통신은 그 기사로 퓰리처상까지 받았지않습니까. 우리는 테러를 반대합니다. 테러는 또 다른 테러를 부를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테러도 반대하지만 전쟁도 반대합니다. 지금 미국이 준비하는 전쟁은 무고한 아프간민중들을 학살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테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참전논의도 반대합니다. 만약 현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참전을 추진한다면 전민족적인 저항을 받을 겁니다. 한편 우리의 투쟁방식은 테러가 아니라 전민항쟁입니다. 비록 합법정당에 몸담은 저이지만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전민항쟁입니다. 광범한 대중을 각성시키고 불러일으키는 것, 그 무궁한 힘으로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관적 노선입니다. 미국은 전민항쟁이 테러보다 천백배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은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엠디, 이거 완전히 허재비라는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부시정권은 더늦기 전에 엠디 때려치우는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그 명분용으로 추진중인 대북강경책도 걷어치워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철수의 용단을 내려야 하겠지요. 그리고 제발 저 이회창패거리 좀 충동질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상식이하의 집단인데다 미국상전까지 강경하게 나오니까 덩달아 설치는거 아닙니까. 우린 미국이 90년대 내내 이북과 대결하다가 깨져가지고 조미공동성명 낸거, 그래서 2-3내에 조미수교하고 주한미군이 철수를 시작할꺼라는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시기가 문제지 부시의 대북정책도 바뀌는게 시간문제지요. 그때가 되면 열심히 미국상전 쫓아다니던 저 이회창총재와 한나라당은 꽝 될 겁니다. 말 나온김에 이총재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충고하는데, 빨리 기회 만들어서 이북 한번 갔다오세요. 갔다오면 정신이 번쩍 들겁니다.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설쳤구나 생각 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하세요. 후대도 생각하셔야지요. 이완용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회창 – 어떻게 살긴, 다 잘 살고 있지. 지금 항일애국자들은 개죽도 못 먹는데, 친일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거 모르나. 나 봐라, 사실 내가 바로 그 전형이라. 우리 집안이 친일지주였고 아버지가 친일검사보라는거 아직 모르고 있었나. 김영삼전대통령도 봐라, 얼마나 잘 사나. 숨겨놓은 돈만 10조원은 될 거다. 나도 기필코 권좌에 앉고 말거다. 법대로만 하면 돼, 법대로만...

유시민 – 이제 그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역시 첨예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논쟁이 치열하네요. 그럼 이제는 주제를 바꿔서 진보정당건설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까 합니다. 이 문제는 역시 진보정당의 세계적인 대명사인 브라질노동자당의 룰라당수부터 말씀을 해 주시는게 순서일꺼 같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치신 손가락은 후유증이 없으십니까. 브라질노동자당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의 진보정당의 미래와 전망에 대하여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룰라 – 예, 괜찮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멀리 왔지만 역시 오기를 잘 했네요. 듣던대로 한국은 금수강산입니다. 그리고 노동계급이 대단히 전투적이며 활동가들도 이론수준이나 작풍이나 모두 아주 훌륭



합니다. 다만 우리보다 분파주의가 심한 것이 눈에 띄는데... 우리 나라의 분파주의는 진보정당사업하면서 많이 극복되었습니다. 민주집중제원칙만 잘 지키면 분파주의는 배격내질 못하지요. 우리 나라도 한국처럼 겉으로는 독립국가인 것 같지만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오죽하면 남미를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한국처럼 분단은 되지 않았구요, 그래선지 반공의식도 덜합니다. 그리고 비합법 전위당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합법적인 진보정당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적지않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알다시피 브라질노동자당은 현재 수많은 주요도시와 농촌에 뿌리를 내리며 약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수도나 진배없는 상파울로 등 주요도시에 시장을 낸적도 있지요. 의회에도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 힘에 기초해서 제가 대통령선거에도 여러번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패배했고 그 후유증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이 내린 결론은 식민지사회에서 선거로는 변혁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겁니다. 식민지사회에서 선거변혁은 환상입니다. 세계역사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칠레의 아옌데정권도 하루아침에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선거변혁이 불가능하다고 진보정당 그 자체에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을 각성시키고 묶어세우는데서나, 대중운동을 활성화하는데서나 커다한 의의가 있지요. 선거와 의회를 활용하는게 얼마나 큰 의의가 있는지,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까 방송전에 최규엽위원장과 얘기할 때 알았는데, 한국에선 울산의 경우가 바로 그 실례가 됩니다. 말나온김에 민주노동당에게 울산과 같은 지역을 전략단위로 설정하고 모범으로 만드는게 참 중요하다는 조언을 하고싶습니다. 한편 한국은 수십년간의 역사를 자랑하는 비합법 전위당이 있는데다가 10년 넘게 활동해온 전국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민중이 진보정당까지 갖게 되면 변혁역량이 비약하게 될 겁니다. 진보정당이 전국연합 등과 힘을 합치면 지자제나 총선, 대선에서 반드시 큰 성과를 거둘 겁니다. 이건 제가 보증하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선거변혁은 불가능해도 진보정당의 의의는 지대합니다. 끝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우리 브라질노동자당이 보다 긴밀하게 교류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규엽위원장님.

최규엽 – 제게 그런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당내에서 그 제안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쨌든 민주노동당에 대해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민주노동당이 브라질노동자당에 비해 매우 청소하다는건 사실입니다. 창건된 지 불과 2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진보정당의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해방직후는 별개는 치더라도 50년대 조봉암선생의 진보당이나 60년 사회당, 사회대중당, 그리고 8-90년대 한겨레당, 민중당... 비록 대중적 지반이 취약하여 파쇼탄압으로 와해되기는 하였지만 그 흐름은 죽 이어져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이전 진보정당들이 가졌던 한계를 많이 극복한 전혀 새로운 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우선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의하여 건설된 당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무시못할 정치적 잠재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진보적인 이념을 가지고 선거 이후에도 부단히 당세가 발전하는 그런 당인 것입니다. 그래선지 지금은 그간 민주노동당을 비판하던 전국연합과 한총련의 활동가들도 속속 입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연합정책위원장 출신이라 잘 아는데, 전국연합내에 민주노동당노선을 개량이라고 비판하던 세력이 좀 많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인천연합 관련 70명이 입당하며 머지 않아 2차, 3차로 추가입당한다고 합니다. 아예 전국연합은 올해 초 대의원대회와 최근 중앙총회를 통해 민주노동당과의 결합을 결정하였습니다. 한총련도 말입니다, 글쎄 민주노동당을 개량이라고 하던 그 세력들도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더군요. 다만 한총련주류는 비밀간담회를 선호하고 다른 운동가들은 대중강연회나 공개간담회를 추진하더군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제가 모를리 없지만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군요. 하여튼 내년의 양대선거를 앞두고 민족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힘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 6월 지자제선거는 볼만할 겁니다. 우리 당이 비록 역사는 짧아도 그 역량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5개 지구당에 당원만 1만 8천명입니다. 그 중 4천명이 당비를 안내는데, 거 왜 안내는지 모르겠어요. 월 1만원밖에 안하는데... 하여튼 그런 우리 당에 전국연합과 한총련이 가세하면 내년 지자제선거에는 돌풍이 불 겁니다. 지자제선거에 바람이 불면 기존의 보수정당중심의 정치권에 대지각변동이 일어나리라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년 대선에 독자후보를 낼 겁니다. 올해 민생대장정을 전개하였던 권영길대표가 아마 후보로 될 겁니다. 옆에 계시는 룰라당수가 노동자출신인데 반해 우리 대표는 명문대를 나온 인텔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을 노동운동에 헌신하신 훌륭한 분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1백만표정도 획득하고 2004년 총선에서 원내에 진입하면 진보정당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될겁니다. 후후, 앞에 계신 정치인들 표정이 굳어지셨군요. 두려우실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대하라는겁니다. ≪역사의 대하≫라는 제목의 이북소설도 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민중이 각성되고 나아가 정치세력화하는 것은 필연이고 지금은 그저 시작단계 일 뿐입니다. 향후 북미관계는 2003년 경수로제공시한을 계기로 수교로 나아갈꺼고, 그렇다면 앞에 계신 정치인들이 그토록 매어달리는 주한미군의 철수도 시간문제입니다. 우리 당은 그런 의미에서 반미투쟁을 더욱 대중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전민중적으로 벌여나갈 겁니다. 이회창총재님께 하나 물어보지요. 미군이 나가게 되면 의지할거라곤 국보법밖에 없지요?

이회창 –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하나.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은 우리 생명이야. 미군이 나가면 국가보안법밖에 더 있나. 그래서 적당히 개정할 수는 있어도 철폐는 절대로 안돼! 아니야, 개정도 안돼, 무조건 국보법은 손 못 돼, 절대로!.

김종필 – 그래서 내가 디제이와 공조를 깬거야.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만든 법인데, 내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못 바꿔, 못 바꿔!

최규엽 – 하하, 그래 세상이 어디 두분 총재님 뜻대로 됩니까.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이 자리는 공적인 토론회 자린데, 반말투는 귀에 거슬리네요. 교양있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미 국가보안법은 6.15공동선언으로 사실상 끝장났지요. 글쎄 범민련과 한총련이 방북하는 날이 올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번에 조선일보 등이 방북대표사건을 열내며 조작한다고 한들 기차보고 짖는 개 이상 안됩니다. 하하. 그리고 지금은 이미 노동자, 농민이 통일운동의 주인으로 나서는 세상입니다. 나아가 민주노동당을 통해 자신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전선운동에도 앞장설 겁니다. 이남의 모든 운동단체, 시민단체를 망라하고 나아가 개혁적인 정치인들까지 포괄해서 정말 큰 덩어리의 전선체를 만들겁니다. 그래서 당이 좋다는거 아닙니까. 4.19직후 사회당, 사회대중당은 40개 단체를 묶어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열배가 넘는 단체를 묶어 세울 겁니다. 그러면 이란식의 전민항쟁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앞의 총



재님들도 비행기편 걱정을 하셔야 할겁니다. 하하하...

이회창, 김종필 – 저런, 저런, 말, 말 조심해라!

룰라 – 하하하.

김중권 – 최위원장, 나도 비행기편을 걱정해야 하나요?

최규엽 – 글쎄요, 민중들 마음이겠지요. 그러니 앞으로 처신 좀 잘 하세요. 하하.

유시민 – 예, 예, 진정들 하시지요. 특히 이총재님, 김총재님 진정하세요. 뭐 틀린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나중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튜디오안의 열기를 좀 식히는 의미에서 여기오신 방청객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겠습니까. 예, 저기 손든 여성 방청객, 먼저 어디서 오신 누구인지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방청객 – 예, 저는 연세대학교 99학번 오현아라고 합니다. 토론과정을 보니 누가 민족의 편이고 누가 외세의 편인지 확연히 드러나네요. 최규엽위원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진보정당에 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내년의 양대선거에 대한 관심도 크지만 어떻게 하면 한총련운동을 활성화하는가, 합법화를 이룩하는가 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총련운동가들 사이에서 진보정당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정당건설과 한총련운동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엽 – 얼굴만 이쁜게 아니라 질문도 예리하네요. 왜 한총련이 진보정당건설에 동참하여야 하는가, 이거 최근 월간 ≪통일여명≫의 호소문, ≪진보정당건설로 한총련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조하자≫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읽어보았나요?

여성 방청객 – 예, 저는 ≪반비선≫이라 ≪통일여명≫에서 발표한 글들은 꼬박꼬박 읽어봐요.

최규엽 – 하하, 그래요, 제가 ≪반비선≫ 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자민투위의 글이나 ≪통일여명≫은 꼭 봅니다. 학생들 애기들어보니까, 요즘은 ≪비선≫에서도 많이 본다고 합디다. 그건 그렇고... 거기에 잘 나와 있듯이, 한마디로 한총련운동과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기 위하여 진보정당은 꼭 건설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총련이 그간 악전고투하면서 추진해온 노선이 바로 자주민주통일이 아닙니까. 진보정당은 바로 이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당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말하여 한국민중, 민족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거지요. 그 결과 운동이 대중화되고 나아가 합법화되게 될겁니다. 앞서 룰라당수도 밝혔듯이 진보정당은 운동을 대중화하고 활성화하는데 비할바 없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진보정당은 먼저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수단까지도 활용할 수 있지요. 또 가가호호 방문하며 하는 일상적인 정치선전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어디 그뿐인가요.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에 정치에 쏠리는 선거 때는 완전히 진보정당의 판이지요. 선거, 이거 잘 준비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한순간에 각성시킬 수 있는 계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입하면 더 볼만할겁니다. 국회에 미군철수와 연방제의 목소리가 당당히 울려퍼지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즐겁지요. 자주민주통일, 이거 삽시간에 대중화, 합법화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진보정당은 민족민주세력이 제도권에 파견하는 별동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진보정당은 대중단체나 전국연합같은 전선조직들도 크게 엄호해 줄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총련과 같이 탄압받는 조직들에게 민주노동당은 든든한 우군이 될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이 나서면 큰 덩어리의 연합전선체를 만드는 것도 쉬워지지요. 특히 우리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가입해 있잖아요? 여기에 전농과 한총련이 가세하고 시민단체들까지 포괄하면 어떻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이 나서면 시민단체까지 망라해서 자주민주통일을 목표로 하는 큰 덩어리의 연합전선체를 만드는게 용이해질겁니다. 그러면 이란회교변혁같은 범국민반미항전도 꿈만은 아니지요. 그래서 당이 좋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한총련이 그가 지향한 바와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럼 이런 일반적인 의의만 있는가, 아닙니다. 한총련이 가입하면 한총련에게 좋은 특별한 이유가 한둘이 아니지요. 우선 당국과 언론에 의해 조작된 ≪불법성≫, ≪폭력성≫의 이미지가 크게 해소되지요. 합법정당활동을 하는데, 이적단체니 폭력단체니 하는 음해모략이 국민들에게 씨알이나 먹히겠어요? 또 피디계열과의 관계도 개선될 겁니다. 이거 무시할 애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엔엘인 한총련이 피디까지 품어안게 되면 학생운동 완전히 비약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학농학연대도 촉진될겁니다. 민중연대, 이거 한민전이 방송을 통해 청년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지적 중 하나 아닙니까? 각 대학마다 당지부가 건설되면 학생운동권은 학생회 외에도 당조직이라는 끝내주는 무기를 하나 더 가지게 되는겁니다. 학생대중들에 대한 교양사업이나 조직사업을 학생회조직말고 당조직까지 동원하면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군철수, 국보법철폐, 연방제를 강령으로 하는 합법정당을 통해 공공연한 정치선전, 조직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때만 되면 ≪후보단일론≫이니 ≪독자후보론≫이니 하는 소모적인 논쟁도 없어질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사회자가 시간없다고 자꾸 눈치를 주니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고려대에서 강연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했었다면 더 많은 애기를 들었을거예요. 연세대는 왜 강연회 안합니까? 초청만 하면 저는 언제든지 갈 용의가 있어요.

유시민 – 예, 잘 들었습니다. 최규엽위원장의 고대강연이 무척 인기였다고 하더군요. 정성희전사무부총장의 강연이나 간담회도 반향들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후 진보정당 관련해서 많은 강연회, 간담회가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럼 다른 방청객의 질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의 남성 방청객이 해주셨으면... 예, 저기 손드신 분,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남성 방청객 – 예, 저는 구로청년회 회원 노동자 박철익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보니 누가 우리 노동자의 벗이고 누가 적인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역시 최규엽위원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말씀대로 우리 노동자들은 지금 통일운동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상반기 내내 정권퇴진을 외쳤습니다. 잘 못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정말로 한국의 대표 진보정당이 되려면 뛰어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규엽 – 예, 맞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아직 극복해야할 점이 많지요. 이거부터 말씀



드리면, 한국사회변혁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령에 있고요, 대중지반도 민주노총과 전빈련이 전부입니다. 강령부터 자주민주통일로 선명하게 개정해야지요. 사회주의강령은 우리 사회의 성격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강령으로는 대중지반을 확 넓힐 수가 없지요. 전국연합이 결합을 결의하였습니다. 엄청난 변화지요. 이참에 전농문제도 풀어야 하는데 그건 그리 쉽게 안되네요. 그래도 멀지 않을 겁니다. 한총련가입, 이건 잘 될거라고 봅니다. 광범한 시민단체들과의 결합도 중요하지요. 내년 선거가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지구당조직만으로는 저 앞의 보수정당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머지않아 민주노동당이 지역조직망만이 아니라 부문조직망을 고르게 갖춘 명실상부한 진보정당으로 비약할 것을 확신합니다. 내기해도 좋아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정권퇴진을 내건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그러니 대중적으로 고립되지요. 6.15공동선언이라는 남북정부간의 상층통일전선이 결성된 정세에 맞지 않아요. 대중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며 그런 정서도 아닙니다. 반정부투쟁이자 민주화투쟁은 아닙니다. 이런 도식은 이제 깰 때가 되었지요. 지금은 반정부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민주화투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말해 정권퇴진보다는 6.15선언을 파탄시키려 하는 반통일세력과 맞서 싸우고 국보법철폐투쟁을 힘차게 벌일 때입니다. 정권퇴진투쟁은 현정권인 6.15선언을 깼을 때 해야 맞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농민, 청년학생과 어깨겯고 자주민주통일로 나아가는 당당한 영도계급이지요. 노동현장으로 투신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가슴벅찹니다. 참, 가만 보니 낯익은 분이군요. 구로청년회와 우리 금천지구당은 가깝지요. 이따 이 토론회 끝나고나면 같이 술한잔 합시다. 박철익이라, 소설 ≪애국시대≫에 나오는 이름이네요. 가명 아닌가요?

룰라 – 거, 그 술자리에 나도 끼워줄 수 있습니까?

최규엽 – 물론이지요, 오늘 ≪백세주≫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유시민 – 정말 분위기가 좋군요, 저도 이따... 그리고 가명얘긴, 사전에 신분을 확인했으니 본명이 맞습니다. 자, 이젠 시간이 많이 지나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께 딱 2분씩만 드릴테니 진보정당이나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하시지요.

김종필 – 나부터 하지. 내가 미 시아이에이 지령에 따라 박정희전대통령과 야밤에 총들고 후들후들 떨며 한강다리 건널 때부터 해서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나. 그 동안 진보정당인지 뭔지 하는 빨갱이당이 한두번만 고개를 들지 않았는데, 다 내가 앞장서서 짓뭉개버렸지. 그 사회당인가 사회대중당인가 하는 것부터 해서, 노동이니 민중이니 하는 말이 들어가는 당들말이야. 헌데, 아무리 밟아도 다시 일어서는 잡초처럼 또 생기고 또 생긴단 말이야. 다 배후에 있는 공산당들때문이지. 저기 저 앞에 있는 최규엽이도 그 무슨 남부노동자사건인가 뭔가 하는 걸로 80년대 이미 크게 징역을 산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은 이북도 맘대로 갔다오고 텔레비젼토론회까지 나오고 있어. 지금 민주노동당에 있는 핵심들도 대부분이 징역갔다 온 빨갱이들이야. 그저 80년대나 90년대 초중반만 같았아도 ≪간첩단≫사건 터뜨리며 박살내는 건데, 국가보안법도 예전같지 않고, 세상말조야 말조... 아이구... 나도 말이지 피곤해. 이 나이에 널뛰기도 한두번이지. 언제는 김영삼에 붙었다가 김대중에 붙고 이제는 이회창에 붙어야 하니... 갈수록 자민련의 인기는 떨어지지, 뭐, ≪신동아≫의 조사에 의하면 민주노동당이 자민련을 제끼고 3위라나. 나 참 기막혀서... 창당된지 2년도 안돼 3위라니 앞으로 5년, 10년 뒤면... 눈앞이 캄캄해... 믿는 것은 오직 상전미국밖에 없는데, 미국도 이북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형편이니... 정말 비행기편 걱정이 든다니까. 차라리 일찌감치 총맞아 죽은 박대통령이 나은 팔자인지도 모르겠어.

이회창 – 아니, 천하의 제이피답지 않게 왜 그런 넋두리입니까. 역사를 보세요. 미국이나 우리에게는 빅카드가 있어요. 이승만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곧 죽게됐을 때, 터진게 6.25전쟁이고 미국이 90년대 내내 제2의 6.25전쟁을 추진한 것도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5027작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전쟁, 전쟁밖에 출로가 없어요. 미국이 아프간과 확 붙어버려야 하고, 한반도에서도 그 불똥이 튀어야 합니다. 그래야 6.15선언이다 민주노동당이다 뭐다 하는거 다 불질러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미군영구주둔론≫이니 ≪이북주적론≫이니 퍼뜨린 것이지요. 두고보아요. 김영삼시절 정말 전쟁직전까지 갔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진짜 터뜨리고 말겁니다. 건곤일척, 아, 제이피 앞에서 문자써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게 아니면 출로가 없어요. 민주노동당, 내가 보기에도 위협적이에요. 빨갱이들이 얼마나 준비해왔는지, 요즘 그 기세가 장난이 아니예요. 당대표라는 사람은 10만킬로민생투어다 뭐다 하며 민중속으로 들어가지, 당세가 하루가 다르게 확장되어 가지, 이제는 재야운동권, 학생운동권마저 들어간다고 난리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당내에서 개혁파들이 탈당한다고 연일 으름장인데... 이부영같은 사람은 탈당해서 민주노동당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만한 위인이예요. 지금 때만 기다리고 있다고나 할까요. 아이고, 끔찍합니다. 만약 내년 지자제선거에서 바람이라도 분다면 대선은 끝장, 끝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안기관에서 찔러준 정보에 의하며 이번 8.15때 조선사회당당수라는 사람까지 이회창반대투쟁을 역설했다나요. 이북이 나를 비토하는건 분명합니다. 그간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왜 안그렇겠어요. 아, 예전에는 우리 군부가 디제이를 비토한다 뭐다 했는데, 이제는 이북이 이회창을 비토한다 뭐다 하는 세상이 됐어요. 국민들은 지금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해요. 저런 소갈머리없는 놈이 과연 화통하고 탁월한 **김정일**위원장의 상대가 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하긴 산전수전 다 겪고 노벨상까지 움켜쥔 디제이도 김위원장 앞에서는 어른 앞의 애잖아요. 디제이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뭘 해보겠어요. 그저 대권이나 쥐어보자는 속심이지요. 그거 차지하면 온갖 부와 향락은 다 내손안에 있는거 아닙니까. 대통령되면 여비서부터 갈아 버릴거야. 흐흐... 그건 그렇고, 그래선지 요즘은 더더욱 밥맛이 없어요. 보다시피 내 관상은 말상이고 때는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 또 문자썼네. 미안합니다, 제이피. 근데 근심걱정으로 이 가을에 살이 안쪄요. 이 스트레스를 말입니다, 이번 추석에 손자놈과 화투치며 풀 계획입니다. 화투는 백만인의 두뇌스포츠라고 하잖습니까. 부시각하께서 방한하시면 화투를 선물로 줄까했는데, 김중권대표 어때요, 굳 아이디어였지요?

김중권 – 솔직히 대답하면, 생긴대로 논다고나 할까요. 왜 그렇게 사람이 체신머리가 없습니까. 그러니 지하철에서 여승객에게 망신이나 당하지. 참 그 야무진 여승객이 민주노동당원이었다지요? 역시 민주노동당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군요. 쯧쯧, 어찌 저런 사람이 야당의 대표가 됐을까. 하긴 김영삼같은 천하의 무식꾼, 난봉꾼도 대통령까지 해먹었으니... 나, 짧게 얘기하지요. 어차피 내년 대선은 지역선거고 연합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만약 민주노동당이 지자제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약진한다면 우리 민주당도 달리 볼겁니다. 민주노동당과의 제휴를 적극 모색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차기정권은 이북과 낮은 단계 연방제로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만한 경륜과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내가 그만한 인물이 못 되는거 잘 압니다. 그런 점에서 이인제도 오십보백보



예요. 다만 노무현이는 어떨까 싶네요. 그래도 보수세력과 손잡지 않고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일단 민주당에 들어오면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거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진보정당이 무섭다는거 아닙니까. 만약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속에 확실히 자리잡으면 그때는 ≪비판적 지지론≫의 약발이 완전히 떨어질겁니다. 그때가서는 노무현, 김근태부터 해서 민주당내 적지않은 개혁인사들이 민주노동당으로 이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당이 민주노동당으로 흡수통합되지 않으면 다행일겁니다. 그게 아마 우리 당의 태생적 한계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고보면 결국 재야운동권이든, 개혁정치인이든, 시민운동가들이든 모두 진보정당으로 모이는거 아닙니까? 청와대비서실도 운영해보고 여당당대표도 해본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가면 나도 받아줄려나...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거보다 힘들겠지요? 하여튼 나는 지금 대권밖에 생각이 없어요. 디제이는 나를 절대로 못버립니다. 아직까지는 지역선거예요. 내 얼굴을 보세요. 이게 어디 대통령관상입니까. 그러나 얼굴이 무슨 상관입니까. 문제는 지역감정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비빌 언덕은 바로 그 지역감정입니다. 지역감정...

유시민 – 유심히 쳐다보니 정말 관상이... 뭐라 표현할 수 없네요. 그런 점에서 이총재님과 막상막하십니다. 구시대정치인의 전형인 김중권전대표의 진보정당가입이라, 정말 대단한 농담이군요. 김전대표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저도 느낀게 많습니다. 결국 모든 길이 진보정당으로 통하네요. 저도 늦기 전에 입당해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듭니다. 다만 이 프로를 끝낼 때까지는 유보하는게 여러모로 좋겠지요. 하여튼 기운내십시오. 이회창총재는 저 관상으로도 지난 대선에서 그 많은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헌데, 보면 볼수록 관상이... 혐오... 자, 그럼 제 왼쪽의 두 분도 마지막으로 한말씀씩만 하시지요.

룰라 –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점을 느끼고 갑니다. 역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맑스의 금언은 진리입니다. 이제는 시대추이에 맞게 만국의 민중이여, 단결하라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투쟁에 모든 민중이 단결하여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운동권들은 만국의 노동자, 민중과 단결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단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의 민중들이 하나로 단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결의 사상이 있는 한 한국진보정당의 미래는 낙관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진리와 대세의 편에 있는 한국민중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최규엽 – 지난해 노동당창건 55돌 행사를 직접 참관하며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이북민중들이 영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니 슈퍼파워아메리카도 꼼짝 못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위대한 민족입니다. 비록 내외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준동이 극심하지만 다 거품일 뿐입니다. 6.15공동선언이니 조미공동성명이니 하는 자주의 대하를 되돌릴 힘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민족의 편에 서기 바랍니다. 유명한 반공주의자였던 김구, 최덕신선생도 민족의 편으로 돌아서서 역사에 애국자로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조국통일3대헌장의 하나인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마지막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나선다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 이 얼마나 위대한 도량입니까.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더욱 혁신하고 전진하여 기필코 한국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이룩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를 건설하고 범국민반미항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21세기는 반드시 자주민주통일이 실현되는 자주의 세기로 역사에 빛날 것입니다. 끝으로 유시민씨, 그간 이 프로를 보며 유시민씨를 유심히 관찰했었는데 예전의 유시민씨가 아니더군요. 뭐, 지금 한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신 적이 있지요? 이게 어디 진보적인 세계사를 쓴 저자의 말이 맞습니까? 아무리 공개방송이라고 하지만 너무 오른쪽으로 막나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 최규엽위원장도 이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안 그러면 난리납니다. 나라고 좋아서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하여튼 이따 술한잔 하면서 더 얘기해봅시다. 지금 시청자 한분과 전화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시청자 – 오늘 토론을 잘 보았습니다. 역시 이회창, 김종필은 천하의 몹쓸 인간말종들임에 틀림이 없군요. 룰라와 최위원장님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민중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을 극에 다달은 상황이지요. 문제는 기성정당들을 대체할 만한 정당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운동권들이 대안세력인가 하면 엄밀히 말해 아직은 멀었다고 할 수 있지요. 제가 디제이라면 운동권들에게 당신들은 집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는 재야운동권도 대답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진보정당의 닻을 올렸다고! 저도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야말로 아침해와 같은 우리 민중의 희망이자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연방제 얘기도 나왔는데, 얼마전에 제가 황광우연수원장님과 연방제문제로 설전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토론을 듣고 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참, 인터넷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게시판에 내가 목욕을 한달에 한번 한다, 두번 한다 말이 많은데, 그런 얘기 좀 올리지 마세요.

유시민 – 아니, 왜 목욕얘기? 잠깐만,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시청자 – 깜박했군요, 예, 저는 남원에 사는 홍기표라고 합니다. 민주노동당 남원연수원의 상근간사지요. 최규엽위원장님, 남원에 한번 오신다더니 왜 아직 안오시는거예요.



최규엽 – 하하, 8.15때 바빴잖아요. 곧 내려가지요.

유시민 – 아, 그 유명한 홍기표씨군요. 저도 그 게시판에서 ≪홍기표와 아낙네들≫이라는 유머를 보고 유쾌하게 웃었었는데 정말 남원에 가보고 싶더군요. 하여튼 그 외지에서 황광우원장님과 함께 연수원을 세우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골학교를 기증받아 연수원으로 개조하는 것이나, 당원들이 이불과 책을 기증한다거나, 연수원을 고향가듯이 부담없이 찾아가도록 만든 것이나 역시 진보정당은 연수원운영도 다르더군요. 홍기표씨, 남원이 그렇게 경치가 좋다면서요?

시청자 – 두말하면 잔소립니다. 유시민씨도 한번 놀러오시지요.

유시민 – 전화에 초청까지, 하하,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대한 주제를 첨예한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토론하니 당연히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정치인들을 하루빨리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하는지, 격변하는 정세속에서 진보정당건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중은 자신의 요구를 옳게 대변할 그런 참다운 정당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이 군사적보복을 시도

(평양 9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외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일 전례 없는 대기습공격을 받은 미국에서는 지금 군사적보복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전쟁전야의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습격사건과 관련하여 미국대통령 부쉬는 ≪21세기의 첫 전쟁에 직면하였다≫고 하면서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가 있은 이상 모든 수단을 동원한 최고수준의 징벌을 가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14일 부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만명의 예비역군인모집결정을 발표하였으며 미국회는 부쉬행정부에 무력사용을 위임하고 보복공격 등에 쓰일 400억딸라의 자금지출안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5일 부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이 이번 사건의 혐의자로 간주되는 사우디 아라비아출신의 라덴과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는 그 어떤 나라도 타격할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것으로 알려 진 라덴을 지난 시기 자기 나라에 대한 여러건의 공격사건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하고 몇년전부터 체포하기 위해 추적해 왔다 한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린접한 파키스탄에 미군용기들의 령공통과를 승인하며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을 봉쇄할것을 요구하였다.

15일 파키스탄은 미국의 요구를 수락하기로 한데 이어 라덴을 3일내에 미국에 넘겨 주지 않으면 아프가니스탄이 공격을 받을것이라는 부쉬행정부의 최후통첩을 타리반정부에 전달할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대규모적인 공격작전과 관련하여 14일 아프가니스탄의 집권타리반세력 최고지도자 오마르는 전국에 보내는 방송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미국의 보복공격에 맞서 용기와 명예를 과시할것을 호소하면서 ≪타리반은 죽어도 존엄있게, 영예롭게 죽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타리반세력 정치지도부 대변인은 타리반이 미국의 있을수 있는 공격에 방어만 할것이 아니라 보복도 가할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그 어떤 대가도 치를것이며 모든 수단을 사용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타리반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그 어떤 이웃나라가 자기의 령토와 령공을 아프가니스탄을 반대하는 군사작전에 제공한다면 ≪그 나라에 대해 전쟁도 불사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알려 진데 의하면 현재 타리반세력은 700여기의 ≪스팅거≫미싸일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경우 이 미싸일들이 대응타격의 주요무기로 리용될것이라 한다.

한편 라덴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이번 사건에 자기가 관여하였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누가 하였든 그것은 그들자신의 목적에 따라 한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습격사건을 조직한 사람들을 찬양하였다.그는 ≪지금 수천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성전을 벌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군사적공격기도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의혹과 경계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국신문 ≪로스안젤스 타임스≫는 ≪일정한 전선도 없고 적도 숨은 상태에서 벌어 지게 되는 장기적인 전투는 미국인은 물론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부쉬행정부가 군사행동에 대해 신중할것을 요구하였다.

파키스탄신문 ≪더 뉴스≫는 미국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보복을 가한다면 세계이슬람교도들의 반미감정이 고조되여 그들이 미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립장을 취할것이라는데 대해 전하였다.

16일 그리스국방상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려면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맹목적인 공격을 피할것을 미국에 호소하였으며 이딸리아국방상은 자기 나라가 미국의 군사공격작전에 무력을 참가시키지 않을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회 하원 정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씨엔엔텔레비존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본토가 훨씬 강력한 공격을 받을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며 워싱톤의 국회의사당과 국방성청사사이의 일대가 여전히 공격목표물이라고 말하였다.

미국회 상원 군사위원회소속 한 의원도 미국이 의연 미싸일과 핵무기,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속에 있다고 밝혔다.

부대통령 체이니는 ≪이번 전쟁은 며칠이 아니라 수년은 걸릴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장기적인 군사깜빠니야를 예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금 세계사회계는 미국의 군사적보복이 초래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보복공격 반대, 한국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민주사회단체 연대집회



부시방한반대 연대기구는 오늘 연대집회를 갖고 미국의 보복전쟁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시방한반대를 위해 모인 8개 단체 연대기구인 ≪부시방한반대 연석회의≫는 20일 오전 11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옆 인도에서 ≪민주사회단체 연대집회≫를 갖고 미국의 보복전쟁과 한국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경원(매향리 범대위) 공동대표는 투쟁연설을 통해 ≪부시정권이 MD 정책을 빙자해 세계를 전쟁 분위기로 만들고 있을 때 미국에서 테러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미국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평화와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보복전쟁에 물자와 군대를 보내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민중연대)≫의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은 최근 경찰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적법한 집회를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헌법과 집시법에 의해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종로서장과 종로서 경비과장을 구속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은 미국이 ≪아프간이 테러자행과 사주를 했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무고한 아프간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미국의 근거없는 보복전쟁 발표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한국이 이러한 불의의 전쟁에 지원한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모든 평화세력이 연대해서 ≪불복종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정광훈 의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인, 민주사회단체 등 광범위한 우리 국민들 또한 미국의 보복전쟁과 한국정부의 지원을 우려하고 있고 그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성명서는 ≪이번 대참사를 계기로 미국이 평화와 호혜평등에 입각한 국제관계의 재정립과 보복전쟁의 중단, 한반도에 행해지는 무기강매, 경제침략, 통일을 방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한국정부의 전쟁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집회를 마치고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을 비롯한 대표들은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연대집회를 주최한 ≪부시방한반대 연석회의≫는 오는 22일에는 보복전쟁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부시방한반대 연석회의≫ 참여단체는 현재 8개 단체로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남측본부,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구민중연대,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등이다.

이후 부시방한반대를 위해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용규 부시방한반대 연석회의 상황실장을 만나 부시방한반대 연석회의에 대해 알아봤다.

이용규 상황실장은 부시방한반대 연석회의가 ≪반미 연대의 기운을 더욱 확장,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이용규(민중연대 사무처장) 상황실장과의 문답 내용이다.

–문 : 연대기구의 정식명칭은.

=답 : 평화위협, MD 강요, 강제침략, 통일방해 ≪부시방한반대 연석회의≫이다.

–문 : 언제 연대기구에 대해 논의 됐는가.

=답 : 민중연대가 각 단체에 제안을 해서 지난 13일 1차 간담회를 갖고 명칭과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문 : 연대기구의 이후 사업은.

=답 : 10월 11일 ≪부시방한 반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정식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11일부터 20일까지 부시방한 반대 주간으로 선정해 이 기간중에 각계 대표인사를 섭외해 ≪시국대선언≫을 가질 것이다. 이어서 부시 방한일인 18일에는 전국집중 ≪범국민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다.

또한 이 사업 외에 연대기구에 참여하는 각 단위에서 각자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각 단위별로 전개할 것이고 이에 대해 주관은 각 단체가 되고 주최는 연석회의가 된다.

–문 : 이번 ≪부시방한반대≫ 연대기구가 갖는 의미는.

=답 : 그동안 반미투쟁을 각각의 단위가 해왔었는데, 이번 연대기구를 통해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해 가는 데 의미가 있으며, 연대투쟁의 가능성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반미 연대의 기운을 더욱 확장, 고조시킬 것이라고 본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9-20



피는 피를 부르고 화해와 친선은 인류의 평화를 부른다!

미국의 보복전쟁 반대 및 한국정부의 전쟁지원 반대와 세계평화를 열망하는 민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1. 우리는 미국 대참사에 희생된 무고한 시민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한없는 슬픔과 커다란 아픔을 당하는 미국 국민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낸다.

2. 우리는 불특정 다수의 죄 없는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점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를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 대참사를 일으킨 범인들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무거운 분노를 모아 엄중히 규탄한다. 한편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을 잃고, 국토를 유린당한 미국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에 공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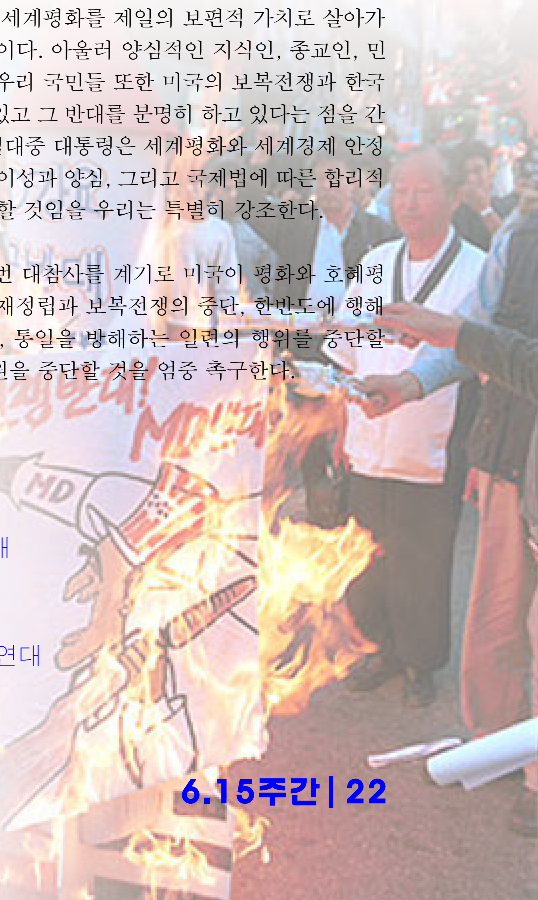
3. 그러나 우리는, ≪보복 전쟁≫을 선포한 미국 당국의 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세계 60여 개 나라가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미국 당국의 공언에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국 당국의 보복전쟁은 수많은 무고한 양민의 학살을 불러올 또 다른 테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피는 피를 부르고, 보복전쟁은 새로운 대참사를 잉태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복전쟁은 미국에게 결코 이롭지 않으며, 또한, 미국 당국의 무력공격이 지구 곳곳에 참화를 빚을 때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를 도탄에 빠뜨릴 뿐 아니라 상대국의 반격을 초래, 결국 세계대전의 불씨로 치솟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복전쟁은 인류를 위해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인류가 바라는 것은 보복전쟁이 아니라 대참사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일이며, 이번 대참사를 계기로 평화가 더욱 증진되는 것이다.



4. 우리는 미국 대참사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미국의 극단적 군사패권주의와 무한 경제침략주의에 맞선 의식적이며 조직적인 대응의 산물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참다운 지혜와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길 미국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그것은, 미국 당국을 향한 세계인의 분노를 미국 국민 모두가 깊이 이해하는 일, 그에 기초하여 호혜평등의 새로운 국제 관계를 미국 당국이 새롭게 펼치는 일에서 시작된다. 한편, 대참사의 범인은 국제법에 따라 세계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정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인류를 재앙에 빠뜨릴 미국 당국의 국제적 무한 보복전쟁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을 약속한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한다. 세계 각국의 보복전쟁에 대한 우려와 미국내 지식인들의 보복전쟁 신중론 등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를 제일의 보편적 가치로 살아가는 인류의 염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인, 민주사회단체 등 광범위한 우리 국민들 또한 미국의 보복전쟁과 한국정부의 지원을 우려하고 있고 그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않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평화와 세계경제 안정을 위해 마땅히 미국에게 이성과 양심, 그리고 국제법에 따른 합리적 대응을 강력히 권고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특별히 강조한다.

6. 우리는 다시한번 이번 대참사를 계기로 미국이 평화와 호혜평등에 입각한 국제관계의 재정립과 보복전쟁의 중단, 한반도에 행해지는 무기강매, 경제침략, 통일을 방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한국정부의 전쟁지원을 중단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2001년 9월 20일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MD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민주노총, 전쟁 반대 집회 ≪평화가 좋아요≫

미국은 세계무역센터와 국방성에 대한 테러를 ≪전쟁≫상태로 규정하고 이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된 오스마 빈 라덴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20일 낮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5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부시 정부의 전쟁 중지와 이 사건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에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원들은 테러사건으로 숨진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묵념과 평화를 기원하는 뜻으로 장미꽃을 흰 천에 올려놓는 상징의식을 가졌다.



이어 발표된 성명서에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어떠한 목적의 테러와 폭력, 전쟁을 반대하며 미국의 보복전쟁을 통해 전세계가 또 다시 군비확장과 군사주의로 나아갈 것을 경계한다≫고 밝히고 한국정부의 전쟁지지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은 이루어져야 하나 군사적 행동의 참여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적인 위기가 고조될수록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세계평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침묵시위에는 서민영(3살) 어린이가 참여해 ≪평화를 상징하는 어린이≫라는 애칭이 붙여져 눈길을 끌었다.

한편 같은 시각 명동 입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부시의 전쟁선언을 규탄하고 평화를 선언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에서 허영구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이번 테러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전쟁을 선택한 것은 또 다른 테러와 전쟁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무고한 민중들의 희생만 늘어난다≫고 강조하고 한국정부의 전쟁지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짧지만 강한 어조로 대답했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이번 테러에 대해 ≪미국이 제3세계에 대해 군산복합체를 통해 지배하려고 했던 결과≫라며 ≪미국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근본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현재 미국의 태도를 비난했다.

김영제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국장도 ≪현재 힘에 의한 패권적 정책을 추진중인 미국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서로 존중되는 세계국가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테러의 진범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려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명동 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 헌화할 꽃과 미국이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쟁대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홍보지를 나누어 주었다.

이 홍보물을 읽어보던 박정숙(미화원,56)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서로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추도문≫과 ≪진혼굿≫을 통해 테러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를 애도했다.

미국은 전쟁을 선포하기보다는 진범 찾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테러에 맞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9-20



통일연대 소속 종교단체, 첫 공동기자회견 가져



통일연대 소속 11개 종교단체가 처음으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기독교시민사회연대(기독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실천승가회) 등 11개 단체는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미국 테러참사 희생자 추모와 세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종교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폭력적인 테러와 구조에 의해 희생된 미국인을 비롯한 모든 인류 형제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공동서명서는 미국이 MD추진을 통한 유일 패권국 기도, 대북강경정책,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지지, 유엔이 주최하는 반인종차별회의에서의 퇴장, 교토 환경의정서 탈퇴 등을 세세히 나열하며 세계 폭력구조의 중심에는 미국이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보복공격은 미국내의 군수산업체만의 이익으로 테러공격의 해결의 길이 아님을 강조했다. 따라서 ≪전쟁이전에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국제양심의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동성명발표에 앞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대표들이 각각 테러희생자를 애도하는 추도사 낭독이 있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미대사관 앞에 희생자에 대해 헌화예식을 가졌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18일 기독연대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에서 각 단체에 제안해서 이뤄진 것으로 7대 종단과는 달리 통일연대내의 종교단체들이 처음으로 공동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이다.

참여단체는 불교연대, 실천승가회, 평불협,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기독연대,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모임,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제3세계신학자협의회, 원불교 청년회 한삶 운동본부 등이다.

이번 회견을 제안한 실천승가회의 이상효 사무차장을 만나보았다.

실천승가회 이상효 사무차장은 ≪희생자들 추모는 종교인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보복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절대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국민들의 통일연대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을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효 사무차장은 이후 계획에 대해 이번 기자회견은 ≪통일연대 소속 종교인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기는 처음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자평하고 보복전쟁이 시작되면 좀더 강경하게 종교단체의 입장을 밝힐 뿐만 아니라 최근 항의집회나 시위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이 금기를 종교인들이 넘어서고 또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은 너무 급박하게 준비돼서 대회형식을 가지지 못했으나 이후 세계 양심세력의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에 대한 논의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 각 종교대표들이 만나 이뤄질 것이라고 이 사무차장은 전했다.

7대 종단과 연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무차장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통일연대 소속 종교단체들은 ≪향후 전쟁중단과 세계 평화에 맞춰 일할 것인데 같은 입장을 유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사무차장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7대 종단에 제의는 할 것이라고 밝혀 7대 종단과의 연대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9-21



통일연대 소속 종교단체 기자회견문

지난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 등에 대한 자살 비행기 테러 이후 온 세계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반대하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1. 미국의 본토에 대한 첫 공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이번 일이 테러에 의해 무고한 수천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잔혹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데 대해 우리 종교인들은 우려와 비탄을 금할수 없으며 폭력적인 테러와 구조에 의해 희생된 미국인을 비롯한 모든 인류 형제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명합니다. 그 무슨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장 소중한 우주적 생명의 손실 앞에서 종교인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자각합니다.

테러는 보이지 않는 사람과 조직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야만적이고 비문명적인 힘의 행사입니다. 테러는 그 참혹한 결과에 반해 책임을 져야할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테러가 자행되는 상황에서는 평화를 향한 노력은 애초에 불가능한것입니다. 비록 테러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정치적 국제적 구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테러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종교인들은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2. 우리 종교인들은 테러를 불법적 폭력행사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깊은 반대를 표명하지만 또한 테러가 일어나는 폭력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반대를 표명합니다.

지금 온 세계 폭력구조의 중심에는 미국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로 자처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이라는 잣대에 의해 전세계적 범위에서 부당한 힘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적용하는 자의적인 이중기준에 의해 전세계의 약소국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MD추진을 통한 유일 패권국기도, 대북 강경정책,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지지, 유엔이 주최하는 반인종차별회의에서의 퇴장, 교토 환경의정서 탈퇴 등 미국이 온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폭력적이고 불법적하며 반평화적인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이같은 태도는 테러의 근본적인 원천이며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근원적인 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준비되고 있는 미국의 보복공격은 또다시 압도적 힘의 우위를 믿고 약자의 주장을 짓밟는 조직화된 국가적 테러요 폭력임을 지적합니다. 미국은 이번 테러 공격에 대해 보복공격으로 해결의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중잣대와 제국주의적인 오만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온 세계에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자신의 힘을 정의롭게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문제의 해결방법은 전쟁이전에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국제양심의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해야할 것이지, 전쟁의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은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미국내의 군수산업체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보복전쟁은 또 다른 테러를 불러올 것이며, 이는 세계무역센타보다 더욱 참혹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 자명합니다. 온 세계를 혼자만이 지배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오만은 세계의 평화에호 인류의 규탄과 정죄의 대상이 될 것이며 결굴 국가적 몰락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언자적 정신으로 지적합니다.

3. 우리 종교인들은 이러한 테러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친미사대주의적 전쟁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에게도 경고를 보냅니다.

우리 국민은 테러에 의한 폭력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응징하는 보복전쟁에 의한 폭력도 반대하는 평화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국민의 평화 열망을 외면한채 미국이 요청하면 파병까지도 검토할 것처럼 언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떠보고 있습니다. 지난 달 만해도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며 설사 소수당이 되더라도 대북평화 화해협력정책을 밀고나가던 정부가 온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는 미국의 반평화 정책을 지지하고 심지어 지원과 참군할 것까지 고려한다면 누가 정부의 평화의지와 화해정책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까?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는 이야기하면서 중동의 평화를 외면한다면 어느 국민이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진정으로 평화를 지향한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정략적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진정한 민족의 평화와 통일,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보복전쟁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진정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중동에 대한 보복 전쟁을 마친 후에는 그 총구가 테러지원국이라는 굴레를 쓰고 있는 북한으로 향할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이번 전쟁 다음의 전장이 한반도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그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정부는 스스로가 비현실적이며 모순에 빠진 전쟁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위해서라도 미국에 대한 보복전쟁참여 및 지원 정책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

1. 우리는 폭력의 구조에 의해 희생당한 모든 분들을 애도하며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2. 테러는 어떤 형태이든 불의를 행하는 악입니다. 따라서 테러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3. 테러의 폭력에 맞서는 또다른 전쟁은 폭력의 악순환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보복전쟁을 반대하고 철저한 수사와 국제재판을 통한 책임자 처벌을 주장합니다.

4. 우리는 현정부가 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미군에 대한 지원과 참군 계획 등에 대해 반대합니다.
5. 우리는 전쟁의 불길이 중동을 거쳐 한반도에 상륙할 것에 대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01년 9월 21일
6.15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소속 종교단체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불 교 : 불교연대, 실천승가회, 평불협 / 천주교 : 천주교정의구현 사재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기독교 : 기독연대,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모임,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제3세계신학자협의회 / 원불교 : 원불교 청년회 한삶 운동본부



전쟁반대, 미군기지반환, 무기강매반대, 미사일방어계획반대, 부시방한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반전 반미≫ 투쟁이 오늘 하루도 끊이질 않고 전개됐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일 미 의회 연설을 통해 아프간에 ≪최후통첩≫을 해 보복전쟁 발발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한총련 등은 22일 오후 4시 30분 명동에서 ≪전쟁반대, 미군기지반환, 무기강매반대, 미사일방어계획반대, 부시방한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갖고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동당 서울지부 김준수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보복전쟁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한편으로는 이의 지지를 표명한 현 정부를 비난했다.



권영길 대표는 특히 현 정부가 전쟁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전쟁반대와 부시방한 반대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는 ≪이 땅의 경제와 평화를 위해 좀더 힘차게 전진하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어 민주노총 이규재 통일위원장은 정치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이 이 땅에 상주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모든 부문에서 입고 있는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말하고는 주한미군 철거를 반드시 이뤄내자고 주장했다.

매향리범국민대책위 서경원 상임고문은 미국의 테러발생의 원인은 미국 자신에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세계의 약소국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미국은 보복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규탄연설을 했다.

서총련 김주훈 의장도 이날 대회 이전에 가졌던 용산 미군기지 앞의 한총련 집회를 보고하면서 부시방한과 보복전쟁, 주한미군 철거를 주장했다. 또한 이것만이 6.15공동선언 실현과 자주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대회는 미국이 대한반도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을 결의하는,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윤한탁 공동대표의 결의문 낭독으로 끝마쳤다.

이날 국민대회 이후에는 서총련학생들이 중심이 돼 문화제가 다채롭게 진행됐다.

한편, 주최 단체중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한총련 등은 결의대회에 앞서 각 단위별로 종로, 명동, 용산기지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특히 한총련은 미국의 테러발생 이후 300여명의 소속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전쟁반대, 기지반환≫을 위한 ≪용산미군기지 에워싸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에워싸기에 적합한 신고를 하지 못한 관계로 이후 투쟁으로 기약했다.

이러한 전쟁반대의 여론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에 아랑곳없이 미국의 보복전쟁이 눈앞의 현실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어 각 단체들도 보복전쟁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9-22



국민대회 투쟁결의문

지난 20세기는 수많은 전쟁과 약탈로 점철된 인류 수난의 세기였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포함한 숱한 전쟁으로 수천만의 인명이 무고한 죽음을 당하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아직도 수많은 인류가 기아와 빈곤, 질병으로 인간이하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침략과 약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실현하는 것은 전 인류의 공통된 염원이며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이 자신의 자주적 권리를 향유하며 평등한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인류의 지향은 새 세기 더욱 뚜렷한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세기 수많은 약탈전쟁의 당사국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적 양심세력의 지탄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수백만의 양민학살을 비롯하여 미군이 이 땅에서 자행한 수많은 학살만행들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반드시 청산하여야 할 미국의 수치스러운 역사이다. 미국은 수많은 범죄적 전쟁의 당사자로써 지난 세기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범죄국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미국이 지난 시기 자신들의 죄행들을 씻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염원하는 온 인류의 지향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은 패권정책을 새 세기로 연장하며 세계 유일지배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전 세계에 강요하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강화하여 우리 민족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 해 우리 민족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을 채택하고 자주와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큰 물꼬가 열리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려는 민족의 의지를 세계 만방에 과시하였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민족의 노력은 전 세계의 지지와 찬사를 받고 있으며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대열은 5대양 6대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전 세계의 열기가 날로 높아 가는 지금 미국의 부시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패권적 이익에 눈이 먼 부시 정권은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의 변화된 흐름을 직시하지 못하고 냉전의 망령에 사로잡혀 세계를 또 다시 전쟁의 공포로 몰아놓고 있다.

부시 정권은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새 세기에도 자신들의 군사적 패권을 연장하기 위해 북의 미사일 위협을 조작하고 세계 여론을 선동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패권유지에 이성을 잃은 부시 정권은 우리 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막대한 군사무기를 강매하고 연일 대규모 전쟁훈련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민족의 숙원이며 세계 평화실현의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은 이북 등 소위 자신이 말하는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려하고 있지만 진정한 위협은 미국이 보유한 막대한 핵무기와 패권적 전횡이며 미국이 주장하는 소위 불량국가의 위협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위적인 수단일 뿐이다.

미국에 대한 이번 ≪항공기습격사건≫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참화를 겪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온 인류가 함께 슬퍼해야 할 비극적 사태이다.

테러를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미국 뿐 만 아니라 온 인류의 절절한 염원이다. 이번 사태가 명백한 테러하면 이 사건의 주모자들은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를 군사적 보복으로 해결하려는 미국의 태도는 테러에 못지 않은 세계 안전의 위협이 되고 있다. 테러를 막을 수 있는 힘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 인류의 의지와 노력이지 결코 군사적 힘이 아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르고 군사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이 더 큰 대전의 참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은 인류역사의 뼈저린 교훈이다. 미국이 이번 사태를 군사행동으로 해결하려한다면 그것은 제2, 제3 테러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인류의 안전은 커다란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와 국제법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은 증거도 없이 이번 사건의 배후로 소위 테러지원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 신중한 자기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3세계의 미국에 대한 증오와 분노에 뿌리를 둔 이번 테러의 간접원인이 부시 정권의 극단적인 패권정책에 있다는 것은 세계 여론의 일관된 분석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자국에 대한 테러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미국에 대한 증오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극단적 패권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길이다.

오는 10월 18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의 패권정책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의 방한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부시가 한국을 방문해 벌여놓을 일은 미국의 부강경세력을 대행하여 한반도 대결을 강요하는 것, 미 군수자본을 대행하여 고가의 군사물자들을 강제로 팔아넘기려는 것, 미 독점자본을 대행하여 경제침탈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수탈이익의 보증수표인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협박하는 것 즉 우리 민족의 분단을 영구화하고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기 위한 것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결코 부시의 방한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이며 6.15공동선언을 막아나서는 부시 정권의 패권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등하고 정상적인 관계에서 진행되는 한미간의 어떠한 외교행위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예속과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미국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자신의 지배주의적인 대한반도정책을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시의 방한을 엄중한 자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민족의 자존을 걸고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을 결의하며 부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중단하고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방해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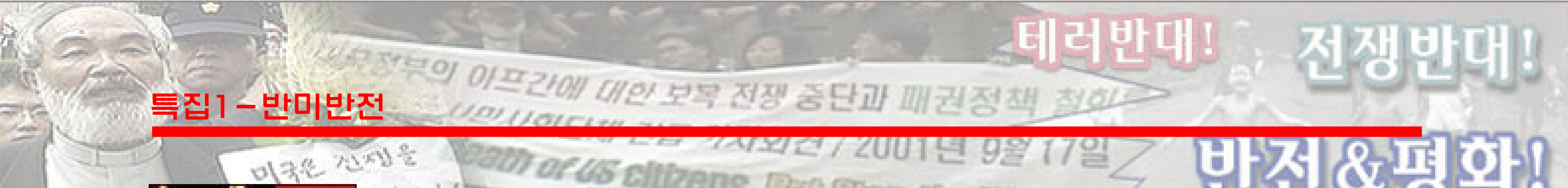
하나,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구축, 무기강매, 대규모 군사훈련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국은 미군이 이땅에서 자행한 모든 학살만행에 대해 사죄 배상하고 범죄의 온상 주한미군기지를 즉각 반환하라

하나, 미국은 이번 민간항공기공격사건을 빌미로 한 아랍권에 대한 무분별한 군사적 보복을 중단하라

우리 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9월 22일

전쟁반대, 미군기지반환, 무기강매반대, 부시방한저지, MD반대를 위한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미 보복전쟁반대 온라인캠페인

백악관 이메일 보내기 · 배너달기 운동 전개

지난 오마이 뉴스의 평화쪽지 보내기 운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반전 평화≫ 이메일을 백악관으로 직접 보내는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현재 미국이 준비중인 소위 ≪무한 정의≫라 불리는 보복전쟁에 저항하여 미 대통령 및 부통령, 백악관, 상원 의원, 하원의원들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는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어제 오픈한 안티워 홈페이지 (http://antiwar.jinbo.net)에서 전쟁 반대 배너달기 및 평화의 메시지 백악관으로 보내기 등 두 가지 행사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그들은 백악관으로 보내는 메일의 메시지에서 ≪테러 반대 ! 전쟁 반대 ! 반전 & 평화≫의 구호아래, ≪테러는 어떠한 형태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이번에 큰 참사를 당한 미국의 시민들에게 애도의 말을 전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복 전쟁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며, 미국은 전쟁 준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평화의 메시지 보내기 메일에는 이에 대한 영어 메시지도 같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이번 전쟁에 군사적 지원을 하기로 한 김대중 정부에도 항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게 된다.

≪우리는 미국의 보복 전쟁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의사를 밝힌 김대중 정부에 항의합니다. 미국의 전쟁은 아무런 명분이 없으며, 또다시 무고한 희생을 야기할 전쟁을 한국이 지원할 명분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김대중 대통령 및 민주당, 한나라당 대표, 총/부총재 등에게 이메일로 전달이 된다.

현재 40여개 이상의 시민 사회단체가 평화의 이메일 메시지 백악관 보내기 운동에 동참, 이번 캠페인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 메시지 보내기 운동은 미국이 전쟁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01-09-21 ⓒ 2001 유뉴스

미 하버드대생 5백명, 반전시위

MIT · 보스턴대등 1백여대학도 ≪전쟁반대≫ 집회

어제 정오 5백여명의 학생들이 와이드너 도서관 앞에 모여 지난 주 있었던 테러 공격에 대한 평화적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평화와 정의를 위한 하버드 행동연대≫(HIPJ)에서 주최한 것으로 ≪HIPJ≫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주에 결성된 모임이다.

한편 어제 MIT와 보스톤 대학을 포함한 백여개 이상의 대학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HIPJ가 주최한 이 시위에는 8명의 연사들이 나와 △ 인간생명의 고귀함 △ 인종차별주의 반대 △ 시민의 자유 보호 △ 전쟁을 피하는 대안을 찾기위한 대화 촉구 등의 내용으로 연설했다.

연사로 나선 역사문학부 강사인 티모시 P. 맥카시(89학번)는 ≪미국은 잘못된 전쟁을 서둘러 일으키기 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의 본질에 대해 더 깊고 냉철하게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알리사 칸(01학번)은 이슬람이 곧 테러리즘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파괴와 폐허를 만드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재건과 복구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날 시위는 종교학부 강사인 C.W.팔머(82학번)가 인도한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HIPJ의 회원인 스테판 N. 스미스 (98학번)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집회가 열리는 동안 주최측은 군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평화를 상징하는 녹색 리본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하버드 학생과 직원들 사이에서 이번 시위에 대해 가지는 생각들은 각기 다르다. 에이리니 M. 폰세카-사분 (00학번)은 자신은 시위대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치가들과 언론에서 군사적인 보복의 관점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 무척 걱정된다≫ 며 ≪이번 시위와 각지의 여러시위가 미국의 보복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버드 직원인 조 로렌코는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 느낀다고 말했다. 로렌코씨는 ≪그들은 우리 시민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 우리는 테러리즘을 지금 끝내야 한다. 우리가 끝내지 않는다면 테러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많은 하버드 학생들은 시위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알리아 J. 크럼(01학번)은 전쟁을 ≪당연한 진행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위기 상황에서는 비록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지켜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야만 하며,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단호히 행동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HIPJ의 임원인 데이비드 젠킨스(99학번)은 이번 시위의 참여율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사들이 시위의 의도를 잘 설명했으며, 분명하고 적절하게 이야기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다.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결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특정 민족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테러리즘에 대한 보복으로 ≪받은만큼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어제 오후 야드(Yard) 에서의 시위가 있은 후, 지난 밤에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하버드 광장에 모여 평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국/조지브래트 기자 adminsitrator@thecrimson.net
2001. 9. 24 ⓒ 2001 SNUnow



위험계선을 넘어선 일본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

석학 / 구국전선 9월 21일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이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일본은 지난 시기에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보상할대신 군국주의부활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행위이다. 일제의 패망일을 앞둔 지난 8월13일 일본총리는 과거 일제의 범죄적인 침략전쟁으로 참혹한 피해와 고통을 당한 조선과 아시아나라 민중들의 거듭되는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강행하였다. 역대 일본보수정객들이 ≪야스쿠니신사≫참배가 국내외에 물의를 일으켜온 것은 ≪야스쿠니신사≫가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참화를 들씌운 수급전범자들의 위패가 안치되어있는 군국주의망령의 총본산, 침략과 전쟁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일본의 역사왜곡책동의 흐름을 타고 군국주의부활이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있는 때에 강행된 것으로 하여 그 침략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새 세기 첫해에 벌어진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놀이는 과거의 범죄역사를 찬미하고 아시아나라들을 다시금 침략하려는 군국주의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은 것이다.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는 군국주의부활의 열기를 부채질하기 위한 목적밑에 의도적으로 고안된 위험천만한 정치모략극이다.

≪야스쿠니신사≫참배놀음에 뒤이어 얼마전에 있은 일본의 대형운반로켓시험발사 역시 군국주의열기를 부추기기 위한 책동의 일환이다.

이번에 발사된 로켓은 그 용도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로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일본의 ≪완성된 주력로켓≫이라고 한다.

일본당국자들자신이 이 로켓이 ≪군사적 목적에 전용될 수 있다≫는데 대해 숨기지 않고 있다.

군국주의부활과 군사대국화책동이 극도에 이른 속에서 진행된 이번 로켓시험발사는 명백히 핵무장화실현의 위험천만한 도발에 공개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을 실증해 준다.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부활과 해외침략책동은 무력증강을 다그치고 있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지금 일본은 해마다 약 500억달러의 돈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다음가는 최대의 해상무력을 가지고 있으며 육상자위대의 병력수는 영국의 육군과 해병대를 합친 것보다 많다. 지금 일본의 군사력은 수십만의 병력에 최신식 무장장비를 갖춘 강력한 무력으로 자라났다. 현재 일본은 1백50척의 함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태평양에 배비한 함선수와 거의 같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현≪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1-2005)기간에 최신형 ≪이지스≫함, ≪패트리어트≫의 개량형인 ≪PAC-3≫미사일, 항공모함, 대형장거리 수송기 등을 생산, 구입, 배비할 계획이다.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순식간에 100만대군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은 해외침략의 장애로 되고 있는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버리려고 날치고 있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그들은 명색상의 ≪평화헌법≫을 파기하고 전쟁헌법채택을 위해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집단적 자위권≫행사와 독자적인 ≪미사일방어≫계획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반동들은 미국과 공모하여 침략전쟁법들인 ≪일미방위협력지침≫관련법들을 채택하고 ≪자위대≫의 교전권과 참전권을 회복하였다.



일본은 오늘 아시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일본반동들의 첫째 목표는 한반도이다.

일본반동들의 한반도재침책동은 2005년에 끝내기로 되어 있는 현재의 ≪방위계획대강≫에 대한 재검토를 기한전에 끝내려 하고 있는 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방위계획대강≫재검토를 통해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으로 무력을 재배치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북조선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이북과 면한 일본의 서부지역에서 ≪전략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떠들면서 마치도 그것 때문에 저들의 ≪방위계획대강≫재검토가 필요한듯이 선전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이 떠드는 ≪방위계획대강≫은 말이 ≪방위≫이지 실지는 해외침략을 노린 위험한 침략문서이다.

일본반동들의 한반도에 대한 재침책동은 미국을 등에 없고 강행되고 있으므로 그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 미일동맹강화를 떠들면서 일본반동들은 ≪한반도유사시≫미국과의 ≪공동대처≫를 운운하며 침략의 창끝을 한반도에 돌리고 있다. 그들은 ≪자위대≫주력을 한반도와 가까운 서부일본지역에 집중배치하는 한편 상륙작전 등 공격작전연습들을 미친듯이 벌이고 있다.

일본의 해외침략의 위험성은 시간을 다투며 커지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한사코 실현하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기도가 앞으로 어떤 불씨를 몰아올지 예측할 수 없다.

우리 각계 애국민중은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부활, 한반도재침책동에 각성을 높이며 그에 온 민족이 공동으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함부로 날뛰지 말라

김창일 / 한민전 평양대표부 시사레포트 주체 90(2001)년 9호

최근 일본이 개량로켓 ≪H-2A≫를 시험발사한 것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것은 이번에 발사된 로켓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소로운 것은 일본반동들이 이번 로켓발사를 그 무슨 ≪우주개발≫인듯이 떠들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공정한 여론이 평하듯이 이번의 로켓발사는 명백히 평화가 아니라 해외침략을 노린 것이다.

그것은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내외공기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역사교과서수정놀음을 강행한데 이어 총리이하 내각의 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이 군국주의망령들의 위패가 들어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연이어 참배했다. 이는 해외팽창을 노린 일본의 군국화책동이 정책화되어 공공연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일본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맞먹는 로켓발사시험을 공공연히 단행함으로써 이른바 ≪전수방위≫라는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해외팽창야망실현의 본격적인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지난 시기 일본반동들이 이북의 인공위성발사를 계기로 입만 벌이면 ≪미사일위협≫을 떠들면서 반북소동에 광분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이북을 터무니없이 걸고 든 일본반동들의 이 같은 책동이 저들의 미사일개발을 합리화하고 그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것이 여지없이 폭로되었다. 실제로 일본반동들은 저들이 개발한 로켓이 ≪군사적목적에 전용될 수 있다≫는데 대해 숨기지 않고 있으며 ≪이북미사일에 대응한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현실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군국화와 해외침략기도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으며 매우 위험한 실천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범죄적 책동이 미국의 비호 하에 조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북의 ≪광명성 1호≫발사시에 야단법석을 떨었던 미국은 일본의 이번 로켓발사를 두고 오히려 이북과 그 주변국들을 걸고 들면서 ≪일본의 보복력의 개발이유는 충분하다≫며 공공연히 비호 두둔해 나섰다.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집권한 후 반년 남짓한 기간에만도 미일 반동들은 근 20회에 걸쳐 1백85일간이나 공동군사연습을 벌였고 다음해에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위한 공동연구에 올해 보다 2배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세기 미국의 뒷받침으로 한반도침략과 아시아병탄의 대동란을 몰아왔던 일본이 오늘 또다시 그때처럼 미국을 등에 업고 군국화와 해외팽창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현실은 일제의 침탈이라는 쓰라린 과거사를 안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와 민중들의 응당한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해외침략으로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일본반동들은 자주의 물결이 도도히 굽이치는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고 해외팽창야망을 버려야 하며 범죄로 얼룩진 과거사에 대해 솔직히 사죄하고 해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이북을 첫째가는 표적으로 삼고 무모한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는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과 이를 공공연히 부추기는 미국의 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은 이북의 평화애호적인 입장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빈말을 모르는 선군정치의 강국 이북이 경고했듯이 북의 미사일은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에 한해서만 평화적인 것이지 노골적인 북침을 겨냥한 미사일개발에 매달리는 일본과 그 배후 조종세력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피비린 망국사를 결코 잊지 않고 있는 우리 이남민중 또한 일제의 재침책동과 그 배후조종자 미제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며 반미반일항전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올리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일본이 과거를 망각하고 끝끝내 해외침략의 길에 나선다면 그로부터 차례질 것은 오직 수치스러운 파멸 뿐일 것이다.





일본의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창설에 대응조치

로동신문

(평양 9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일본반동들이 대형운반로케트 ≪h－2 a≫발사시험의 ≪성공≫에 대하여 요란하게 광고하면서 그것을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위한것처럼 선전하고 있는것과 관련한 론평을 실었다.

이번에 발사된 로케트는 대륙간탄도미싸일로 쉽게 전환될수 있는 일본의 완성된 ≪주력로케트≫로서 군사적목적에 리용될수 있다는데 대해 일본당국자들자신이 인정하고 있다.

론평은 일본에서 군국주의부활과 군사대국화책동이 다그쳐지는 속에서 진행된 로케트발사는 우주군사화책동의 한 고리로서 명백히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범죄행위이라고 지적하였다.

심상치 않은것은 일본의 로케트발사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이 이미전부터 추진시켜 온 미싸일방위체계공동연구에 박차를 가할 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는것이라고 하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일본방위관계자들은 미국과의 미싸일방위체계의 공동기술연구를 ≪북조선의 미싸일에 대응≫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다그치고 있는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은 말이 ≪방위≫이지 대국들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군사적패권을 틀어쥐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의 로케트발사와 관련하여 우리는 단단히 계산할것이 있다고 하면서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북조선의 미싸일이 일본의 상공을 통과≫한 것만큼 이에 대처한 연구를 계속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창설에 대해서까지 떠들어 대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걸고 우주군사화와 우리를 겨냥한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창설을 추구하고 있는 이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다.우리를 ≪표적≫으로 새로운 미싸일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일본의 기도가 현실적인 위험단계에 이르고 있는 엄중한 사태는 위성발사를 일시 중단하였던 우리의 립장을 부득불 고려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다.

우리의 미싸일강령은 평화적성격을 띠고 있지만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침해하는 자들에게는 자비심을 베풀지 않는다.



대규모적테로를 가상한 분석놀음을 벌리는 일본반동들을 규탄

민주조선

(평양 9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21일부 ≪민주조선≫은 최근 그 무슨 일본에 대한 우리의 ≪대규모적테로≫를 가상한 분석놀음을 벌리는 등 그릇된 여론을 류포시키고 있는 일본반동들을 규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이것은 남의 불상사를 악용하여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이루는데 체질화된 일본반동들만이 고안해 낼수 있는 어리석은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다시말하여 미국에서의 대규모적인 테로사건을 둘러 싸고 복잡해진 국제정세추이를 날로 높아 가는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헐뜯고 저들의 전시만행에 대한 국제적인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눅잦히는데 써먹으려는 일본반동들의 어리석은 타산밑에 꾸며 진 하나의 서툰 연극에 불과하다.

오늘 국제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위신은 나날이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국책으로 삼고 거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오는 일본반동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타격이 아닐수 없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깎아 내려 저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정당화하려고 꾀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반동들이 터무니없이 우리 공화국을 걸고 들면서 반공화국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대하여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우리는 그들이 한사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어째 보려고 하는 조건에서 그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지 않을수 없다.

일본반동들은 제 스스로 재앙을 청하는 어리석은 놀음을 당장 걷어 치우고 우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일본방위청장관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기도 비난

로동신문

(평양 9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방위청장관은 지난 6월 하순에 있은 미일군사당국자들사이의 회담에서 일본이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를 세우겠다고 한데 이어 일본잡지 ≪세까이슈호≫와의 기자회견에서 그 속심을 완전히 드러냈다.

오늘호 ≪로동신문≫은 일본반동지배층이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개발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것이 ≪방위≫를 위한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있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비낀 해외침략야망은 감출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은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을 통하여 동아시아에서 군사적지배권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을 통해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적토대를 보다 확고하게 마련해 놓으려 하고 있다.

일본의 ≪안전보장≫은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미국이 맡게 되여 있는 조건에서 일본이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할 필요는 없다.그리고 실지로 일본에 미싸일타격을 가하거나 일본을 침공하려고 하는 나라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를 세우려 하는데는 일본반동지배층의 음흉한 속심이 있다.즉 현행헌법을 해외침략을 할수 있게 뜯어 고치려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구상의 실현가능성이 거의나 없다는것을 알면서도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를 통해 ≪전수방위≫의 원칙을 완전히 허물려 하고 있는것이다.

론설의 필자는 일본은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를 세우는 방법으로 군사패권적지위를 차지하고 혼자서도 능히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행위를 단행하려 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이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수립으로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행위를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일본반동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테로방지지원≫명목 해외파병의 파멸적후과를 심사숙고해야

조선중앙통신 론평

(평양 9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에서 있은 테로사건을 두고 일본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테로사건직후부터 일본정부와 여당, ≪자위대≫내에서는 ≪자위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미군의 군사적공격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채택한다 하며 분주스럽게 서둘러 왔다.

이러한 정치군사적 배경하에 19일 일본 최고당국자는 미국의 군사적공격을 지원하기 위한 7개항의 지원책을 발표하였다.지원책의 요점은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의 명분으로 ≪자위대≫무력을 공식적으로 해외에 파견한다는것이다.

미국에서 발생한 테로사건은 물론 지극히 유감스럽고 비극적인 사태이며 이러한 테로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응당한 기여를 하는것은 온갖 형태의 테로를 반대하는 각국의 정책에 따른 옳은 선택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이 일본의 발 빠른 행동을 두고 극도의 경계감을 표하는것은 일본의 의도가 ≪테로방지≫와 그 ≪근원청산≫에 기본목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 만전쟁 당시에 저들이 거액의 자금을 내고도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적인 ≪군사행동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력설하고 있지만 그들의 진짜 속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일본이 노리고 있는 목적은 명백하다. 일본은 미국의 테로사건을 기화로하여 기본 침략무력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무제한하게 확대하며 아시아재침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자는것이다.

일본 최고당국자가 이번에 발표한 미국에 대한 지원책이 일본국회에서 법률화되여 그대로 시행된다면 일본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전세계에 대한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완전히 제도화되게 된다.

이것은 결코 무심히 그리고 테로방지로만 의식하고 작게 볼 문제가 아니다. 국화된 일본의 해외파병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헤아릴수 없는 참화를 입었는가.

일본은 력사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리용하여 침략과 전쟁을 합법화해온 비정상적인 나라이다.

일본이 우리 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위성발사를 두고 ≪미싸일발사≫라고 한사코 우겨대면서 독자적인 정찰위성개발과 대륙간탄도미싸일개발을 결정추진해 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일본이 지금은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체의 ≪미싸일방위≫체계 개발까지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불행을 역리용하여 아시아재침의 기틀, 즉 급속한 군사대국화와 ≪자위대≫의 제한없는 해외파병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

급선무인 과거청산은 50여년 동안이나 회피해 오면서도 해외파병에는 그처럼 극성인 일본의 속심은 바로 이렇다.

일본당국자들은 ≪테로방지지원≫의 명목을 건 해외파병이 가져올 파멸적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청년동맹비서, 일본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군국화책동 규탄하여 담화

(평양 9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김경호비서는 일본의 악랄해 지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군국화책동을 규탄하여 19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지금 일본의 반동적지배층은 지난 20세기에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도 사죄와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들의 죄악에 찬 과거를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며 그것을 영영 묻어 버리려고 분별없이 책동하면서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일본이 아직까지 과거청산을 하지 않고 있는것은 저들의 죄악에 찬 과거를 되풀이하려는 어리석은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만약 일본반동들속에서 군국주의가 부활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주입되고 현실에 옮겨 지는 경우 인류는 또다시 무서운 피해를 입게 될것이다.

오늘 온 일본땅에 몰아 치고 있는 군국주의열풍이 이를 실증해 주고 있다.

일본우익반동들은 군사대국화, 핵무장화, 해외팽창책동에 매달리면서 이미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에 나설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본반동지배층은 과거 일제의 피 비린 살륙과 략탈의 력사를 외곡하여 새 세대들속에서 군국주의를 고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총리 고이즈미를 비롯한 정부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이 제2차세계대전의 책임을 지고 처형 당한 자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구니진쟈≫에 떼 지어 몰려 가 군국주의광기와 재침의 열기를 올리였다.

더우기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있지도 않는 ≪미싸일≫에 대응한것이라고 지껄이면서 군사적목적에 전용될수 있는 로케트발사시험을 강행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무모한 군사적대결을 고취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 날 조선인민에게 들씌운 범죄행위를 청산하지 않고 군사적대결을 고취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응당한 대응조치를 취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이 과거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보상을 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길만이 일본을 구원할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고 일본의 새 세대들이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살아 나갈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우리 조선청년학생들은 범죄적과거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사죄와 보상을 회피하면서 대조선적대행위에 매달리는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하고 위험천만한 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선군의 보검, 사회주의장검을 서슬푸르게 비껴 든 조선청년학생들은 일본반동들이 과거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장장 한세기동안이나 쌓이고 쌓인 분노와 원한을 복수의 한칼에 풀고야 말것이다.

농근맹위원장, 일본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군국화책동 규탄하여 담화

(평양 9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승상섭위원장은 일본의 악랄해지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군국화책동을 규탄하여 2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은 력사교과서외곡책동과 현 당국자의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으로 안팎의 강력한 항의규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는 아랑곳없이 대형로케트발사시험을 강행하여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

그들은 이번 로케트발사를 두고 마치도 그 무슨 우주개발을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떠들어 대고 있지만 세계는 이것을 철두철미 탄도미싸일발사시험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당국자들자신도 이에 대해서는 숨기지 않고 있다.

군국주의부활을 다그치면서 로케트를 쏴 올린 일본당국의 오만무례한 처사는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의 지향에 대한 뻔뻔스러운 모독이다.

더우기 3년전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발사를 두고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라고 한사코 우겨 대면서 분주탕을 피우던 그들이 공공연히 우리를 겨냥한 미싸일을 쏘아 댄것은 우리에 대한 명백한 적대행위로서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하여 격분을 금치 못해 하고 있다.

나는 전체 조선농업근로자들의 이름으로 우리에 대한 과거청산을 회피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무모한 군사적대결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일본반동들을 준렬히 규탄한다.

죄는 덮어 둘수록 커지기 마련이고 군국화의 앞날에는 자멸의 길밖에 없다.

일본은 세계의 면전에서 드러날대로 드러난 저들의 전대미문의 범죄행위를 분칠하기 위한 온갖 간교한 술책에 매여 달릴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정신을 차리는것이 좋을것이다.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끼친 과거죄행을 성근하게 반성하고 보상할 대신 지난 세기에 이루지 못한 군국주의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날뛰면 날뛸수록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며 우리 인민의 강력한 대응조치에 봉착하게 될것이다.

6.15공동선언을 훼방하는 자들과는 추호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한민전≫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 8월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인터뷰

지금 이남에서는 8.15평양통일대축전과 관련해 방북했던 인사들의 활동을 터무니없이 걸고 들면서 문제시하는 괴이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방북인사들 중 일부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 개폐막행사에 참석했다는 것과 통일연대의 한 인사가 만경대생가를 참관하고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겼다는 것 등이다.

소동의 주역은 한나라당 패거리들이다. 한나라당의 이회창은 물론 사무총장, 원내총무, 대변인 등 어중이떠중이들이 얼굴을 번갈아대면서 무슨 큰변이나 난 것처럼 떠들썩하며 ≪사법처리≫니 ≪엄단≫이니 하며 악을 쓰는 한편 8.15통일대축전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한 당국까지 걸고 들어 악담을 퍼붓고 있다.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반통일분자, 매국반역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으로서 6.15공동선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행위이다.

이번 8.15평양통일대축전으로 말하면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정당성과 그 활력을 과시하는 뜻깊은 회합이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통일을 지향하는 겨레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범민족적인 대회합이었으며 자주의 기치밑에 조국광복을 이룩한 애국애족의 전통을 승계해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을 이루어낼 온 겨레의 결의와 의지를 다짐하고 과시하는 대축제였다.

그러므로 이 회합에서는 남과 북, 해외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그 장소가 문제시될 수 없다. 진정으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축제에 관심을 돌리고 그 성공적 진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것은 회피할 수 없는 의무이며 당연한 도리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이번 민족통일대축전장을 걸고들면서 개폐막행사에 참석한 방북대표단의 인사들까지 문제시하는 것은 달보고 짖어대는 개소리와 같은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공인하는 것이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는 바로 이 같은 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여 조국통일성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 말 온 겨레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우리 민족이 새 세기의 첫해 광복절을 맞으며 평양의 통일거리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세운 것은 크나큰 경사이고 자랑이다. 민족통일대축전을 이런 뜻깊은 장소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회창의 한나라당과 일부 불순세력들의 분별없는 소동은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여 8.15평양통일대축전을 파탄시키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반목과 질시, 대결을 조장해보려는 고약한 속셈의 발로이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른바 ≪만경대방명록파문≫이다.

만경대로 말하면 열렬한 애국자, 절세의 위인들을 배출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성지이다. 만경대생가에는 일찍이 미국해적선 ≪셔먼≫호를 격침시킨 김응우선생님과 한평생을 반일애국투쟁에 바치신 김형직선생님, 그리고 20성상의 항일무장대전으로 조국광복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비롯하여 만경대일가분들의 투쟁사적이 깃들어 있다. 이로하여 만경대는 애국애족과 민족자주의 상징으로 만방에 빛나고 있다.

동국대 사회학과 강정구교수가 만경대생가를 참관하고 방문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고 쓴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세상사람들 모두가 우러르며 칭송하는 만경대를 방문하고 솔직한 심정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시하니 어디 될 말인가.

광복직후 방북했던 김구씨도 만경대를 방문하여 감탄을 금치못했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만경대를 칭송했지만 그에 대해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문제시하지 않았다. 유독 이남에서 그것도 6.15공동선언이 이행단계에 있는 오늘날 이회창일파가 까박을 붙이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들에게 있다.

묻노니 애국애족이 그렇게도 싫고 민족자주가 그렇게도 질색인가?

그렇다면 이회창패거리들은 과연 누구인가?

저따위들이 애국애족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한방울 흘려보았는가. 고작 왜놈들과 양키들의 똥개노릇이나 하는 주제에 감히 어디대고 함부로 입방아질인가.

이회창일파가 일부 불순세력들을 사촉해 일으킨 분별없는 망동에는 엄중한 흉계가 도사리고 있다.

거기에는 남북간의 민간접촉과 대화, 교류의 문을 완전히 닫아걸고 이미 배척당한 당국주도의 ≪창구일원화≫를 되살려 6.15공동선언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보려는 저의가 내포되어 있다.

이회창일파는 이번 방북대표단의 활동을 터무니없이 걸고들어 망동을 부린 것으로하여 나라와 민족앞에 또하나의 용납못할 죄악을 덧쌓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그 추종세력에도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행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회창패거리들이 소동을 일으킨다고 하여 그에 동조하는 것은 심히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그것은 6.15공동선언을 난폭하게 짓밟는 배신행위로서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일시에 냉각시키는 엄중한 사태를 빚어낼 수 있으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월계관을 써보려는 이회창일파의 정략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어 결국 스스로 파멸의 올가미를 목에 거는 것으로 될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을 훼방하는 자들과는 추호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일보의 양보가 열보, 백보의 양보를 가져오며 그것은 대사를 망치는 화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범죄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이른바 ≪통일대축전파문≫과 ≪만경대방명록파문≫소동은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구속인사들은 무조건 지체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못된짓만 골라하는 이회창과 같은 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도, 조국통일도 바랄 수 없다.

타협없는 과감한 결단으로 이회창놈을 단호히 매장해 버리자.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6.15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그 이행을 적극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강정구교수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고 쓴 것은 아주 훌륭하다. 그것은 6.15공동선언이행에서 생명으로 되는 근본문제를 강조한 것으로서 온 민족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구호로 된다.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

모두다 이 구호를 높이 들자!

이남의 모든 투쟁단체들과 각계 민중은 이 구호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이행에 총력을 경주하자.

우리 한민전은 각계 민중과 더불어 6.15남북공동선언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준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과감한 투쟁으로 통일조국의 새날을 앞당기고야 말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자 자주통일 선언대회≫

≪노동자가 통일의 주역으로 나설 때≫

≪지금 미국이 약소국가를 융단폭격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일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을 몰아내는 투쟁을 힘을 모으고 수구반동세력들의 책동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9월 22일, 종로 젊음의 거리에 민주노총 자주통일선언대회가 개최되었다.

민주노총이 생존권 투쟁을 위한 총파업 투쟁 중심에서 자주통일선언대회는 노동자들이 자주통일에 그 주역으로 당당하게 부상한다는 점에서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6·15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민주노총 자주통일선언대회≫(이하 자주통일선언대회) 는 기간 민주노총이 99년부터 펼쳐온 통일사업을 결속지으며 더욱더 자주통일을 향한 행진을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들 속에서 펼치겠다는 소신으로 보인다.

이날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의 통일을 향한 열정의 출발이다≫라고 오늘 자주통일선언대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허영구 권한대행은 지난 2001 민족통일대축전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를 주었다며 특히 남북장관급회담을 성사시킨 민간급의 힘이었다. 민족의 문제는 민족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진리를 확인한 장이었다고 밝혔다. 8·15를 서슴치 않고 훼손하고 축소했던 모습은 과연 누가 통일을 위해 일하고 누가 통일을 원하는지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것 역시도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다고 밝혔다.

허 권한대행은 자주통일선언대회에 대해 ≪99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이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숱한 비판과 무관심 오해를 뚫고 민족의 통일없이 노동자의 생존권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민주노총은 생존권투쟁에 머물지 않고 노동자들의 통일의지 모아 국민들과 함께 악의 근원 외세를 몰아내는데 앞장설 것이다≫고 선포했다.

택시노동자로 지난 시기≪서울에서 평양까지≫를 만들었던 택시연맹 강승규 위원장은 방북보고 발언을 시작하며≪동지들과 함께 갔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노동자대표 29명을 비롯해 360여명의 남측 대표단이 2001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하고 돌아왔다. 범민련동지구속을 우리 힘으로 구출하자≫며 방북보고를 진행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노래를 만들 때 만 해도 이북 동포들의 통일염원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노인에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자주통일을 웨치며 뙤약볕에서도 지치지 않고 온 마음으로 뜨겁게 맞아준 우리 이북 동포들을 만나며 많은 반성이 들었다. 6·15선언 이행으로 분단된 조국을 반드시 하나의 조국으로 통일하겠다는 과업이다.

이제 선진적인 통일일꾼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 1천3백만과 함께 하는 폭넓은 대중성으로 통일을 이뤄야 치욕스런 분단의 역사를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는 현장에서 힘찬 결의로 나서자≫고 힘주어 말했다. ≪8·15행사를 훼손하고 축소하려했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에 대한 투쟁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돌아와 한 자 한 자를 뜯어보며 치솟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었다≫

거리 행인들의 눈길과 관심을 받은 가운데 희망새의 노래공연에 이어 2기 민주노총 노동자통일선봉대 김영수 대장(경기본부 본부장)은≪6·15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노동자의 과제와 임무≫라는 연설을 통해 6·15공동선언 관철에 노동자들이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손을 굳게 맞잡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의 통일을 하자는 약속은 두 사람의 약속이라고 여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또다시 되풀이 할 수 있다며 21세기 미국놈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되었던 뼈아픈 교훈을 돌아보며 반드시 6·15선언 관철에 모두가 나서자≫며 ≪7·4남북공동성명처럼 휴지조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때는 한총련이 없었고 전농도 없었으며 민주노총도 없었지만 지금은 백만학도의 구심이라는 한총련도 있고 천삼백만노동자의 조직 민주노총이 있고 7백만 농민의 조직 전농이 있다. 이 힘으로 반드시 6·15선언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힘있는 연설을 했다.

격정적인 정치발언으로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이 조국통일을 위해 앞장설 것을 선동했다.

≪6·15남북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민주노총 자주통일선언≫ 낭독은 양한욱금속연맹수석부위원장의 결의문낭독 후 현재 미국의 보복전쟁을 반대하는 미사일화형식으로 맺었다. 자주통일선언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미국의 보복전쟁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는 명동성당으로 향했다. 집회장 주변에서는 민주노총이 지난 1999년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의 성사로부터 지난 8·15 2001민족통일대축전을 담은 생생한 사진이 전시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자주통일선언대회는 기간 1999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이후, 작년 12월 남북노동자 통일대토론회, 5·1 남북노동자통일대회, 남북노동자통일연대기구≪통노회≫결성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이 벌여온 남북통일사업 결속하는 장이라는 점과 기간 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펼쳐온 투쟁이 민주노총 전체 차원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한옥주 기자 bumchujang@hanmail.net
2001-09-24 10:38:00

평화통일시민연대, 창립총회 갖고 대장정에 올라



시민중심의 통일운동을 표방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평화통일시민연대)≫가 창립총회를 갖고 통일운동의 대장정에 올랐다.

평화통일시민연대는 21일 오후 6시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통일운동의 대중화≫, ≪통일논의의 균형화≫, ≪통일정책의 대안화≫의 3대원칙 아래 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기(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평화통일시민연대 창립취지에 대해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맞게 됐으나 ≪여전히 많은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이 민족화해협력시대에 걸맞는 목표와 운동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명망가 중심의 단체와 목표를 상실한 통일운동에서 벗어나 양식있는 시민이 중심이 된 전문성을 지닌 시민단체의 창설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김재민(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임시의장에 의해 임원선출을 진행해 이사장 홍순명(경실련 통일협회 고문), 상임공동대표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공동대표 김재민(육사 14기회장), 이철기(동국대 교수), 송선근(남해화학 회장) 등이 선출됐다.

이날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장희 교수는 ≪시민이 중심이 되면서 전문성을 가진 운동으로 시민차원에서 운동을 힘차게 해 나갈 것≫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양관수(평화통일시민연대) 이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의 이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통일교육 및 평화교육을 위한 시민강좌 개최 △민족화해 시민 캠페인 실시 △통일문제에 관한 정책세미나, Workshop, 강연회 개최 △북한 돕기 및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전개 △냉전 법령 개폐 운동 및 이와 관련된 시민입법청원 △민족화해언론 모니터링 운동 전개 △평화통일 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 전개 △평화와 통일문제에 관련된 성명서, 논평 및 정부에 정책 건의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및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른 시민 실천운동 전개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본회의 제3조 목적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선근 공동대표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평화통일시민연대가 ≪통일운동의 명실상부한 구심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사전 행사로 강만길(상지대 총장) 고문의 ≪시민운동적 방법으로 21세기의 통일을 열어나가자≫는 기념강연과 축하공연이 있었다.

평화통일시민연대는 지난 7월 27일에 1차 준비모임을 갖고 논의를 해 오다 이날 창립식을 갖게 된 것으로, 기존의 통일운동단체들의 운동방식을 비판하고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운동을 지향하고 있어 이후 민간통일운동에서 그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9-22

평화통일시민연대 결의문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분단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분단과 갈등이 얼마나 뿌리깊고, 그것을 청산하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들이 제각기 자기 민족의 번영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냉전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속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타깝게도 우리사회는 아직도 냉전의식과 맹목적인 반북대결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긴장을 조장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방해하는 일은 남북한을 막론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겸허하게 반성돼야 합니다.

8.15 민족통일대축전은 통일운동단체들에게 깊은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통일운동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맹목적인 냉전의식 역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통일운동단체들에게 새로운 시대적 사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목표를 재설정 하고 자세를 다시 추스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민들의 일상속에 뿌리내리는 시민중심의 실사구시적인 통일운동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내는 대중성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통일운동은 실천적 운동이어야 합니다. 실천성을 결여한다면 그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실천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 통일운동은 생명력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우리는 ≪통일운동의 대중화≫, ≪통일논의의 균형화≫, ≪통일정책의 대안화≫에 뜻과 의지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모여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를 창립하였습니다. 통일운동의 명실상부한 구심체가 될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지난 반세기동안 겪었던 분단과 대립에 대해 역사와 민족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남북간의 반목과 갈등을 청산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고, 분단을 극복하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결의합니다.

둘째, 우리는 남북이 군사적 대결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우리민족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선봉이 될 것을 결의합니다.

셋째, 우리는 민족의 대장전인≪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 앞장설 것을 결의합니다.

넷째, 우리는 현실을 외면한 환상적인 통일운동이나 냉전논리에 기초한 시대착오적인 통일운동을 배격하고,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적인 통일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시키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합니다.

2001년 9월 21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임원명단 및 사업계획

임원명단

1). 상임공동대표: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대한국제법학회장)
2). 공동 대표: 김재민(육사 14기 회장,육사 총동창회 부회장,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이철기(동국대교수), 송선근(남해화학회장)
3). 이사장 : 홍순명
(경실련 통일협회 민족화해 아카데미 총동창회장)
4) 집행위원장: 윤영전 / 정책위원장: 양관수/ 부대변인: 이종환
5). 감 사: 박영하(변호사) 이용철(변호사)
6). 고 문 : 강만길(상지대총장) 김낙중(시민운동가)
김남식(통일연구가) 백낙청(서울대교수)
손장래(현대 모비스 상임고문) 이돈명(변호사),
조동걸(국민대명예교수) 주종환(동국대명예교수)
황병기(이화여대 명예교수)

사업 계획(안)

1. 통일교육 및 평화교육을 위한 시민강좌 개최
2. 민족화해 시민캠페인 실시
3. 통일문제에 관한 정책세미나, Workshop 강연회 개최
4. 북한 돕기 및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전개
5. 냉전법령 개폐 운동 및 이와 관련된 시민입법청원
6. 민족화해언론 모니터링 운동 전개
7. 평화통일 문화형성을 위한 사업 전개
8. 평화와 통일문제에 관련된 성명서, 논평 및 정부에 정책 건의
9.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및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시민 실천운동 전개
10. 상기과제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운동성과의 발간 및 출판 사업
11.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연대 사업
12. 기타 본회의 상기 제3조 목적에 관련된 부대사업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반공주의를 거두고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국가 운영능력을 키워야

민족화해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25일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이라는 세미나를 열고 변화된 시대에 맞는 제도교육과 사회교육내에서의 통일교육에 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장희(통일교육협의회)공동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냉전체제에서 화해,협력의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통일교육은 북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담은 교육관을 담아야 하며, 21세기 시민사회의 과제인 인권,평화,인간,안보,관용,정의, 평등 등의 가치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향규(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객원교수는 예전의 통일교육이 반공교육에 치우친 점들을 반성하고 기존 교육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과 통일후 통일국가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교수는 ≪통일교육의 현단계가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해도 진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북한과의 공존에 대해 논의하며 북한이해교육을 위해 북한자료와 연구물들이 공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지난 50여년간의 지난한 민주화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과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과거 반공교육이 우리사회를 억압과 질곡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라면 그 반공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고, 반공교육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의식을 교정하는 것이 현단계 통일교육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 통일교육의 법적개념을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된 국가를 평화적으로 운영,유지할 수 있는 지적 도덕적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확대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사회 이해와 평화,인권,다문화 이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공존능력의 배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통일교육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는 없지만 통일교육이 통일이전까지는 냉전시대의 적대감과 상대방에 대한 무지를 약화시키는 등 통일과정속에서의 일시적인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통일후에는 분단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고 평화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통일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우영(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근본적인 통일담론의 새로운 정립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재 진행중인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통일교육의 상황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가 북한을 비판하기 위한 남북한 체제비교나 분단의 현실파악이 아니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한현실의 이해가 절실히 요청되며, 통일의 준비라는 영역과 통일이후에 대비하여 사회통합문제의 영역을 통일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현재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통일이 현재 일상생활과 유리되어 있는 경향과 통일교육이 전 교과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들을 지적하면서, 통일문제를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현재 분단구조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좀 더 나은사회, 나은 삶, 행복한 삶이 되는 것으로 통일교육이 올바른 인간성을 함양하는 과정에 녹아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문제가 갖고 있는 일상적이면서도 중층적인 구조를 고려한다면, 새로운 통일교육은 교육개혁과 사회개혁과 동반되어 추진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끝을 맺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통일교육협의회는 1999년 2월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2000년 12월 발족했으며 통일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되어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오인환 기자(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9-25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미의 문제

구국전선 9월 21일

현시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문제는 인류의 진보와 번영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자면 그를 해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한미군철수문제는 초미의 문제로 되고 있다.

해방자로 자처하며 이 땅에 기어든 미제침략군은 강점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긴긴세월 철두철미 평화의 교란자, 파괴자로써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했다.

살인, 방화, 강간, 약탈 등 온갖 범죄행위는 미제침략군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다.

그에 의해 윤금이, 신차금, 전진아 여성들처럼 이 땅의 수많은 여성들과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빼앗겼고 이 땅의 산과 강, 농토들은 황폐화되었다.

주한미군은 우리 민족에게 분단의 비극과 온갖 고통을 강요할 뿐아니라 이북을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과 각종 전쟁연습을 일삼아 한반도정세를 인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

올해에만도 주한미군은 ≪을지 포커스 렌즈≫를 비롯해 크고 작은 전쟁연습을 벌였다.

주한미군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연이어 벌이고 있는 불장난소동으로 오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항시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으로 마련된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한반도정세를 분열과 대결, 긴장격화에로 몰고 가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한미군의 명분을 세우고 더 나아가 이북을 걸고 새로운 세계전쟁, 허황하기 그지없는 ≪별들의 전쟁꿈≫을 실현해 보자는 것이다.

지난 냉전시기 주한미군의 존재명분은 소련의 남하를 억제한다는 것, 이북의 남침을 막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냉전은 종식되었고 남과 북에는 불가침에 대한 합의서와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결국 주한미군의 존재명분은 사라지게 되었다.

현실은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잇닿아 있다.

제반 사실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주한미군철수는 우리 민족의 요구만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선량한 양심의 일치한 요구이다.

미국민들도 자기 자식들이 전쟁에 내몰리어 목숨을 잃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미국내에서 주한미군철수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반영이다.

부시행정부는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대북적대시정책을 중지해야 하며 주한미군을 즉시 무조건 철수시켜야 한다.



대형 공격용헬기도입 저지와 평화군축실현 국방부앞 8차 월례집회

저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미국산 무기 도입을 저지시키기 위한 싸움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국방부 앞에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월례집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5월에는 한 달 동안 1인시위도 벌였습니다. 또 7월 21일에는 시민단체들과 토론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무기들은 어려워도 대형 공격용 헬기만큼은 꼭 저지시키자는 게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번국방부 국감 기간에 저희들의 요구를 전하기 위해 국감 방청을 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아 9월 10일과11일에는 국방부 앞에서, 9월 17일에는 육본(계룡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9월 국방부 월례집회는 국방부 국감이 끝나는 9월 27일(목)로 변경하여 개최합니다.

대형 공격용 헬기는 대 당 가격이 2조 원이나 되고, 부대 비용이나 운영비까지 합치면 4조 원이나 됩니다. 이 돈이면 대우자동차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1,750 명을 평생 먹여살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헬기는 산악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 맞지도 않고, 별 효과도 없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도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무기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김대중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도 문제를 느껴 무기 도입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무기 선정 시기를 차일피일 늦추면서 반대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릴 뿐, 무기 도입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도입 필요성 여부를 투명하게 검증해보기 위한 공개토론회 제안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폐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응하지 않고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십 수조 원이나 되는 무기를, 북의 동포를 향해 쓰일 무기 도입을 막아내는 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일이기에,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평화통일에도 역행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해가며 미국 군수산업체들의 잇속만 챙겨주는 공격용헬기 도입을 저지시키려면 시민사회단체들, 청년 학생들이 더욱 큰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길만이 국방부의 오만한 독단과 전횡을 막고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저지와 평화군축을 위한 국방부 앞 제8차 월례집회 기획(안)

▷일시 : 2001년 9월 27일(목) 낮 12시
▷장소 : 국방부 민원실 앞
▷집회순서 :
 · 애국의례
 · 경과보고
 · 정치연설 1 :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이 결코 육 · 해 · 공군간의 나누어먹기식 흥정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임종철 공동대표)
 · 정치연설 2 : 한국 정부에 무기 강매하기 위한 서울 에어쇼의 개최를 결사 반대한다. (김승국정책위원장)
 · 항의문 낭독 :
 · 항의문 전달 :
 · 퍼포먼스 :
 · 정치연설 3 : 보복전쟁 획책하는 부시 정권 규탄한다. 김대중 정부는 보복전쟁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김성윤 목사)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왜 문제인가?≫ 토론회 기획(안)

* 10월 4일에는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주 제 :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왜 문제인가?
◆날 짜 : 10월 4일(목), 오후 2시~6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관 :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평통사
◆후 원 : MD 저지 공대위



배척받는 민족반역자 이회창

김대룡 / 구국전선 9월 21일

지금 이 땅 곳곳에서는 이회창을 배척하는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9월8일 광주, 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남총련≫소속 대학생 수백명이 전남대학교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가지고 이회창이 정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의 성공적 이행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길 일념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는 때 이회창은 이에 역행하여 공동선언이행을 반대하고 냉전논리로 남북관계를 분열과 대결의 원점으로 몰아가고 있는 반통일분자로 낙인했다.

또한 그들은 이회창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미사일방어≫체제수립에 적극 찬성하는 친미사대분자라며 친일가계의 후손이자 매국노인 이회창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9월3일에도 서울 대학생들이 ≪이회창을 수괴로 하는 반역집단 한나라당을 해체하라≫고 외치며 한나라당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것은 이들 학생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각계층 민중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왜냐면 이회창이야말로 사대와 매국, 민족반역으로 빚어진 인간쓰레기이기 때문이다.

친일역적의 핏줄을 이어받은 이회창의 추악한 행적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평양상봉과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전후로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6월 평양상봉과 남북최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여기에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려세우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획기적 사변이었다.

우리 민중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이를 적극 지지환영한 것도 바로 그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을 비롯한 얼마 안되는 반통일세력은 악의에 차서 비방하고 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해 나섰다.

이회창은 입을 벌릴 때마다 6.15공동선언과는 위배되는 ≪제도통일론≫이나 주한미군철수불가, ≪보안법≫개폐정불가만을 고창했다.

또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니, 검증이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다 못해 북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로 매도하고 나섰다.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정치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어떤 견해나 방략은 아무 것도 없고 선행반역자들의 냉전논리로 분열과 대결을 지속시켜 그 속에서 저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흉심만이 차있다.

그는 이러한 반민족, 반통일적인 작태로 하여 사회각계는 물론 한나라당내에서까지 배척받고 있다.

김원웅, 심규철, 안영근 등 한나라당 위원이 ≪냉전적 사고에 찌든 당론에는 승복할 수 없다≫며 이회창에 의해 한나라당이 미국에 사대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되고 있다고 반기를 든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심지어 박근혜부총재도 이회창이 ≪정치적 비전의 결핍과 무지무능으로 당을 망치고 있다≫고 질타하며 총재퇴진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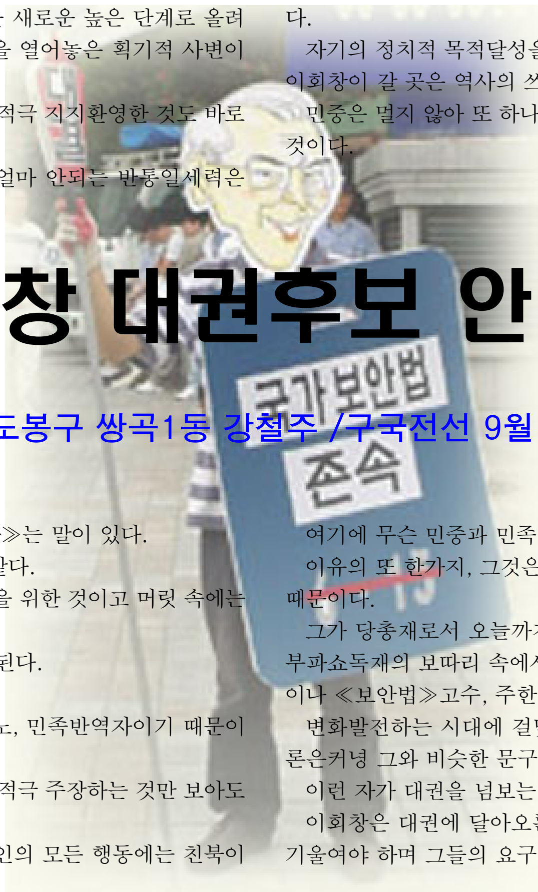
자주, 민주, 통일은 최대의 민족적 과제이다.

오늘 반이회창기운이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그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민주적 행태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귀결이다.

역사는 이미 민족반역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었다.

자기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사대와 매국, 배족을 일삼고 있는 이회창이 갈 곳은 역사의 쓰레기장뿐이다.

민중은 멀지 않아 또 하나의 민족반역자의 비참한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이회창 대권후보 안된다

서울 도봉구 쌍곡1동 강철주 /구국전선 9월 21일

≪여우는 잠을 자도 닭 잡는 꿈만 꾼다≫는 말이 있다.

어쩌면 꼭 이회창을 찍 어 생겨난 말 같다.

지금 이회창의 말과 행 동은 오직 대권을 위한 것이고 머릿 속에는 온통 청와대의 주인될 생각뿐이다.

그러나 이회창의 대권후 보는 말도 안된다.

민중은 이미 그를 돌려 놓았다.

그 이유는 이회창이 극악한 사대매국노, 민족반역자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영구주둔과 외세와의 공조를 적극 주장하는 것만 보아도 잘알 수 있다.

또 통일을 위한 정부나 정당, 단체, 개인의 모든 행동에는 친북이나 용공, 이적의 빨간딱지를 붙인다.

여기에 무슨 민중과 민족, 통일을 위한 의지가 있는가.

이유의 또 한가지, 그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가 당총재로서 오늘까지 써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케케묵은 군부파쇼독재의 보따리 속에서 끄집어낸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나 ≪보안법≫고수, 주한미군영구주둔따위의 말밖에 없다.

변화발전하는 시대에 걸맞는 민중과 민족을 위한 참신한 정치이론은커녕 그와 비슷한 문구나 단어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자가 대권을 넘보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이회창은 대권에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들의 요구대로 지체없이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학가, 노래 ≪이회창가≫ 빠르게 확산

한나라당과 이총재에 대한 신랄한 비판 담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소재로 한 노래가 대학가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회창가≫라고 이름 붙여진 이 노래는 ≪이회창이 가는 곳 시궁창이요… 물러가라 이회창 아메리카로, 국보법을 데리고 아메리카로…≫ 등 이회창 총재에 대한 ≪직격탄≫으로 가사 전체가 꾸며져 있다.

이 노래를 최근에 들었다는 한국외대 장서윤(불어과 4년)양은 ≪노래가 쉬운 음률로 이루어져 외우기가 쉽고 재미있어 술자리 등에서 종종 부르고 있다≫고 대학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제까지 대학가에 군사정권하의 지도자들에 대한 은유적 비판을 담은 노래는 있었지만 야당지도자의 이름을 제목으로 이처럼 신랄한 비판을 담은 노래가 나온 것은 매우 의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대학가의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은 ≪금시초문이라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다≫며 일단 그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이회창 총재 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이므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떳떳한 경로를 통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겁하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또한 대학가에서 회자되는 이총재님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듯 하여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이회창가≫는 대학 노래패에서 만들어졌다는 풍문만 있을 뿐 법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 때문에 창작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이다.

이승호 기자 681225@dreamwiz.com



전국대학생 조선일보반대모임 공식 출범

다큐멘터리 상영 · 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



제1회 안티조선문화제가 지난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3일간 전국대학생조선일보반대모임(이하 조반모)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전대기련)주최, 연세대 · 고려대 총학생회, 전국신방과연석회의 주관으로 2백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세대학교에서 열렸다.

안티조선문화제는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정권에 아부하며 민주화를 기로막고 통일의 흐름까지 방해하는 ≪반통일, 반민주 신문≫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조선일보에 대한 반대운동(안티조선일보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안티조선문화제는 다큐멘터리 상영전과 방우영 재단 이사장 퇴진 서명운동, 안티조선일보운동에 관한 릴레이 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준비되었다.

특히 20일(목)에 열린 오한흥(옥천신문 편집장)씨의 ≪안티조선과 옥천전투≫라는 제목의 강연회에서는 최근 옥천지역에서 있었던 안티조선운동과 이로 인한 옥천의 변화가 이야기되었으며 더불어 옥천전투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병행 상영되어 그동안의 안티조선운동의 과정과 성과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21일(금) 저녁 7시 연대공대 옆마당에서는 문화공연 및 조반모 출범식을 같이한 본행사가 있었다. 본행사는 1부 ≪상반기 안티조선운동 결산 및 전국 조반모 출범식≫과 2부 문화공연으로 나뉘어 열렸다.

1부는 ≪이번 문화제가 안티조선운동 활성화에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는 장정규 연세대 총학생회장의 축하발언과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후 오승훈 (조선일보반대 연대인모임)씨가 ≪조선일보 문제는 이제 사회적 개혁과제가 되었다≫고 말하며 7월 18일 조선일보 반대 대학생선언 등 상반기 안티조선일보운동 동안 이룬 성과를 발표했으며 이어서 노래패 천지인의 한가지 생각만 하는 조선일보를 뜻하는 제목의 ≪외눈박이 물고기≫라는 노래도 선보여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어 곧바로 성유보 민언련 이사장과 임병일 조반모시민연대 집행위원의 격려발언이 있었다. 발언에서 성유보 씨는 ≪지금 우리는 제2의 민주화운동을 추진중≫이라며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언론이 떠오르게 된 지금 2차 민주화운동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서 공동주최자였던 전대기련의 고윤정 의장은 연대발언에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조선일보를 규탄하며 수많은 민중들의 입과 귀를 막았던 조선일보를 향해 힘껏 투쟁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고윤정 의장의 발언 후 곧바로 올해 처음으로 정식 출범된 전국 조선일보 대학생 반대모임 의장 강영준씨의 전국 조반모 대표발언 및 출범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올 가을에는 지난 여름 신문개혁을 외치며 힘들게 투쟁한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한 강영준 씨의 발언을 끝으로 1부 행사의 막이 내렸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음악평론가 성우진 씨의 사회로 진행, 다리미, 퍼플헤이즈, 히키클럽 등 인디밴드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안티조선문화제의 개최로 대학생,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안티조선일보운동의 대중성이 증명되었으며 이에 좀 더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시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홍익대 박미선 기자 puhaaee@hanmail.net
2001-09-22 11:34:00



백양로에 수놓아진 노란깃발 ≪안티조선≫

다채로운 볼거리로 시민 · 학생들 눈길끌어



오늘은 19일(수) 안티조선 문화제 첫째 날, 연세대를 가로지르는 백양로 길가는 조선일보 반대 마크가 새겨진 깃발로 노랗게 수놓아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고 있었다.

먼저 백양로에서 펼쳐진 안티조선 거리 전시전. 조선일보의 친일, 친독재 역사, 그리고 지난 6월 민주노총 총력투쟁때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를 상대로 한 왜곡 보도 실상을 고발하는 전시물들이 길가에 주욱 늘어섰다. 한편에는 조선일보의 실상을 알리는 ≪조선일보를 아십니까?≫, ≪우리는 왜 조선일보를 거부하는가?≫ 등의 책과 북한 시인 55인의 시를 수록한 ≪분렬의 장벽은 무너지리라.≫를 정가보다 2 ~ 3천원 싸게 할인해 판매하는 가판대도 등장했다.

연세대 학생들과 멀리서부터 찾아온 시민들이 거리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적을 구입하기도 하고, 이번에 준비한 안티조선 문화제 자료집이나 연세대 조반모 소식지 ≪조선바보≫를 손에 손에 한권씩 받아갔다.

또한 학생회관 앞에서는 조선일보 회장이자 연세대학교 이사장이기도 한 방우영씨의 퇴진 서명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져 하룻만에 2백여명의 연세인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조선반대 연세인 모임 대표인 오승훈씨는 ≪연세대 출신 저항시인 윤동주가 후쿠오카의 감옥에서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비참하게 죽어 갈때, 온갖 친일 행적을 통해 부귀 영화를 누렸으면서도 항일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조선일보의 회장 방우영이 이사장으로 있다는 사실은 연세대 학우들 입장에서 수치이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서명운동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오후 6시에는 조선일보의 역사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기자라기 보다는 ≪조선일보 전문가≫가 더 잘어울리는 ≪말≫지 정지환 기자의 강연회가 있었다.

강연회장에 온 청중 중에 응용통계학과 강사라고 밝힌 한 시민은 안티조선 운동에 대한 책을 구입하면서 판매가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조차 사양하는 등 안티조선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격려과 지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서유상 기자 swpress1@hanmail.net
2001-09-20 18:02:00



지식인 720명,조선일보 거부 4차 선언 발표

20일 오전 참여연대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는 조선일보 거부 4차지식인 선언발표및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종렬(시민연대상임대표), 염찬희(영화평론가),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장), 임기란(민가협공동대표), 임종일(시민연대집행위원장), 양윤모 (영화평론가), 황철민(영화감독,세종대교수)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조선일보 4차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였다.

참가자들은 그간 조선일보 시민연대가 활동을 시작한지 1주년이 되면서 1년 동안 조선일보가 친일, 친독재를 통해 구축한 소위 무소불위의 신문권력이라는 마의 성벽을 무너뜨릴 작은 구멍을 뚫었다고 선언하고 앞으로도 5차 6차 계속해서 국민들과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과 오만과 위선에 끈질기게 싸워 나갈것이라고밝혔다.

또한 이유경간사는 4차 명단이 학계 곽노현교수등 43명, 교사 김영석등 49명, 의사.약사 고병년 등 124명, 영화인 조준형 등 68명 변호사 20여명 등 총 739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최근 미국테러와 관련한 조선일보의 반북저널리즘에 관해 김은주 안티조선연대 모니터 팀장의 긴급비평이 있었다.

다음은 선언자 739명의 명단이다.

≪조선일보 거부 4차 지식인 명단≫ 총 739명

1. 학계 / 92명
   교수 / 43명, 교사 / 49명
2. 의사 · 약사 / 124명
3. 영화인 / 68명
4. 변호사 / 20명
5. 문학 · 문화 · 예술 / 35명
6. 종교계 / 8명
7. 언론계 / 5명
8. 시민 · 사회 · 노동계 / 383명 (단체별로 정리했음)
   민예총 / 43명, 작가회의 / 16명,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 36명, 전국연합 / 25명, 대전 / 175명,
   울산 / 9명, 민주노총 / 19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10명, 한국성폭력상담소 / 11명, 매비우스 / 8명,
   민가협 / 8명, 인권운동사랑방 / 6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4명, 기타 / 14명
9. 기타 / 4명

최지민 기자
2001-09-20

조선일보폐간시키기 효가대학생모임



반민주, 반통일 언론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기고 언론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모임이 구국효성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통일과 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조선일보가 폐간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기로 굳은 결의를 다진 구국효성의 일꾼들은 ≪역사벌떡세우기≫(역벌세모), 사학과, 법학과, 교지편집위원회, 독도를 지키기위한 모임≪홀로섬≫, 사회매체학부학생회 등입니다.

오늘 모인 일꾼들을 중심으로 각 학생회나 함께 하고픈 일반학우들을 더욱 많이 만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가을 대동제에서 회원들을 받을 예정이며 둘쨋날인 목요일부터 자보거리 선전전과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학생선언 운동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연세대에서 열리는 1차 안티조선 문화제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달후 거족적인 발족식을 열고 내년, 내후년, 조선일보가 폐간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투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개설, 매주 화요일 모임등을 통해 이 결의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구국효성
2001.9.19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 투쟁

(평양 9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애국적청년학생단체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고 있다.

그들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도 ≪한총련≫과 같은 청년단체들에 ≪리적≫의 딱지를 부이고 그 성원들을 ≪보안법≫에 걸어 폭압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에 역행하고 민족대단결을 가로 막는 보안법을 철폐하라.≫ ≪100만 대학생들의 자주적대중조직인 한총련, 남총련에 대한 리적규정을 철회하고 합법화하라.≫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전농 광주전남련맹, 서울민주로동자회구속자가족대책위원회, 하남민주단체련석회의 등 단체들이 이런 구호들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하는것은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한총련 의장 최승환은 한 기자회견에서 통일운동에 나서려는 학생들을 수사하고 감옥에 가두는 등 한총련을 리적단체로 규정하고 탄압하는것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현 시기에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언명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공동대표 윤한탁은 한총련에 대한 리적규정 철회투쟁은 보안법 페지투쟁이고 보안법 페지투쟁은 반미투쟁이라고 하면서 전대협에서 한총련으로 이어 지는 학생운동에서 가장 빛나는 활동이 바로 조국통일운동이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리적규정철회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청년련합회 공동대표 박홍근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한총련대의원은 누구보다도 애국적지향이 강하고 학생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청년들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에게 분렬의 산물이며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에 의한 피해가 더 이상 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대구지역 시민, 사회단체들도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안법페지와 한총련에 대한 리적규정 철회를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후에도 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계속 늘어 나고 통일운동에서 핵심적역할을 하는 한총련대의원들은 폭압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누구나 다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 한총련에 대해서만 보안법과 리적규정을 적용하여 관계자들을 련행, 구속하는것은 억지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목소리들이 힘 있게 울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집회와 시위투쟁도 벌어 지고 있다.

지난 10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대학교 총학생회는 경찰이 대학내에서 총학생회장을 련행하며 폭행을 가한데 항의하여 집회를 가지였다.이에 앞서 5일 경기지역 인권단체들은 당국이 한총련산하 경인총련의장을 대학기간의 활동을 문제삼아 또다시 구속한데 분노를 터치였다. 이날 대학생들은 수원지방검찰청사앞에서 쇠사슬로 서로 몸을 묶고 그의 석방을 요구하여 시위를 벌렸다.

또한 한총련학부모협의회는 청와대앞길 호텔주변에서 리적규정을 철회할것과 학생탄압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여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령남대학교 정 아무개학생은 대구지방법원청사의 옥상에 올라가 ≪6.15공동선언리행의 장애물인 보안법 철페≫, ≪한총련 리적규정 철회≫라고 씌여 진 선전물을 뿌리며 시위를 벌렸다.

국보법철폐투쟁의 기수가 되자

동국대 최모학생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9월 17~18일

지금 남과 북, 해외 온 겨레가 통일이라는 대망의 세기를 향해 마음과 걸음을 맞추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급격히 상승하는 통일기운은 바야흐로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고 마침내는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환희의 그날을 안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벅차고도 꿈같은 현실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한 부분에는 민족자주통일에 칼질을 하는 외세와 그에 빌붙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대매국, 반통일보수우익세력들의 집요하고도 악랄한 책동이 남아있다. 그 책동의 **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하나된 민족의 내일이라는 과업보다도 저들의 기득권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날뛰는 반통일보수우익집단은 보안법이라는 이미 목숨을 다한 역사의 퇴물을 끌어안고 오히려 반민족적, 반민중적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8.15민족통일대축전 방북인사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에서 *****볼수 있듯이 반통일세력은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해 민족자주통일운동의 앞장에 선 이땅의 통일애국세력을 국보법에 걸어 가차없이 제거함으로써 조국통일로 향한 민의와 대세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이것은 온 겨레의 참을수 없는 분노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늘 희세의 악법,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더이상 살려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국민의 일치한 바램이다. 이 악법을 그대로 둔다면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발표전이전의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며 ********되돌릴수 있다. 이것은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오늘 국보법철폐투쟁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가장 선차적인 과제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투쟁에서 ****국보법철폐투쟁에서도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투쟁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통일운동단체들의 굳은 연대와 연합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보법투쟁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데 비해 성과가 크게 없는 것은 투쟁단체들의 부분적이며 산발적인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할수 있다. 모든 통일운동단체들이 굳게 연대해서 국보법철폐의 한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발걸음을 맞춰나가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 있다. 때문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의 연대연합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광범위한 국보법철폐투쟁전선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국보법철폐투쟁을 6.15공동선언관철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나가는 것이다. ***일부단체들의 국보법철폐투쟁은 단체의 이익이나 부분적인 인권침해와 같은데만 남발하는 형식을 피해야 한다. 온 겨레와 온 국민이 한결같이 지지 공감하는 6.15공동선언실천이라는 대의를 떠나 ***부분적인 현실만 직시한다면 국보법을 고립파멸시킬수 없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실천과 국보법철폐의 구호를 하나로 밀착시키고 이 투쟁을 보다 과감히 전개해 나가자. 특히 여기서 이회창을 수괴로 하는 극악한 반통일보수우익세력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게 벌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공안당국의 이번 8.15민족통일대축전 방북인사들에 대한 탄압문제를 가지고 강한 여론전을 벌임으로써 투쟁분위기를 더 한층 고조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국보법철폐투쟁을 전민중적인 운동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국보법의 피해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별로 없으며 지어 국회의원들이나 정부급 인물들속에도 국보법에 의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이들의 양심에 불을 지피고 누구나가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 낯을 돌리고 투쟁의 마당에 뛰어들게 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 이땅의 민중 누구나 다 떨쳐나서게 해야 한다. 단결된 하나의 힘, 거족적인 투쟁앞에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숨통을 끊기게 될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 투쟁의 앞장에서 실천으로 대중을 선도함으로써 투쟁의 기수, 통일의 선봉장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야 한다.



여론조작과 강정구 교수 구속에 관한 공청회

≪남과북, 서로 고무, 찬양 더해야 한다≫

한국인 특유의 냄비근성.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던 일본 역사교과서도 그랬고, 이번 8 · 15 평양대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만경대 정신≫으로 유명한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과)는 한동안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대상이었지만 구속된 이후 모든 이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졌다. 또 한번 금방 끓었다 금방 식어버리는 우리나라 특유의 냄비근성이 어김없이 작용한 것이다.

이는 민동권(동국대 사회학과3)군이 발제자로 나온 정운현 기자를 상대로 던진 질문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다. ≪교수님 석방을 위해 기자회견, 대안수업, 1인시위, 천막농성, 릴레이 3천배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신문엔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고 있다≫며 ≪공청회는 보도해주시겠습니까?≫라고 분노를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운현 기자는 ≪이것이 바로 언론의 천박함, 가벼움이다≫라며 ≪짤릴 것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책임지고 보도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비장한 각오(?) 속에서 지난 20일(금) ≪민족대결적인 여론 조작과 강정구 교수 구속에 관한 공청회≫가 약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그 첫타로 정운현 기자(대한매일 문화팀 차장)는 ≪강교수가 돌출행동을 한 게 아니라 언론이 돌출행동을 한 것≫이라며 ≪언론이 정상적인 수준의 보도를 하지 않고 선정성에 기인한 보도를 한 것은 현 언론의 ≪안보 상업주의≫를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현연 교수(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는 ≪≪해프닝성 작은 파문≫이었던 이번 사태는 궁지에 몰린 보수언론의 위기탈출과 그리고 현 정부의 정략적 정쟁화에 의한 ≪희생양의 정치≫≫였다고 단언했다. ≪강교수의 자유로운 학문활동까지 사법처리 당하는 현실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유린당한 것과 국가보안법의 소생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이중 잣대에 희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김일성**의 보천보전투 기사를 금박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헌정한 동아일보나 ≪존경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운운한 정주영, 나아가 ≪적의 괴수≫와 선물을 주고받은 현 대통령까지 강교수의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방명록과 비교했을 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법의 형평성의 원리가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전면 부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균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원천적 반통일성과 반민주성을 지적하며 ≪강교수의 학문적 연구들은 국가보안법이 아닌 학문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라며 ≪만경대 정신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잣대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정신≫ 방명록 파문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국보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현 우리사회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북에 대한 콤플렉스적인 편견과 수구보수세력의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야만≫적인 준동이 가시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은 서로를 더 많이 고무, 찬양해야≫ 하며 일상적으로 회합, 통신, 잠입, 탈출해야 한다≫는 민경우 범민련 남측 본부 사무처장의 지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강 교수석방을 위한 릴레이 3000배

20일 오후 4시의 공청회에 앞서 동국대에서 결성된 ≪강정구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동국대학교 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학교 본관 앞 불상 앞에서 ≪강 교수 석방을 위한 릴레이 3000배≫를 꼬박 6시간 동안 가졌다.

이 릴레이 3000배 시작에 앞서 명진스님(2001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추진본부 대표)은 ≪조속한 강정구 교수 석방을 진정한 마음으로 바라는 뜻에서 이 행사를 갖는다≫며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했다.

김기호 2001-09-23
(기사제공 UNews)



민가협 등
국가보안법철폐, 김건수석방 촉구



민가협,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21일 오전 11시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 김건수 석방, 정점식 검사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9일 있었던 ≪신랑없는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히며 ≪현재까지 500쌍의 주례를 서 봤지만 김건수씨와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다.≫며 ≪무리한 구속수사로 결혼식마저 가로막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8월 30일 연행되어 구속된 김건수씨(30, 경희대 졸업생,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9월 2일 구속)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조속한 석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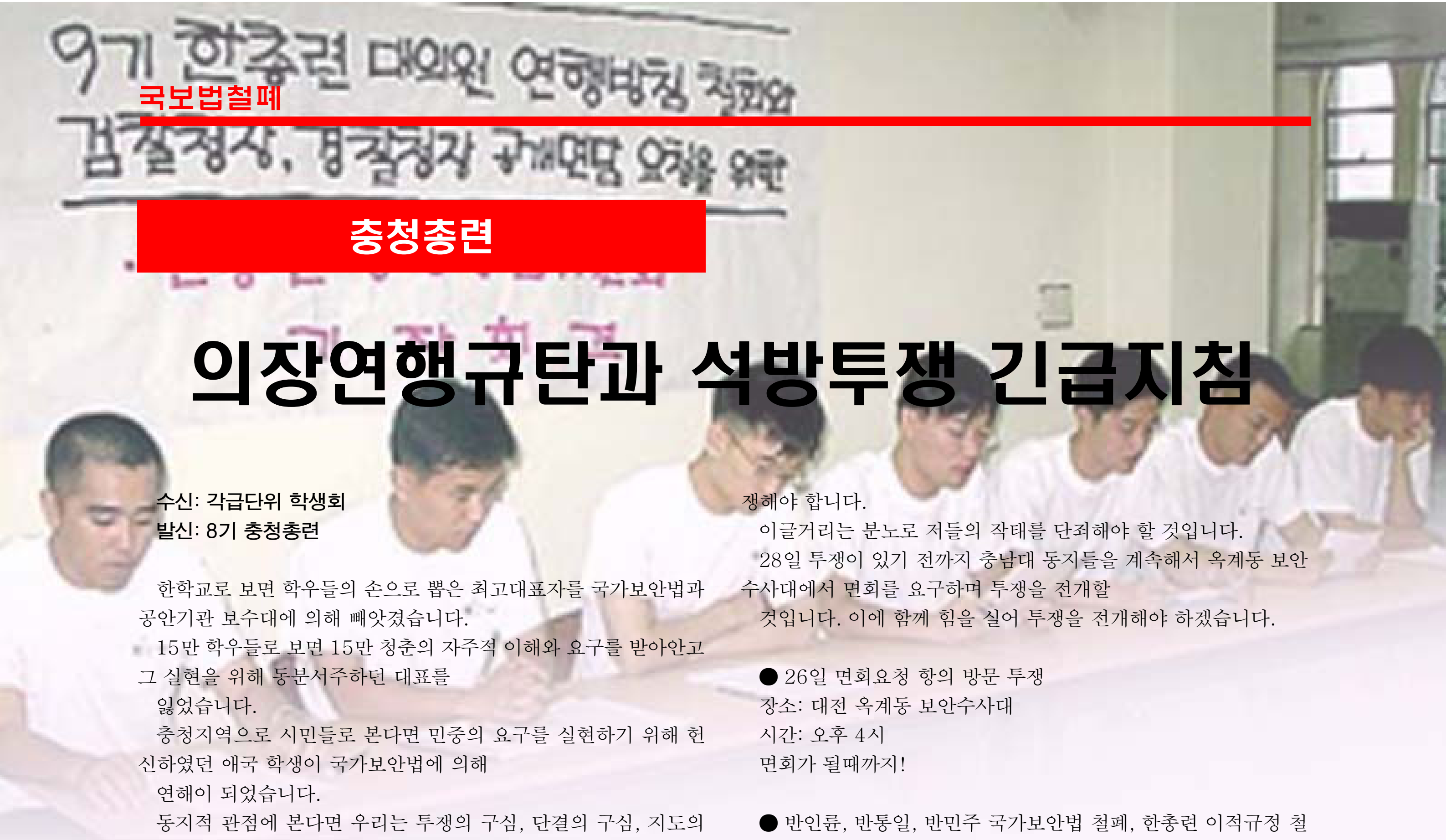
또한 ≪평생에 한번뿐인 결혼은 모두가 축하해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며 ≪결혼식날 특별면회조차 못하게 가로막은 정점식 검사의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으며, ≪세계 냉전의 진원지였던 한반도는 냉전을 해소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수구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며,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연합, 경기동부연합, 경기남부연합, 민가협,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홍은주씨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한편, 98,99년 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간부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된 김건수씨의 첫 공판은 10월 8일 오후2시 수원지법에서 열리며, ≪김건수 대책위≫와 가족인 홍은주양은 23일 김씨의 모교인 경희대학교 공대 통일광장에서 ≪김건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김경환기자
2001-09-21



충청총련

의장연행규탄과 석방투쟁 긴급지침

수신: 각급단위 학생회
발신: 8기 충청총련

한학교로 보면 학우들의 손으로 뽑은 최고대표자를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 보수대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15만 학우들로 보면 15만 청춘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고 그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대표를

잃었습니다.

충청지역으로 시민들로 본다면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였던 애국 학생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연해이 되었습니다.

동지적 관점에 본다면 우리는 투쟁의 구심, 단결의 구심, 지도의 구심을 적들의 손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6. 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아무리 정세가 열려있고 자주, 민주,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애국하는 청년학생들에게는 이땅은 커다란 감옥이라는 것이 다시금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응징합시다. 대중적으로 투쟁합시다. 연대연합하여 더욱 더 강력한 힘으로 투쟁합시다.

그리하여 더럽게 이 사회에서 또아리 틀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정권의 개! 공안기관을 해체시키고

우리의 대표자를 우리 손으로 구출하는 투쟁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투쟁합시다.

저들에게 된 서릿발처럼 직간접적인 날카로운 타격을 가해 줍시다.

온 국민이 민족이 명절 추석을 두고 가족의 정을 느끼며 보낼 시간 차가운 감옥에서 분노로 치를 떨며,

눈물을 흘리며 모대겨 할 충청총련 의장, 민족충남대 총학생회장, 애국청년학생, 이땅의 아들을 생각하며

28일 투쟁을 힘차게 준비합시다.

● 25일 대전 옥계동 보안수사대 놈들은 면회조차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25일 충청의장님 연행규탄과 석방을 촉구하며 충청총련 동지들은 힘있게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옥계동 보수대 건물 수십미터 앞에서부터 동지들의 정당한 요구를 내건 시위를 막았으며,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되는 면회조차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는 면회가 성사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에 대한 결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충청총련 동지들!

뻔뻔스럽게도 우리의 대표자를 강제연행하고도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 저들에게 된 타격을 가해야 합니다.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하나하나 관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저들을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힘을 모아 반드시 면회성사투쟁을 본때 있게 벌여냅시다.

대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동지들의 결의입니다. 이악지게 투쟁해야 합니다.

이글거리는 분노로 저들의 작태를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28일 투쟁이 있기 전까지 충남대 동지들을 계속해서 옥계동 보안수사대에서 면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에 함께 힘을 실어 투쟁을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 26일 면회요청 항의 방문 투쟁
장소: 대전 옥계동 보안수사대
시간: 오후 4시
면회가 될때까지!

● 반인륜, 반통일, 반민주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충청총련 의장 박찬영 연행규탄과 완전

석방을 위한 충청지역 공동연대투쟁
일시: 9월 28일 오후 4시
장소: 대전역
투쟁형태-공동연대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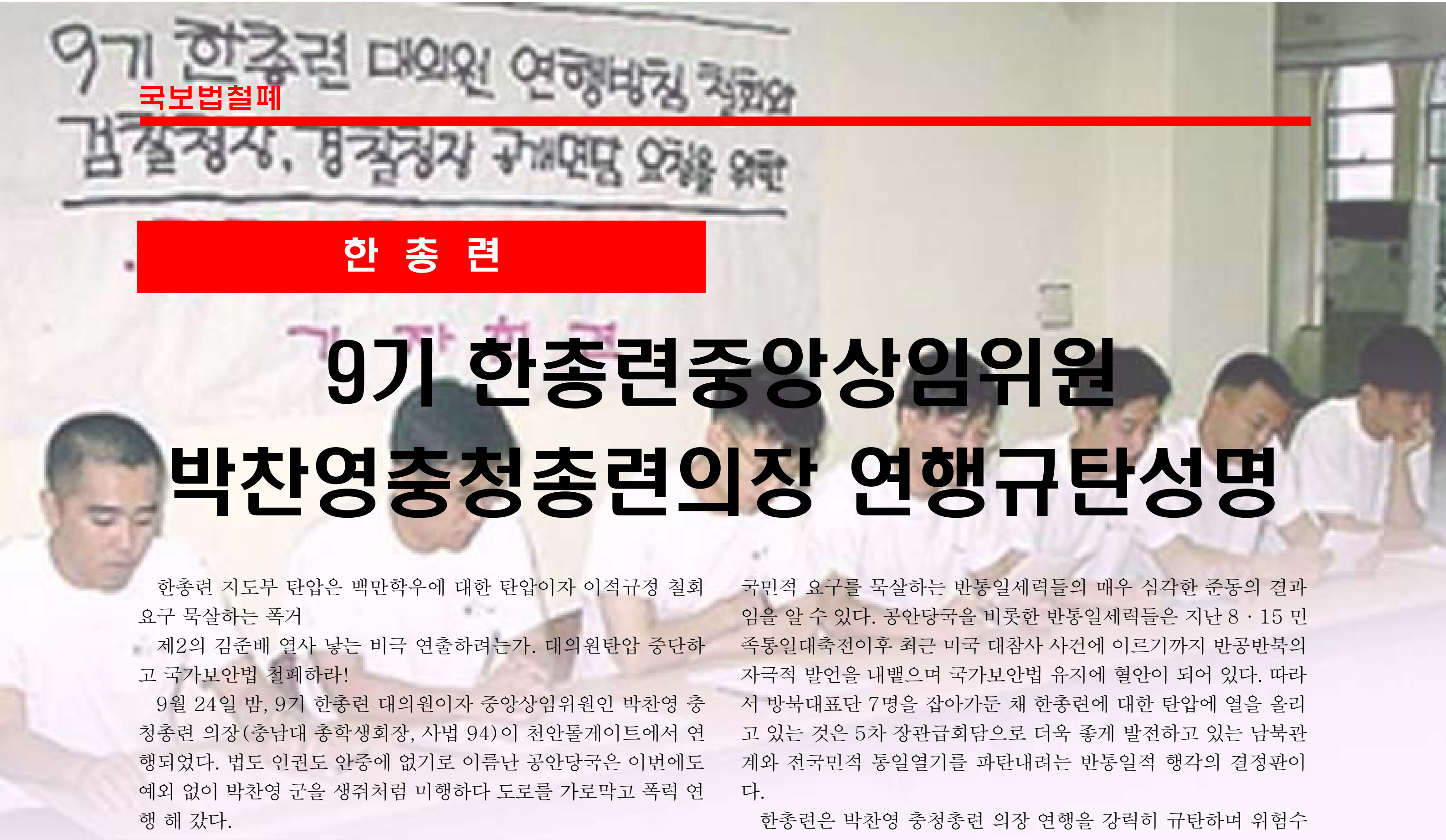
일정
민중의례- 사회자
결의담은 문예공연
연행과정 총화발언- 사회자
연대규탄발언 - (범민련, 통일연대, 연합,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충남도연맹, 민주노총에 제안합니다.)
결의담은 문예공연
규탄 정치연설 - (21세기, 연석회의 학협, 충청총련에 제안을 할 것입니다.)
1. 청년학생들 힘을 모아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2.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고, 박찬영 학우를 석방하라!
3.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화형식!
사회자 힘있는 정리
대전역에서 서대전 시민공원까지 행진

● 민족충남대 경상대 학생회장 박병철 학우 석방 환영대회

기본은 대전역에서 투쟁하고 바로 환영대회하는 장소로 가는 것으로 하려 합니다.

일시: 9월 28일 저녁 7시 00분
장소: 대전교도소 앞

진행
일꾼 결의대회
오늘 규탄투쟁 총화, 이후 결의
박병철 경상대 학생회장 환영대회
횃불환영
환영사 - 연대단체 어르신들, 학생대표
답사 - 경상대 학생회장
사회자 정리



한 총 련

9기 한총련중앙상임위원 박찬영충청총련의장 연행규탄성명

한총련 지도부 탄압은 백만학우에 대한 탄압이자 이적규정 철회 요구 묵살하는 폭거

제2의 김준배 열사 낳는 비극 연출하려는가. 대의원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9월 24일 밤, 9기 한총련 대의원이자 중앙상임위원인 박찬영 충청총련 의장(충남대 총학생회장, 사법 94)이 천안톨게이트에서 연행되었다. 법도 인권도 안중에 없기로 이름난 공안당국은 이번에도 예외 없이 박찬영 군을 생쥐처럼 미행하다 도로를 가로막고 폭력 연행 해 갔다.

박찬영 충청총련 의장은 백만학우들을 대표해 한총련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이다. 따라서 경찰의 이번 만행은 백만학우에 대한 탄압일 뿐 아니라 최근 전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이적단체 규정 철회 요구를 묵살하는 폭거이다.

최근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또다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불과 4일전에는 서총련 산하 동총련 의장인 이종필 군(한양대 총학생회장)이 미행 끝에 연행되었고 9월 15일에는 경희대 법대 학생회장 김택연 군이, 9일 에는 서원대 학생회장이 학내에서 버젓이 연행되었다. 또한 96년 경인총련 의장인 김건수 군은 결혼식을 불과 10일 앞두고 연행되어 전국민의 분노를 샀다.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된 경찰은 서울대 농대 학생회장을 연행하려다 쌍둥이 동생을 오인, 가족의 결혼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조선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연행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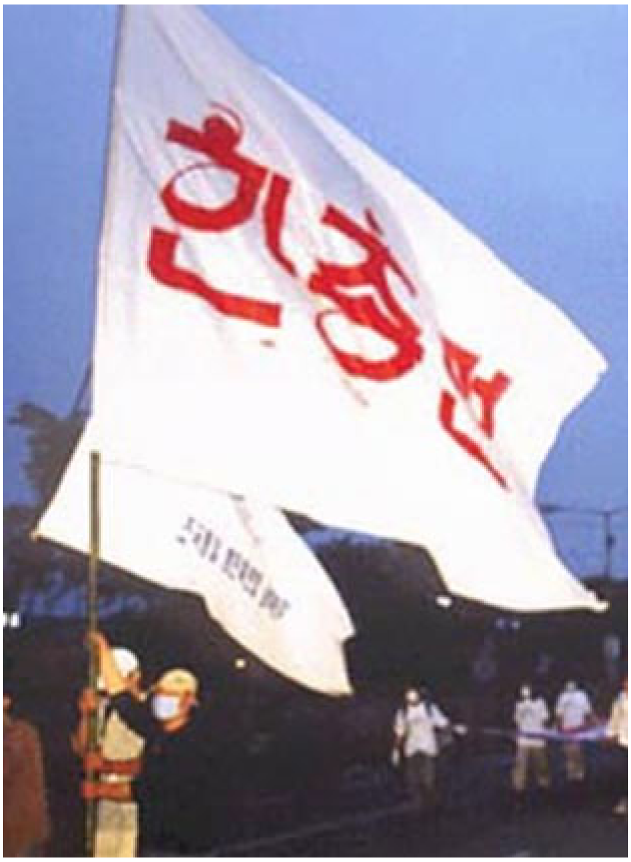
우리는 당국의 탄압이 그 어떤 명분도 법적 근거도 없는 궁색하고도 야비한 조치임을 알고 있다.

사실 당국은 상반기 내내 9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안절부절하다가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의 일부 활동이 침소봉대되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이 틈을 타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첫 구속 기소된 이경민 서부총련 의장(경기대 총학생회장)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강령은 바뀌었으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한총련 대의원 탄압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며 더군다나 연행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사찰과 폭력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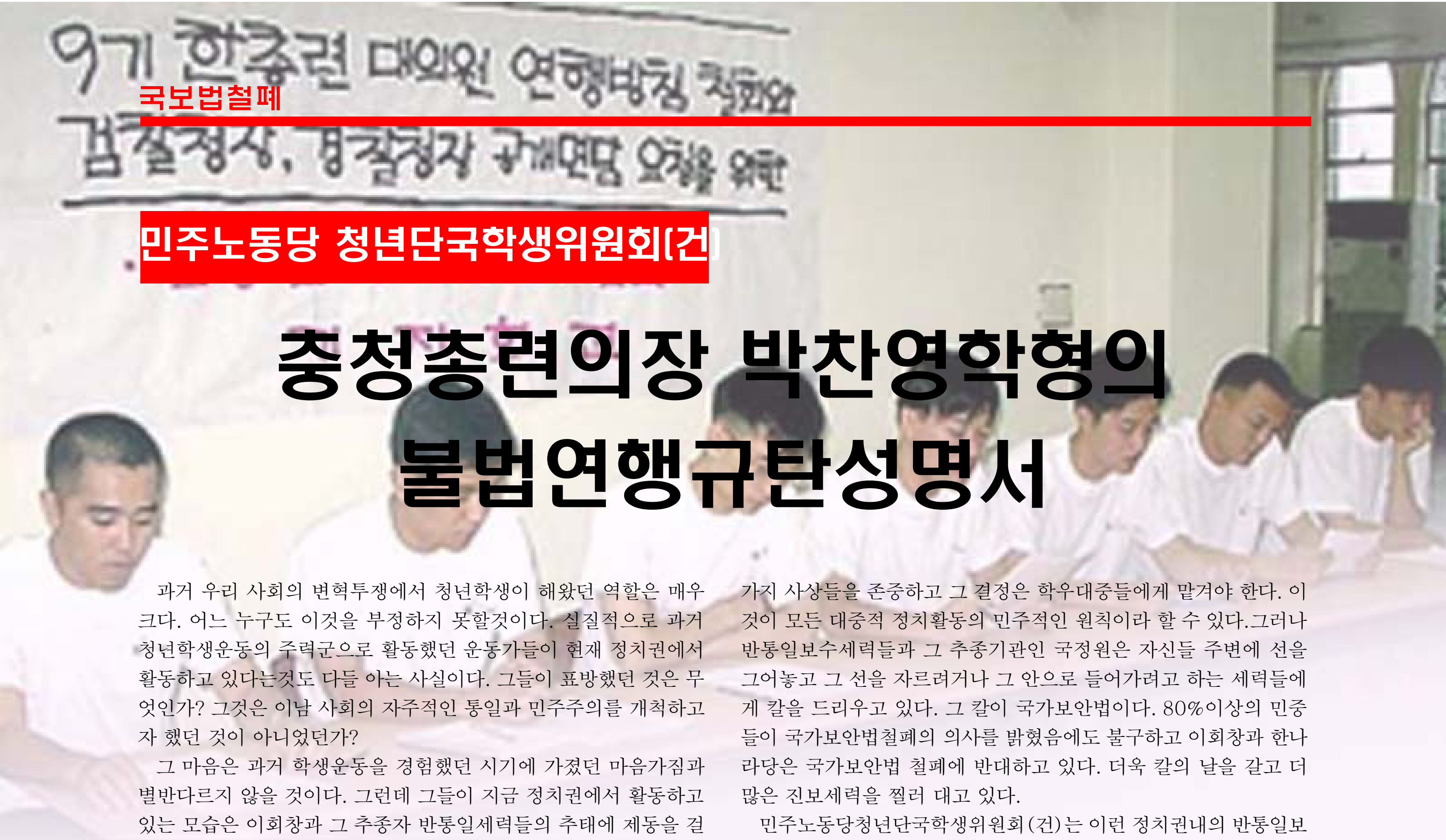
공안당국에게 묻는다. 고 김준배 열사를 아는가. 바로 당신들이 4년 전 이맘때, 수배중인 한총련 간부를 프락치를 이용해 은신처를 알아내고 끝내 폭력 살인한 사실을.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경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진실이 밝혀지고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가고 있는 이때, 4년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한총련을 탄압하는 극악무도한 만행에 치가 떨린다.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 볼때 이번 연행은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전국민적 요구를 묵살하는 반통일세력들의 매우 심각한 준동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공안당국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은 지난 8·15 민족통일대축전이후 최근 미국 대참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반공반북의 자극적 발언을 내뱉으며 국가보안법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다. 따라서 방북대표단 7명을 잡아가둔 채 한총련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5차 장관급회담으로 더욱 좋게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전국민적 통일열기를 파탄내려는 반통일적 행각의 결정판이다.

한총련은 박찬영 충청총련 의장 연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위험수위에 다다른 반통일세력들의 준동에 투쟁으로 맞설것을 천명한다. 특히 9기 한총련 중앙상임위 지도부를 연행해 간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당국은 명분없는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고 연행해간 한총련 대의원들을 당장 석방하라.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9월 25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최승환)



민주노동당 청년단국학생위원회(건)

충청총련의장 박찬영학형의 불법연행규탄성명서

과거 우리 사회의 변혁투쟁에서 청년학생이 해왔던 역할은 매우 크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정하지 못할것이다. 실질적으로 과거 청년학생운동의 주력군으로 활동했던 운동가들이 현재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것도 다들 아는 사실이다. 그들이 표방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남 사회의 자주적인 통일과 민주주의를 개척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 마음은 과거 학생운동을 경험했던 시기에 가졌던 마음가짐과 별반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이회창과 그 추종자 반통일세력들의 추태에 제동을 걸지는 못하고,오히려 그들과 함께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진보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실상 자신들의 신념을 확고히 세우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무엇때문인가? 아직도 이남 사회의 정치 지도부에는 반통일보수세력들이 주동을 쥐고 있다는 것을반증하는 것이다.

그 중 이회창은 친일파의 집안내력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보수세력의 대표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이남 사회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테러사태가 난 뒤 누가 더 지지를 많이 하는지 경쟁을 하듯이 여당과 야당 그리고 보수언론까지 미국의 보복전쟁 부추기에 앞장서고 있다.

반통일보수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손상을 입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치지도부는 민중들의 정서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을 쏟고 모든 정당활동은 그것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조금의 흠집을 내거나 제동을 거는 세력이 있으면 온갖 반공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제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것은 8.15통일민족공동행사의 경험에서 증명되었다.

이런 반통일세력의 추종자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곳이 공안 기구이다. 있지도 않는 조직을 만들어 조직사건을 조작하고,(단국대 조직사건, 민혁당사건 등등) 민주사회에서의 사상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

어제 저녁에도 충청총련 의장 충남대 박찬영 학형이 천안 톨케이트에서 불법적으로 연행이 되었다. 이미 차디찬 감옥에 가둔 양심수만으로는 부족한지 또 다시 한 청년학생의 인권을 짓밟은 것이다.

이 사회에는 정말 많은 사상이 존재할 수 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주어진 환경이 각자가 다른데 어떻게 한가지의 사상만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하나의 정치 세력이 존재하면 반드시 그 비판세력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비판세력을 쳐내고 탄압하는 사회는 민주사회라 말할수 없다. 정치세력의 기반은 민중들이다. 여러 가지의 정치적 노선과 정책들이 나오고, 그 정책의 결정은 민중들이 선거시기 표행사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운동도 마찬가지이다. 학생운동세력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상들을 존중하고 그 결정은 학우대중들에게 맡겨야 한다. 이것이 모든 대중적 정치활동의 민주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반통일보수세력들과 그 추종기관인 국정원은 자신들 주변에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자르려거나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칼을 드리우고 있다. 그 칼이 국가보안법이다. 80%이상의 민중들이 국가보안법철폐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철폐에 반대하고 있다. 더욱 칼의 날을 갈고 더 많은 진보세력을 찔러 대고 있다.

민주노동당청년단국학생위원회(건)는 이런 정치권내의 반통일보수세력들의 행태를 규탄한다. 근본적으로 비판세력을 쳐내기보다는 비판세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변화된 모습을 민중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얼마후에 있을 자치제선거와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참패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남지 않았다. 97년 한총련 투쟁국장이었던 김준배 학형을 군악발과 곤봉질로 죽음으로 몰았던 것이 밝혀짐으로 해서 더욱 국정원이 얼마나 잔혹하고 민중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국정원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박찬영 학우를 불법적으로 연행했던 공안기관의 책임자도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 김준배 열사의 재판을 왜곡한 검사가 버젓이 행정기관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해방된 이후 친일파들이 미국의 행정기관에서 책상을 차지하고 앉아 또 다시 민중들을 탄압하던 것과 다른게 뭐가 있단 말인가?

이회창과 같이 집안내력을 가진 사람들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중요직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청년단국학생위원회(건)는 이런 사회의 전반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충청총련 의장 박찬영 학형의 석방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학생운동세력 중 한 운동세력의 문제로만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학생운동 대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학생운동세력의 단결과 운동의 대중화를 일구어 낼 것을 결의하였다. 이제는 그 결의를 몸소 실천해야 할 때가 왔다.

모든 학생운동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과 국정원해체 투쟁을 위해 일떠서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로의 첫 걸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진보세력을 탄압하는 국정원은 해체하라!
반통일보수세력의 은장도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박찬영 동지 강제 연행 책임자 처벌하라!
박찬영 동지 즉각 석방하라!

2001년 9월 25일
민주노동당청년단국학생위원회(건)



통일연세

충청총련 의장 연행 규탄 성명서

가을 초엽에 미국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의 무모한 보복 전쟁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한반도에서 드높다. 우리 민중들은 세계 평화을 위협하는 진짜 깡패 · 불량 국가의 모습을 미국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에 무기 강매를 시도하고, 그 무슨 미사일 위협을 운운하며 MD를 강요하는 등 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 선언을 무력화하려 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을 분노에 차 지켜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또 어떤가? 우리 7천만 겨레의 지향이 남북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에 있음을 바로 보지 못하고 지난 민족 공동 행사에서의 사소한 일들을 침소봉대해 이러한 민족적 열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꺽으려드는 이회창과 한나라당 등 반통일 보수 세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일부 장관해임을 둘러싸고 진행된 반통일 반민족 만행들을 일일이 목도한 우리 겨레는 이후 진행된 5차 장관급 회담의 눈부신 성과를 지켜보며, 새삼 6.15 공동 선언 이행만이 통일의 길임을 확인하고, 반통일 보수 세력에 대한 투쟁을 결의하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시기 민중들이 요구하고 있는 투쟁이며 지향이다.

이러한 민중들의 요구와 투쟁 의지를 가슴에 담고, 민족의 자주와 통일, 그리고 이 땅의 완전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청년 학생들이다. 또 한 그 선봉에 있는 것이 우리 한총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애국 애족의 길에서 모든 것을 내어바쳐 투쟁하고 있는 우리 한총련의 지도부중 충청총련 의장 박찬영 동지의 연행 소식을 들으며 치솟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지난 장관급 회담에서도 보여지듯이 남북은 이제 그 누가 방해하려들어도 꿈쩍 않는 통일 대세의 길에 들어섰다. 하기에 우리는 이미 남북 냉전 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과 한총련에 들씌워진 이적 규정이 아무런 근거도 갖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상황이 그러할 진데 겨레의 요구와 지향에 따라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그 무슨 죄가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박찬영 의장을 연행해간 공안 당국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연행과 학내 사찰, 그리고 오늘 박찬영충청총련 의장 연행 등 만행을 자행한 것은 7천만 겨레와 역사 앞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들을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반통일 세력과 진행할 일은 단 한 가지이다. 기간 자행한 반민족적 만행들에 대한 응당한 결산이며, 민중의 요구에 따라 단호한 투쟁을 벌여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충청총련 의장의 연행 소식을 듣고 치솟아 오르는 분노를 모아 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하며, 숨통이 끊어져가는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숨 소리에 의탁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공안 당국에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하나, 부당한 한총련 이적 규정을 철회하고, 박찬영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반통일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하나, 반통일 만행의 첨병 보안 수사대를 즉각 해체하라.

충북대사회대

시대를 거스르는 불법,폭력만행을 당장 중단하라!

자주의 세기라 이야기하는 21세기.

지금 한반도는 갈라진 남과북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려는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반백년동안 미국놈들에 의해 원치않는 분단으로 서로 고통받았던 치욕의 나날들은 이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통일하고자하는 칠천만 민족의 함성소리에 씻겨져 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아부굴종하며 분단의 찌거기를 먹으며 버러지만도 못하게 살아왔던 반통일세력들이 아직도 미쳐 날뛰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또한번의 획기적인 통일성과를 남긴 방북대표를 어처구니없게 구속시키는가하면 결혼식을 며칠앞둔 신랑을 기만적으로 폭력연행하는 만행을 보이기도 했다. 청주에서는 학내까지 버젓이 들어와 학생회장을 잡아들이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자주와 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냉전,대결의 시대로 돌아가보려는 반통일 세력들의 마지막 준동은 이제 우리가 투쟁으로 분쇄하여야 한다.

자주와 통일을 가장 맨 앞장에서 투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애국단체 한총련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은 곧 통일을 가로막아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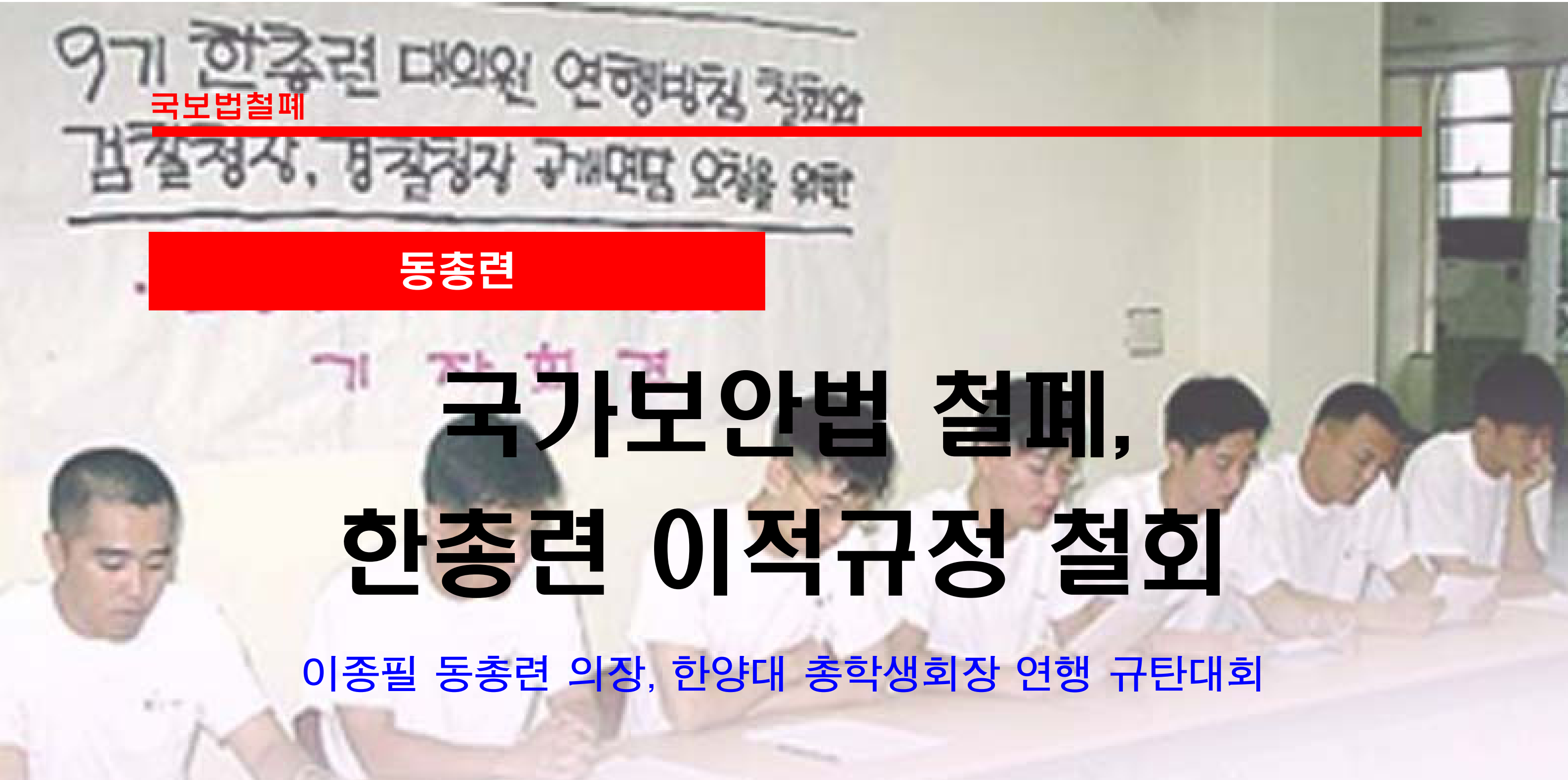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천배,백배 그 죄과를 충분히 물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반통일 행각들에 대해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 충청총련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민족충북대 ≪청년닷컴≫ 사회대 학생회



동총련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이종필 동총련 의장, 한양대 총학생회장 연행 규탄대회

오늘(21일) 오후 2시 30분경 동총련 의장과 한양대 사회대 학우 한 명이 성수역 부근에서 성동서 보안과형사들 에 의해 폭력 연행되었습니다. 어제(20일) 한양대에서는 한총련 사무실 재개소에 관한 공청회가 많은 학우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동총련 의장이지만 한양대 총학생회장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다음 날인 오늘 광운대를 방문하기 위해 학교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폭력 연행되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부터 차량 미행이 붙어서 성수역 부근에서 동총련 의장이 타고가던 택시를 보안과 형사가 가로막고 불법적으로 연행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양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동총련 규탄집회가 준비되기 시작하였고 동총련 각 학교마다 학우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150여명의 학우들이 결집하였습니다. 한양대는 원래 반미행동의 날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연행 규탄대회로 바꾸고 학우들에게 이 사실을 적극 알려내고 성동서 항의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정문 앞에서 선전전으로 시작하여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대단체에서 규탄투쟁을 함께 하고자 오셔서 그분들을 선두로 성동경찰서까지 도로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미 성동서 앞에는 전투경찰이 진을 치고 있었고 도착하자마자 전원 연행할 듯이 달려들다가 항의투쟁을 하러 간 모든 학우들이 연좌하여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어 대표단은 학내 사찰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행 사유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것, 그리고 동총련 의장에 대한 부당한 연행에 항의하고 조속히 석방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동총련 의장은 장안동 분실로 옮긴 상태였고 학내 사찰에 대한 책임 조사와 장안동에서의 면회를 주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한 시간 가량 경찰서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동총련 의장 석방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한양대 정문으로 이동하여 정리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원래 계획된 반미행동의 날 행사를 약식으로 진행하였고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반통일악법, 반민중악법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남아 우리의 대표자, 애국청년을 연행해 갔습니다. 한총련이적규정의 매서운 칼날이 우리의 대표자, 한총련 대의원을 우리에게서 앗아갔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이적규정철회 투쟁에 절절한 마음으로 나섭시다. 통일조국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우리의 동지를, 우리의 대표자를 공안당국에게 빼앗기지 맙시다.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조국통일투쟁에 힘있게 나섭시다.

동총련은 우리의 대표자 이종필 의장을 석방하고 우리의 대표자 이종필 의장을 불법, 폭력연행한 성동서에 대한 규탄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입시다.

내일(22일)은 용산에서 미군기지반환투쟁이 있으므로 동총련 각 학교는 12시까지 한양대 정문앞으로 모여서 성동서 항의, 규탄투쟁을 전개하고 용산투쟁에 결합하도록 합시다.

동총련의 대표자 이종필 의장을 즉각 석방하라.
동총련 의장 불법, 폭력 연행한 성동서 규탄한다.
공안당국은 대학내 정치사찰 즉각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라.



통일학연구소 한호석소장 입국불허를 강력히 규탄한다

1. 국가정보원은 오늘 오후 4시 30분 대한항공 편으로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통일학연구소 한호석 소장(자주민주통일 미주연합 정책위원장)을 이유 없이 ≪입국 불허≫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2. 우리는 커다란 분노와 한없는 슬픔으로 정부 당국에 묻는다. 미국 뉴욕에서 지구를 반 바퀴나 에돌아 고국에 도착한 한호석 선생이 왜, 무엇 때문에 그리운 조국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가? 왜, 무엇 때문에 정다운 얼굴을 만날 수 없는가?

3.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입국 불허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학자적 양심과 풍부한 정보, 정확한 학술적 안목에 기초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 문제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국내외에 널리 공유해온 한호석 선생의 입국을 저들은 왜 가로막아야 했는가? 자주와 통일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오늘 이 시대의 뚜렷한 역사적 흐름이 한호석 선생의 강연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더욱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은 것, 그것말고 달리 또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무모한 일임을 지적한다.

4. 해외 동포들의 입국을 이유 없이 가로막는 것은 교포들에게 부여된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무참히 유린한 것으로서 해외 거주 동포 모두를 향한 반민주적 죄악이며, 동시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는 지난 7월 7일 일한 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 와타나베 겐쥬 공동대표, 오늘 한호석 선생 등 우리 전국연합 초청 인사를 잇달아 입국 불허하는 정부 당국의 행태를 예의 주시하며, 당국에 강력한 규탄과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이 같은 탄압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을 분명히 한다.

2001년 9월 20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교육시장화 저지, 공공성쟁취 행동연대 출범

교육단체들, 연대기구 결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대학교수노동조합(준)≫, ≪대학노조≫ 등 각급 교육관련 단체들이 연대기구를 발족했다.

20일 학생회관 라운지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국대학교수노동조합(준)(이하 교수노조),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 교육학생연대(준), 학문의 후속세대권리쟁취를 위한 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준)등 각급 단체가 모여 ≪교육시장화 저지,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행동연대(준)≫(약칭 교육행동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용백 대학노조위원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교육행동연대는 ≪김대중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은 모두를 거리의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돈 있는 자만이 양질의 교육을 보장받는 교육정책을 폐기하고, 민주적인 논의를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행동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투쟁에 나설 것이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하반기 총력투쟁을 계획하고≫있고, ≪내년 지자체 선거와 대선을 넘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공동 기자회견문이 발표 된 후 각 단체별로 향후의 계획이 소개 되었다.

교수노조는 9월말부터 시작되는 교수 1만인 선언과 11월 10일 전국교수노조의 정식 출범 후 ≪전국 교수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11월 중순이후 서울상경 투쟁을 거쳐 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대학노조는 ≪국립대발전계획안을 저지하지 못하면 정부의 정책기조를 막지못할 것≫이라면서, 11월 초 국립대 상경투쟁을 거쳐 11월 중순 경 국립대특별회계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총력투쟁을 벌일 생각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등 5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연대기구로 발의된 ≪교육학생연대(준)≫는 10월 중 대국민 100만인 선언운동과, 선거기간동안 공동정책등을 토대로 교육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교육학생연대(준)은 20일 오후8시 서울대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21일 있을 ≪교육주체결의 대회≫에서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로서 ≪교육행동연대≫는 교수/대학생/교사/대학노조를 포괄하며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해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연대체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일 오후 4시 여의도 문화공원에서는 국립대발전계획공동대책위원회와, 교육행동연대(준)의 주최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철회,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연다.

조귀동 기자 webmaster@snunow.com
2001-09-21 12:07:00





학생, 교수, 직원 함께 정부교육정책 성토

여의도에 3천여명 모여 ≪공교육 정상화≫ 촉구

따사로운 햇살 대신 시원한 바람이 반가워 삼삼오오 자전거를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이 평화롭기만 한 때, 그 진풍경을 함께 연출하지 못한 채 차가운 아스팔트를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학문탐구라는 본연의 자세를 거부한 채 칼바람을 일으키며 대열을 이루었다.



대열에는 비단 학생뿐 아니라 직원, 교사, 교수도 대다수를 차지했고 정부를 향한 전면적인 교육투쟁을 선포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전면 철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라≫

지난 21일(금)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철회,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가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5월 최초로 국립대학발전계획이라는 단일사안을 가지고 전국 국공립대 소속 3주체가 결성한 국립대학발전계획철회와 공교육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국립대공대위), 20일(목)에 발족한 교육시장화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동연대(교육행동연대)의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육재정 6% 확보, △사립학교법 개정, △국발안, 전발안 철회, △7차교육과정 철폐·사립형자립고 도입 중단, △국립대특별회계제 도입 중단, △연봉제·계약제 도입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봉곤 국립대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국발안은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된 것으로 공교육을 포기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국발안, 전발안에 이어 사발안도 계획중이라는데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철회하자≫고 밝혔다.

이상철 사학법개정국본 의정감시단장은 ≪사학을 자손 대대로 물려받아도 세금 한푼 안 내도 되는 법이 바로 사립학교법이다. 너무도 심각한 사학분규 해결에 3주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학분규 대학인 덕성여대, 숭실대, 한국외대, 한동대의 투쟁보고가 있었다. 특히 총장퇴진을 주장하며 10개월간 투쟁중인 숭실대, 비리재단이사장 퇴진을 주장하는 학생들을 제압하기 위해 폭력배를 사주했다는 덕성여대의 상황은 정부가 사학재단 비호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점이다.

이어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김용백 국립대공대위 대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철회,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교육재정확보는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교육대개혁투쟁에 대한 열의와 분노를 행동으로 맘껏 보여주자≫고 밝혔고 최갑수 교육행동연대 대표는 ≪교육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공교육이어야 하며 공교육이 강화될 때만이 학교가 바로 설 수 있다. 공공성 쟁취를 위한 교육대투쟁에 3주체가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사범대, 교육대 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교원임용양성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교대협 김구현 의장(광주교대 총학생회장)은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양성정책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를 도외시한 채 보수교육양성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촉구했다.

대학교육 주체 외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참석해 자립형 사립고 설치 철회를 주장했다. 김학한 전교조 서울시지부 정책실장은 ≪기득권의 계층유지 통로를 위해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겠다는 논리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분쇄를 위해 전교조는 투쟁으로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정책이라는 단일한 사안을 가지고 학원 3주체라 일컫는 학생, 교수, 직원이 단일조직을 결성하고 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연 교육주체 결의대회. 10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각 교육주체는 교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투쟁의 파고를 더해갈 것을 결의했다. ≪너무나 황폐해진 교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교육주체가 나서야 한다≫며 거리로 나온 이들은 발걸음은 분명 현 교육의 실체 있는 희망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한편 본 대회 후 국회 에워싸기 투쟁을 계획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국회 진입은 무산됐다.

전대기련 대학분과 공동기자단
2001-09-22 14: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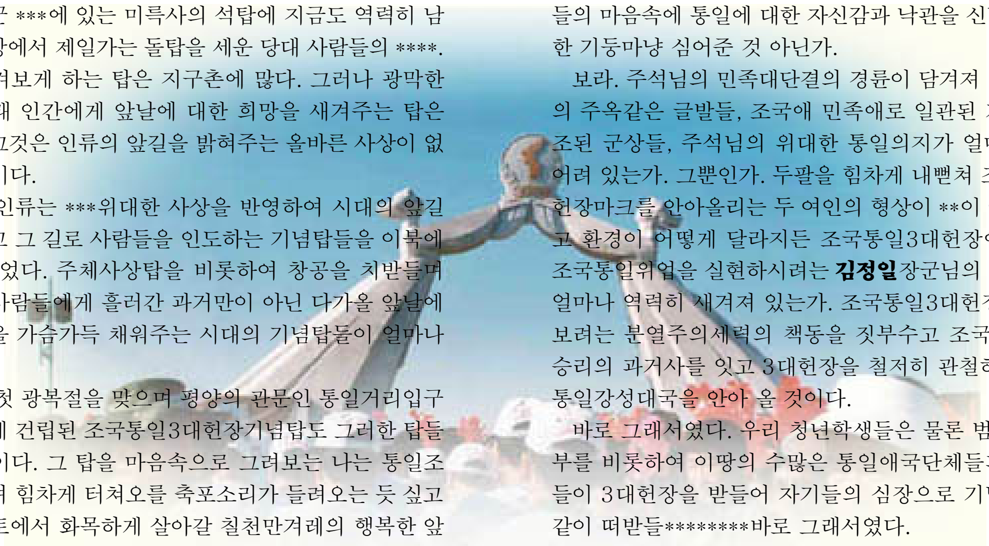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바라보며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9월 19일～21일

지구상에는 인류의 정신문화적재보인 탑들이 수많이 서있다. 오랜 역사를 혹은 남다른 형식을 자랑하는 그 많은 탑들에도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솟아 무엇을 상징하는 탑이고 모두가 과거를 회상케 한다는 그것이다. 탑의 중심에 솟아있는 **탑을 생각하면 백수십년전 저들의 공업발달을 요란스레 광고하며 근로대중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이 강철탑건설에로 내몰던 ***부르조아지들의 교활성과 탐욕성이 안겨온다.

피사탑을 그려보면 600여년간이나 기울어진채로 서있다. 특히 저명학자 갈릴레오가 자유낙하법칙을 증명한 곳이라고 한 이 종탑의 일화가 다시금 떠오른다. 내가 태어난 전라북도 익산군 ***에 있는 미륵사의 석탑에 지금도 역력히 남아있는 동방에서 제일가는 돌탑을 세운 당대 사람들의 ****. 과거를 새겨보게 하는 탑은 지구촌에 많다. 그러나 광막한 저 하늘아래 인간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새겨주는 탑은 없었으니 그것은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올바른 사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20세기 인류는 ***위대한 사상을 반영하여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고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기념탑들을 이북에서 볼수 있었다. 주체사상탑을 비롯하여 창공을 치받들며 솟아올라 사람들에게 흘러간 과거만이 아닌 다가올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가슴가득 채워주는 시대의 기념탑들이 얼마나 많은가.



새 세기 첫 광복절을 맞으며 평양의 관문인 통일거리입구에 특색있게 건립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도 그러한 탑들중의 하나이다. 그 탑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나는 통일조국을 안으며 힘차게 터쳐오를 축포소리가 들려오는 듯 싶고 하나의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갈 칠천만겨레의 행복한 앞날이 금시라도 펼쳐질듯 싶다. 그것은 무엇때문일까. 한없이 높고 맑은 하늘아래 높이 솟은 기념탑의 그 웅장화려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불러오는 충동이 크기 때문일까. 그것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가장 위대한 사상을 전하는 신통한 탑이기 때문이다.

새겨보면 분단의 연륜이 끝없이 깊어지는 속에 얼마나 많은 통일주장들이 울려나왔던가.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로는 장구한 세월 얼어붙은 통일의 문을 한치도 열수 없었다. 분열주의세력은 북진통일론, 승공통일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론과 같은 반북대결의 **을 뿜으며 통일의 문이 열릴 종이 울릴때마다 더 악랄하게 분열의 빗장을 치곤했다.

통일의 문은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 이 시대적물음에 언제나 명쾌한 해답을 주시며 겨레의 통일운동을 앞장에서 개척하여 오신 분은 **김일성**주석님이셨다.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원칙,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이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통일국가의 방향과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주석님의 투철한 민족자주사상과 애국애족의 결정체인 조국통일3대헌장의 찬란한 빛발로 겨레의 앞길을 밝혀 우리 민중은 분열주의광풍이 그처럼 기승을 부리는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뚜렷한 목표와 향방, 자신감과 용기를 안고 조국통일에 정력을 매진하여 올수 있은 것이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와 같은 경이적인 화폭도 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3대헌장의 봉화로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고 민족의 통일운동을 진두지휘해오신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펼쳐질수 있었다.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 조국통일위업의 강령적지침인 이 위대한 조국통일사상이 담겨져 있어 3대헌장기념탑은 **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자신감과 낙관을 신념과 의지로 한 기둥마냥 심어준 것 아닌가.

보라. 주석님의 민족대단결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명제들의 주옥같은 글발들, 조국애 민족애로 일관된 기념탑의 부조된 군상들, 주석님의 위대한 통일의지가 얼마나 뜨겁게 어려 있는가. 그뿐인가. 두팔을 힘차게 내뻗쳐 조국통일3대헌장마크를 안아올리는 두 여인의 형상이 **이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통일3대헌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시려는 **김정일**장군님의 철의 의지가 얼마나 역력히 새겨져 있는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보려는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수고 조국통일위업의 승리의 과거사를 잇고 3대헌장을 철저히 관철하는 그 길에 통일강성대국을 안아 올 것이다.

바로 그래서였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물론 범민련남측본부를 비롯하여 이땅의 수많은 통일애국단체들과 해외동포들이 3대헌장을 받들어 자기들의 심장으로 기념탑을 억척같이 떠받들********바로 그래서였다.

지난 8월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이 분열주의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수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열린 통일행사들에 참가하여 민족의 통일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한 것이다. 지금 분열주의세력은 이것을 문제시하며 방북단을 상대로 탄압의 칼날을 더욱 악랄하게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용용히 굽이치는 대하의 흐름을 칼로 멈춰세워보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이 빛을 뿌려 민족의 앞날은 밝고 겨레의 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 이것은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힘찬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로 굳건해 지는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들의 통일의 지이다.

앞으로 민심의 물결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서있는 평양으로 더욱 끝없이 물결쳐 흐를 것이다. 앞으로 그 기념탑에서는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더 많은 통일행사들이 열릴 것이다. 통일을 알리는 축포들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울리고 통일의 만세소리도 그 기념탑에서 울려나와 온 삼천리에 퍼져갈 것이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빛나는 하늘아래서 우리 겨레는 분열주의세력들을 척결하고 통일강성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드날리고 세세년년 복락할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농민들의 자세

구국전선 9월 21일

현시기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과제로 나서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로 이룩해 나갈 것을 선언한 21세기의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그것은 6.15공동선언이 조국통일실현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남과 북사이에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이산가족상봉, 비전향장기수북송, 남북장관급회담과 군사당국자회담 등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 그리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여러 계급, 계층을 망라하는 통일대회와 통일대축전들이 진행되었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위업을 수행하는 데서 민족의 일원인 우리 농민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난 7월18일부터 19일까지 금강산에서 분단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는 남과 북의 농민들의 단합된 힘을 크게 과시했으며 농민들도 노동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실현의 당당한 주력군임을 내외에 널리 과시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농민대중의 통일의식도 급격히 높아지고 농민대중의 진출 또한 적극화되고 있다.

농민대중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나서고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동참하는 수준을 넘어 농민운동의 주인으로, 통일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함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민족자주통일을 이루고자 전민족이 떨쳐 나선 이 마당에서 과연 우리 농민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가.

현시기 6.15공동선언에 대한 태도는 곧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태도이다. 농민대중은 통일의 주체라는 자각을 가지고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서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북강경정책과 북침전쟁책동으로 6.15공동선언이행에 방해를 놀고 제동을 거는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자주화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하리라고 본다.

이미전부터 ≪수입개방강요하는 미국놈 몰아내자≫,≪민족농업 사수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등 농민들의 투쟁구호는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서 한발 나아가 미국을 반대하고 조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해 왔다. 이것은 쌀값을 조금 올리는 것, 농가부채를 조금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실생활체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농민대중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강요당하면서 미국이야말로 우리의 해방자도, 원조자도, 보호자도 아닌 자주, 민주, 통일의 주적임을 똑바로 깨닫게 되었다.더욱이 미국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오늘까지 대북강경정책과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벌이면서 통일후에도 주한미군이 존재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야말로 한반도통일의 악랄한 방해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미 반미자주화투쟁이 각계층 애국민중들 속에서 각종 형식과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투쟁에 우리 농민들도 동참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농민대중은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급격히 높아진 반미자주화투쟁에 보다 본격적으로, 보다 조직적으로, 보다 대중적으로 참여하여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농민대중은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을 중심과제로 제기하고 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철폐투쟁과 이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악랄한 반북책동과 북침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반통일우익보수냉전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견결히 벌여야 한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구시대의 악명높은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설 자리를 잃고 그 존재명분이 사라졌음에도 오늘 이 땅에서는 의연히 ≪국보법≫에 의한 파쇼전횡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농민대중은 이 통탄할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아야 하며 남북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조국통일의 걸림돌인 ≪국보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높게 전개해야 한다.

특히 ≪상호주의≫를 운운하며 6.15공동선언이행에 찬물을 끼얹으며 ≪국보법≫철폐를 결사반대하고 남북화해와 협력, 교류에 훼방을 놀고 있는 반통일우익보수세력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에 농민대중 모두가 분기해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투쟁에서 연대, 연합 공동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조국통일은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을 위한 일도 아니고 또 어느 한 계급만이 참가하여 이루어질 일은 더욱 아닌 전민족적인 대업이다. 이 민족적인 대업수행에서 어느 특정한 계급계층의 이익과 이해를 앞세워 연대, 연합하지 못하고 논쟁과 비판만을 앞세운다면 조국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농민대중은 노농, 농학 연대와 연합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조국통일대업을 수행하는 데서 자기의 당당한 몫을 차지해야 한다.

우리 농민들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확고히 거머쥐고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민족의 운명 속에 우리 농민들의 운명이 있고 조국통일에 우리 농민들의 참된 삶과 행복할 내일이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는 조국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자.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열어놓는 이 성스러운 투쟁에 우리 농민들의 힘을 합치고 마음도 하나, 발걸음도 하나가 되어 통일운동에 과감히 매진하자!





반미없이 6.15공동선언 이행없다

김윤식 / 한민전 평양대표부 시사레포트 주체 90(2001)년 9호

미국이 무력으로 이남땅을 비법강점한 1945년 9월 8일은 이남민중에게 있어서 제2의 국치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강점으로 하여 이남민중은 자주독립을 잃고 초보적인 자유와 생존권마저 짓밟혔으며 국토는 분단되고 민족은 파멸적인 핵전쟁의 위험에 직면해있다. 이 통탄할 사태 앞에서 전국민이 비분강개하고 있다.

미국이 ≪천사≫가 아니라 악마이며 ≪맹방≫이 아니라 숙적이라는 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악랄하게 가로막고 있는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미군기지반환≫설의 문제점

대북강경정책으로 6.15공동선언에 전면도전해 나선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지금 이 선언의 이행을 각방으로 방해해 나서고 있다.

최근 한미간에 매듭지어진 주한미군기지반환문제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측은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해 4천여만평을 반환하는 대신 한국측은 미국이 요구하는 토지 75만평을 새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 반환이 확정된 것은 현재 이남에 있는 96개의 미군사 시설중 20개로서 경기도 파주, 동두천, 포천지역에 있는 훈련장 3곳 3천9백만평과 기지 17곳 1백만평이다. 언뜻 보기에는 많은 땅을 내놓은 것 같지만 실지 따져놓고 보면 여기 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주한미군기지반환이 이남민중의 요구, 더욱이는 6.15공동선언에 의한 남북간의 화해협력분위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그 전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취해졌다는 것이다.

미국이 반환한다는 기지나 훈련장들을 보면 군사적가치를 상실한 것들이다. 이남에서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매향리사격장이나 용산기지 같은 것들은 철폐는 고사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서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미군기지를 반환한다고 하는 그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미군기지를 지금 당장 내놓는 것이 아니다. 반환기간을 늦잡아 앞으로 10년 이후에나 두고 본다는 식으로 어정쩡하게 했다. 이런 기지반환은 아무 의의도 없는 하나마나 한 것이다.

더욱 문제로 되는 것은 대다수 미군기지들이 오폐수방류나 폐유유출 등으로 심히 오염되었다는 사실이다. 열화우라니움탄을 마구 터쳐 방사능오염이 심한 곳도 있다. 불모지로 화한 이런 땅을 아무 대책없이 그대로 반환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결국 주한미군기지반환이란 미군철수와 미군기지철폐를 요구하는 내외여론을 무마하며 이남땅을 영구강점하는데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보려는 교활하고 음흉한 술수이다. 미국은 어리석은 잔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 화해와 단합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오늘날 미국이 이남에 남아있을 하등의 이유와 구실이 없다.

미군은 이남에서 지체없이 철수해야 하며 미군기지는 부분적 반환이 아니라 전면 철폐되어야 한다.

주한미군기지는 신성한 우리 땅이지 미국영토가 아니다. 남의 땅을 함부로 차지한 것도 문제지만 불모지로 못쓰게 만든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미군기지를 오염시킨 범죄에 대해 공식사죄해야 하며 해당한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

너도 나도 궐기하여 주한미군기지를 전면철폐시키자!

기지오염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자!

미국의 무기강매바람

미국의 고약한 심보는 이남에 값비싼 미국제 무기를 대량 팔아 먹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얼마전에 있은 한미간의 외상회담과 정상회담에서 허구적인 북의 ≪위협≫을 떠들면서 대북강경정책의 강도를 높이라고 압력을 가한데 이어 최근에는 한미연합작전상 ≪필요하다≫면서 미국으로부터 최신예전투기와 공격용헬기, ≪미사일 방어≫망구축에 이용되는 ≪스탠다드≫미사일발사대와 ≪패트리오트≫미사일 등 더 많은 전쟁장비들을 구입하라고 강박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이남에 많은 무기들을 비싸게 팔아먹었다. 지난 10년간 이남당국이 해외에서 사들인 무기구입액은 공개된 것만 도 1백23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 73%에 해당하는 89억 7천만 달러는 미국산무기로 알려져있다. 이남땅이 미국무기의 전시장으로 화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더욱이 6.15공동선언으로 남북이 화해와 단합에로 나가고 있는 현실은 무력의 증강이 아니라 감축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도 부시행정부가 미국무기를 구입하라고 끈질기게 강요하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이남을 범죄적인 ≪미사일 방어≫망에 끌어넣어 남북대결을 격화시키며 이북을 그 시험장으로 만들려는 극히 엄중한 책동이다. 미국이 한반도의 ≪유사시≫에 대비한다면서 69만여 명의 병력 과 1백60여 척의 각종 함선, 1천6백여대의 비행기를 출동태세에 두고 있으며 30기의 요격미사일을 장착한 2척의 이지스함을 2003년까지 우리 나라의 동해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는 이 같은 책동은 ≪미사일 요격≫을 구실로 이북을 이라크와 같이 임의의 시각에 공격하겠 다는 것이다. 이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은 곧 전쟁도발 이다.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의 엄중성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또한 이남민중의 주머니를 사정없이 털어내어 횡재해보려는 악랄한 술책이다.

미국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무기장사로 비대해지고 제국주의 제왕으로 군림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있다.

지금 미국의 부시정권의 뒤에는 긴장격화와 군비경쟁에 명줄을 걸고 있는 군수업체가 서있다.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을 바라는 이들에 의해 이북의 ≪핵위협≫, ≪미사일위협≫ 등 전쟁위기설이 끊임없이 증폭되고 정세는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이남에 강매하는 무기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침략전쟁수행에 써먹기 위한 것이다.

결국 미국은 저들이 써먹을 무기를 끌어들이면서도 우리 국민들로부터 그 값은 값대로 다 받아 배를 불리고 있는 셈이다. 양키들이란 이렇게 교활하다.

미국의 무기강매바람은 우리 민족, 민중의 자주권과 삶을 해치는 전쟁바람, 수탈바람이다.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자!

미군은 모든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가라!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성과리에 끝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9월 21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18일 성과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우선 공동보도문내용부터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공동보도문은 5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조항에는 남과 북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 당국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민간급에서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위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는 내용이고, 둘째조항은 남과 북이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해 제4차 이산가족, 친척방문단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고, 셋째조항은 남과 북이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서울–신의주사이의 철도와 개성–문산사이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성공업지구에 연결시키기 위해 쌍방사이에 군사적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발효되는데 따라 연결공사에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통하기로 하는 등 9가지 조항이 명기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조항은 남과 북이 태권도시범단을 교환하기로 하고 10월에 북측 시범단을, 11월에 남측 시범단을 각각 상대지역에 파견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은 관계자들사이에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조항은 남과 북이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하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조항들을 보면 남북간에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자마자 각계 민중의 지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자 : 6개월동안 중단됐던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려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것은 참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실까요?

윤정원 : 네,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갖는 의미는 첫째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정당성과 활력을 다시금 확고히 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6.15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이정표죠.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국제사회에 엄숙히 선언한 거죠.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은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높은 자주의식을 다시한번 새겨안게 됐죠. 그래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이 문제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해 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마련하고 칠천만겨레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안겨준 것이죠. 국민들은 우려했던 남북관계가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다시 좋게 발전되리라는 **에서 모두 기뻐하면서 통일투쟁에 적극 나설 결의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럼 이번에는 말이죠. 각계 민중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발표된 공동보도문을 지켜본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윤정원 : 사실 우리 민중은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동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으로 남북관계가 대결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고 얼마나 우려했는지 모릅니다. 헌데 이번에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이 발표되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죠.

서울에 사는 이산가족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 벌써 80이 넘었다. 나도 북측에 있는 가족, 친지들을 만나보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데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4차 이산가족을 상봉하는 사업을 하게 했다니 참으로 기쁘다.≫

****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울–신의주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통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통일의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달릴 그날이 온다니 참으로 기쁘다. 당국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남북의 한 *****를 실천하는데로 나가야 한다.≫

인천시에 사는 경제인 손모씨는 기다렸던 문제들이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기쁨을 금할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어요.

≪남북이 이미 서로 교환한 남북관계협력의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남북이 경제협력을 해야 ******할수 있다. 남북이 서로 합심해서 경제를 발전시켜나간다면 우리 나라는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으로 될것이다. 나는 경제인으로써 앞으로 *******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회자 : 정말 온 국민이 *****. 그런데 말이죠. 남북장관급회담이후 **********이것을 시비하거나 방해하는 입장들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네, 옳은 말씀이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패거리들과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동때문이였습니다. 이미 세상에 널리 폭로된 바와같이 한나라당패거리들은 6.15남북공동선언자체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발전에 *******. 이런 맥락에서 볼때 각계 민중이 한나라당을 **해야 남북관계를 발전시킬수 있다면서 한나라당반대투쟁에 나섰어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6개월간 발전하지 못하고 정지상태에 있은건 부시행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동으로 인해서 북미회담도 열리지 못하고 남북관계발전에도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한나라당패거리들과 부시행정부가 아니였다면 남북관계는 좋게 발전했을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거죠. 그런만큼 각계 애국민중은 한나라당이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 *******또 미국의 대북강경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투쟁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남북공동선언이후 좋게 발전하는 ************.

사회자 : 지금까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후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각계 민중은 공동보도문내용을 차질없이 실현해나가자면 이를 방해하는 ****하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학생의 정치활동과 민주노동당≫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동당청년단국학생위원회(건)

전체 학생운동의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고, 진보정당을 강화하여 더이상 이 땅의 정치권에 이회창 같은 반통일분자들이 설 곳이 없도록 청년학생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학생운동은 정치활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사람으로 존재할때는 발현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치지도부의 지도가 있을때만이 사회정치적 생명은 더욱 빛날수 있습니다.

현 이남사회의 정치지도부는 민중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발현시키기 보다는 미사대주의 사상으로 민중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청년학생은 미래에 이 사회를 이끌어 지도핵심들입니다. 청년학생들 스스로도 이점을 각인하고, 더 많은 혁신과 사상학습을 통해 지도핵심으로서의 제 역할을 잘 할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대학생의 정치활동과 민주노동당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하고자 합니다. 강연회를 통해 대학생의 정치활동이 왜 정당하며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은 동지들이 동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연회 일정
날짜: 9월 26일 수요일
시간: 늦은 7시
장소: 천안 단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종합강의실(317호)
강연자: 민주노동당 안양시 동안구지구당 위원장 정성희님

민주노동당청년단국학생위원회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 동지들은 강연회와 발족식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발족식 일정
날짜: 9월 27일 목요일
시간: 12시
장소: 천안 단국대학교 노천극장

남북 교계여성 통일토론회

국내 기독교계 여성들이 캐나다에서 북한 교계 여성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 통일과 관련한 토론을 벌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송영자 위원장을 비롯,성영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이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신선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총무,한국염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총무,이우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초대회장,이승리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등 교계 여성 7명은 23~28일 캐나다 토론토 유나이티드 처치 수련원에서 ≪한국여성과의 연대≫모임 주최로 열리는 ≪남북 북미 여성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연대≫를 주제로 열리게 될 이번 회의에는 남북한 교회 여성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세계교회협의회(WCC) 아시아교회협의회(WCC) 소속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주제로 세계 교회 여성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북한에서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등의 여성 인사 4~5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남북 여성들은 분단된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교계 여성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남북한뿐만 아닌 국제 여성들과의 에큐메니컬 협력 관계의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이들은 특히 마지막날인 28일 토론토 코리아가든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가지고 남북 평화 의지를 천명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9만달러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고 방북한뒤 보고차 서울에 들린 북미지역 교회 여성들이 KNCC 여성위원회 등 교계 여성 단체들의 요청을 받고 추진했다.

이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는 이번 회의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서로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이 기여할 바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욱기자 swkoh@kmib.co.kr

2001민족통일대축전구속자 석방기금마련 통일연대 후원주점



통일사절단 7인의 석방기금 마련을 위해 동지적 사랑과 의리를 담은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001민족통일대축전구속자 석방기금마련
통일연대 후원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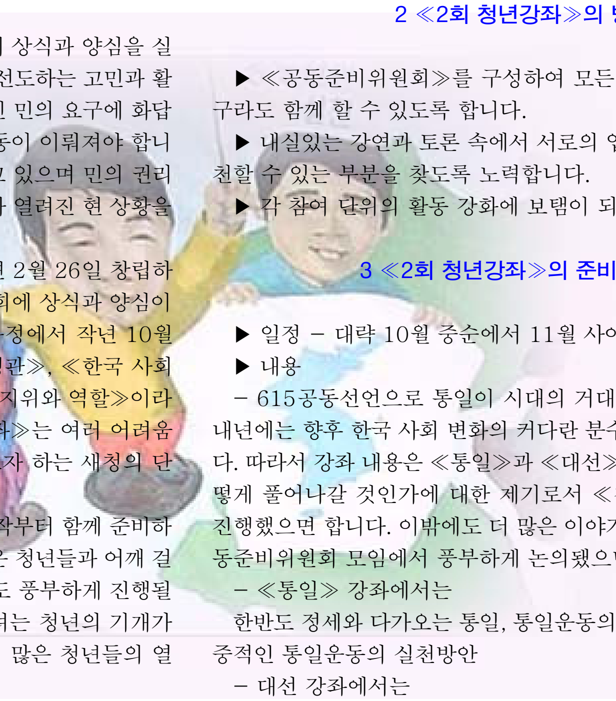
일 시: 2001년 9월 27일 늦은 7시
장 소: 동국대학교 상록원 (3층 교수식당)

★ 2001민족통일대축전구속자 석방기금마련
통일연대 후원주점

일시: 2001년 9월 27일 늦은 3시부터
장소: 동국대학교 학생회관 앞

2회 청년강좌에 함께 합시다

새시대서울청년회



615공동선언으로 남북 간에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기운이 시대의 물결로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대의 흐름을 가로막고 방해하려는 세력들로 인해 그것을 확고하게 대세로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벌이는 대북 정책은 다시금 한반도에 긴장과 대립, 전쟁의 기운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청년은 언제나 시대의 개척자로서 한국 사회에 상식과 양심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이는 항상 시대를 선도하는 고민과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더욱 높아진 민의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서는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고와 활동이 이뤄져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으로 통일이 시대적 추세로 되고 있으며 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으로 한국 사회에 격변기가 열려진 현 상황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이 이뤄져야 합니다.

저희 새시대서울청년회(이하 새청)는 2000년 2월 26일 창립하여 광범위한 청년들의 요구를 풀어내며 한국 사회에 상식과 양심이 참답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10월에 ≪1회 청년강좌≫를 개최하여 ≪청년의 인생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회 청년강좌≫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치러졌지만 시대의 개척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새청의 단합과 강화, 발전의 좋은 기초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많은 청년들과 ≪2회 청년강좌≫를 시작부터 함께 준비하여 성대하게 치러낼 것이 제기되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과 어깨 걸고 고민한다면 그 성과가 배가 되고 내용적으로도 풍부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대의 개척자로서 살아가려는 청년의 기개가 넘쳐나는 ≪2회 청년강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많은 청년들의 열정과 애정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1 ≪2회 청년강좌≫의 의의와 목표

▶ 광범위한 청년들간의 단합과 연대를 실현하는데서 모범을 세워나가는 자리입니다.

▶ 청년이 시대의 개척자로서 한국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입장을 찾는 자리입니다.

▶ 청년이 시대의 개척자다운 모습으로 이후 활동할 것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2 ≪2회 청년강좌≫의 방향

▶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청년 단체와 개인등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내실있는 강연과 토론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노력합니다.

▶ 각 참여 단위의 활동 강화에 보탬이 되도록 합니다.

3 ≪2회 청년강좌≫의 준비와 진행

▶ 일정 – 대략 10월 중순에서 11월 사이

▶ 내용

– 615공동선언으로 통일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향후 한국 사회 변화의 커다란 분수령이 될 대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좌 내용은 ≪통일≫과 ≪대선≫ 그리고 이를 청년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제기로서 ≪청년활동의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밖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면 공동준비위원회 모임에서 풍부하게 논의됐으면 합니다.

– ≪통일≫ 강좌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다가오는 통일, 통일운동의 연대와 단합의 실현, 대중적인 통일운동의 실천방안

– 대선 강좌에서는

2002년 대선이 차지하는 시대사적 의미, 대선에서 광범위한 세력의 연대와 단합의 실현, 2002년 대선을 승리로 맞이하기 위한 방안

– 청년활동 강좌에서는

청학추위의 전망과 역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청년활동의 실천방안

인류가 울었다

박진경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9월 16일~17일

그때 몇 번 만나신적 있는
이남의 한 경제인의 영전에
몸소 화환을 보내주셨다는 그때
그때는 이남이 울었다

화환의 댕기에 빛발치는
≪김정일≫ 그 존함 우러르며
숭고한 도덕앞에 울음을 터뜨렸다
고결한 의리앞에 눈물을 쏟았다

허나 이번엔 전 인류가 울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 레닌묘에 경의를 표시하실때
피스카료브묘지의 ≪어머니 - 조국≫ 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실 때
하바로프스키시의 슬라바광장 무명전사묘를 찾으셨을 때

공산주의도덕의리의 최절정에 서계시는
오 - 김정일장군님
하늘처럼 우러러 인류는 감동의 눈물을 뿌렸나니
그 눈물의 소나기에 이 행성이 푹 젖었다
도덕의리가 메말랐던 인간세계에 생명의 젖이 흘러내렸다



주체 90, 9월 16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194군부대를 시찰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한민전 대변인은 일본이 대형운반로켓 시험발사를 한 것과 관련해 14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반미운동단체의 한 인사가 친미사대분자 이회창을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회창은 친일분자일뿐 아니라 친미사대주의자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대하는 미국에 협력해 나서고 있다. 그는 미국의 부추김을 받아 6.15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려는 목적밑에 남북간의 협력을 퍼주기라고 비난하며 상호주의와 검증을 떠들고 있다. 이것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에 쐬기를 박는 민족반역행위, 친미사대행위이다.

이회창은 민족내부에 존재해서는 안될 친미사대주의자이다. 이회창은 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적극 지지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시험장으로 내맡기려 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을 걸고 미의회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일 계획을 짜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미국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을 해먹으려는 이회창을 더이상 방치해둔다면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끝장낼수도 통일도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예측할수 없는 큰 재난을 당할수 밖에 없다. 친미사대분자 이회창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국의 테러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전쟁으로 테러에 대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상처를 치유하고 원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할 부시행정부가 새로운 무력보복의 악순환을 일으킬 전쟁을 공언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전쟁을 통한 보복은 미국시민들을 새로운 위험과 재앙에 빠뜨리게 될것이라면서 부시행정부가 선택하는 전쟁은 다른 나라들의 연쇄적인 개입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세계갓대를 국제적대립의 시대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해평균 600여명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이란대통령, 니콰라과 대통령, 우즈베끼스딴대통령, 콩고대통령, 캄보디아수상이 각각 축전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를 5일 캄보디아 언뜨리 미엑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이집트대통령의 특사인 대통령관방서기가 지난 9일 자국주재 이북대사관을 축하방문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주년에 즈음해 7일 중국 심양주재 러시아총영사관 성원들이 심양주재 이북 총영사관을 축하방문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3일과 4일 마다가스까르 자주권을 위한 전투행동당, 기니 코바농장에서 경축집회와 강연회 및 경축야회가 진행됐습니다.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리비아 준비위원회결성식이 지난 8일 쿤들라 국제친선클럽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9월 18일

8.15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종교인 이모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격찬했습니다.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이북이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느니 뭐니하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 각계에서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재야인사 김모씨는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의 이같은 망언은 그들의 반민족적정체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철수는 우리 민족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치한 요구이다. 그것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시대의 암적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가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군이 이땅을 강점하고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한국강점으로 인해 우리 민중이 당한 고통과 재난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이것은 미군이 이땅에서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존재이며 더이상 그대로 둘수 없는 악의 무리임을 보여준다. 더욱이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좋게 발전하고 있는 더이상 주둔할 근거가 없다. 이런 시각에서 볼때 북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이에 ***하고 있는 것은 쓸개빠진 자들의 망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통일을 한사코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땅을 미국의 식민지로 언제까지나 내맡기겠다는 수작인 것이다. 그래서 민족의 분열을 고정화하고 이땅의 모든 것을 양키들의 농락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사환꾼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발상이 아닐수 없다. 미국의 사환꾼인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은 지체없이 제거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파개정국민행동, 미군기지공동대책위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통신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적보복공격은 폭력의 악순환만 낳을 뿐이라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한뒤 야만적테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테러를 당한 무고한 미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긴다면 보복공격을 당할 무고한 민중들의 생명과 재산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보복공격지원의사를 밝힌 정부에 대해서도 냉철한 이성으로 공정한 시각을 잃지 말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뒤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에 애도의 뜻이 담긴 꽃과 함께 기자회견내용이 담긴 영문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국방부, 육군 등 군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정부의 군사지원, 전투병파병, 정부의 군사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적극 게재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와 경상남도 고성에서 16일 콜레라로 의심되는 설사환자 2명이 추가로 발견돼 콜레라 또는 의사 콜레라환자수가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염순길위원장은 더욱 악랄해지는 일본의 대북적대시정책과 군국화책동을 규탄해 17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지난 7월 24일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일본이 과거청산문제에 성근한 입장과 태도로 나오며 대북적대시정책과 대북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할수 있을 것이라고 천명하신 것은 조일관계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어길수 없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담화는 일본이 조선민족으로부터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받을수 없는 범죄를 감행한 것은 절대로 회피할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역사왜곡책동과 군국주의부활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담화는 일본의 대북적대시정책의 기본목적은 북을 고립압살하려는데 있다며 일본이 과거범죄행위에 대해 조선민족앞에 사죄와 보상을 할 것과 대북적대시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담화는 평화와 안전, 정의를 바라는 세계 각국의 모든 단체들이 일본의 역사왜곡책동과 대북적대시정책을 반대하는 북의 근로민중들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17일 ***대표단과 이북에 주재할 예멘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외국의 손님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 90, 9월 19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9월 18일 조선인민군 제535군부대관하 구분대와 <오중흡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211군부대를 시찰하셨습니다.

남북은 18일 제5차 장관급회담을 마치면서 5개항으로 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직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6.15공동선언이행투쟁을 힘있게 벌이기 위해 강령과 규약을 수정했으며 새로 수정된 강령, 규약을 18일 남과 북, 해외본부가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한뒤 야만적테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테러를 당한 무고한 미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긴다면 보복공격을 당할 무고한 민중들의 생명과 재산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보복공격지원의사를 밝힌 정부에 대해서도 냉철한 이성으로 공정한 시각을 잃지 말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뒤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에 애도의 뜻이 담긴 꽃과 함께 기자회견내용이 담긴 영문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언론인들이 민족일보사건의 담당판사로 있던 이회창을 국민의 심판대에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의 한 기자는 이회창이 언론개혁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서 분노를 금할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으로 말하면 역사상 최대의 언론말살사건인 민족일보사건의 담당판사로 당시 조용수사장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교형리이다. 그런데도 이회창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며 반대하고 있을뿐 아니라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을 정부의 외곽단체라고 떠든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민족일보를 폐간시키고 그 사장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이회창이 언론자유를 운운한 것은 정말 뻔뻔스러운 일이다. 이회창은 언론자유에 대해 떠들기 전에 민족일보를 탄압한 진상에 대해 밝히고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 일족의 친일행적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고 정계에서 퇴진해야한다.>

중앙일보의 한 기자는 이회창이 조선일보를 비호두둔하고 있는데 대해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이 언론사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은 궁극적으로는 한나라당의 대변지나 다름없는 조선일보를 비호하자는데 있다. 전국민으로부터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를 두둔하고 나선 이회창의 정체가 의심된다. 친일매문지였던 조선일보를 비호하는 것은 친일파만이 할수 있다.

또 조선일보가 지금 남북대결을 선동하고 있는데도 조선일보를 사수하겠다는 것은 이회창 자신이 반통일분자, 민족반역자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민족일보탄압사건에 대해 재수사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언론말살에 앞장섰던 이회창을 국민의 심판대에 내세워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해야한다.>

한편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부당하게 탄압당한 민족일보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의 담당판사였던 이회창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역에서 실업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업체들의 불성실한 계약이행으로 인해 포장이사서비스 등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인천지역 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피의자가운데 40%가 불구속되거나 무혐의처리돼 인천지역경찰서가 긴급체포권을 남발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년동안 장성급을 포함해 육군고위장교 4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단한명도 자체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한나라당 정재문의원이 밝혔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53돌에 즈음해 재미동포들이 7일 유엔주재 이북 대표부에서 경축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예멘대통령이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이 7일부터 18일까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참관했습니다.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박순희위원장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반북적대시정책과 군국화책동을 규탄해 18일 담화를 발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 90, 9월 20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9월 19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각계 인사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을 관변단체, 친북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회창은 정계에서 하루빨리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회창이 최근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시민단체를 정부의 외곽단체라고 떠든데 대해 경악을 금할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당국의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해왔는데 무슨 근거로 관변단체라고 하는가. 이회창이 대통령병에 걸린 나머지 이제는 실성한 것 같다. 민주노총은 여권이든 야권이든 반노동자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주5일근무제도입 등 노동자들의 요

구를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이회창일당이 친북세력이라고 매도하며 처벌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계의 분노를 촉발시킬 뿐이다. 이는 이회창 자신이 반통일분자임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준 것이다. 이런 반노동자적이고 반통일적인 행위만을 일삼는 이회창은 마땅히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일당이 전교조를 사회주의집단이라고 매도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교조를 친북세력으로 몰아 말살하려는 수작이다. 선행한 독재정권도 전교조를 사회주의집단으로까지 매도하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해먹겠다는 이회창이 사회시민단체들을 사회주의집단, 홍위병, 관변단체 등으로 악랄하게 매도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국민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이다. 국민을 적대시하는 이회창이 대통령을 꿈꾸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망상이 아닐수 없다. 만일 이회창이 대권의 자리에 올라앉는다면 상상도 할수 없는 대국민탄압이 감행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북침전쟁도 발도 감행할 것이 명백하다. 이회창은 참으로 위험한 인물이다. 더이상 내버려두지 말고 친미, 친일주구이고 민족반역자인 이회창을 정계에서 몰아내야한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김경호비서는 더욱 악랄해지는 일본의 반북적대시정책과 군국화책동을 규탄해 19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성과를 축하해 지난 3일 인도공산당 전국이사회 서기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마다가스까르와 인도인사들이 일본의 개량형로켓발사시험을 규탄해 14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9월 21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9월 20일 인민보안성 군견훈련소를 시찰하셨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민족문학작가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피의 악순환을 초래할 미국의 보복전쟁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조선일보거부지식인선언참가자가 모두 1,500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거부4차선언에 의한 각계 인사 739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지금까지 모두 1,569명의 지식인들이 조선일보거부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가선언참가자들은 조선일보에 대한 기고와 인터뷰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왜곡보도를 일삼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조선일보에 대한 당연한 응징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97년이후 서울지역에서의 주한미군범죄는 해마다 늘어났으나 경찰이 구속수사를 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경찰청이 1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미군범죄발생건수는 97년 32건에서 98년 44건, 99년 50건, 2000년 52건으로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올 들어서도 7월말 현재 49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해 이미 지난해의 발생건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미군수도 97년 46명에서 98년 50명, 99년 67명, 2000년 71명으로 늘었으며 올들어서도 지난 7월말까지 66명의 미군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 이들 227건 가운데 경찰이 구속수사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고 대부분 불구속처리되거나 미군측에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이 이땅을 제 세상처럼 활개치며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을 무시로 감행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단 한건도 구속수사하지 못한 것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때문입니다.

충북도내 교사들이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세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홍문거 비전향장기수에게 은정어린 여든돌상을 보내주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 문재철위원장대리는 20일 담화를 발표해 일본의 악랄해지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군국화책동을 규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을 방문한 덴마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대표단이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0일 국회상원 부의장 마리오 리오스 싼따데르를 단장으로 하는 칠레 국회상원대표단, 중국 베이징주보사 사장 겸 총편집 림량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외국문출판발행사업국대표단,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을 단장으로 하는 덴마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 대표단, 몽골 **김일성**유치원 원장 오.에르덴체체그일행, 이북 주재 예멘 신임특명전권대사 아브둘 와하브 무함마드 알 샤우카니를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애하는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이란 신문 카이한 최근호가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그루브 *****에서 열린 ****한 연설에서 미국의 사회현실을 비난한 내용의 글을 실었습니다.

주체 90, 9월 22일

전국의 1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신문개혁국민행동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타앞에서 정기간행물법개정을 위한 전국운동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서울 광화문 시민마당에서 미국의 보복전쟁과 한국정부의 전쟁지원에 반대하는 연대집회를 가졌습니다.

전교조와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등 20여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행정연대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교육주체결의대회를 갖고 신자유주의적교육정책철회와 사립학교법개정 등 교육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고양시 덕양구 덕대면 개명산 골프장건설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서울 지방경찰청 공안1부는 21일 만경대 방명록파문 등과 관련해 동국대학교 강정수 교수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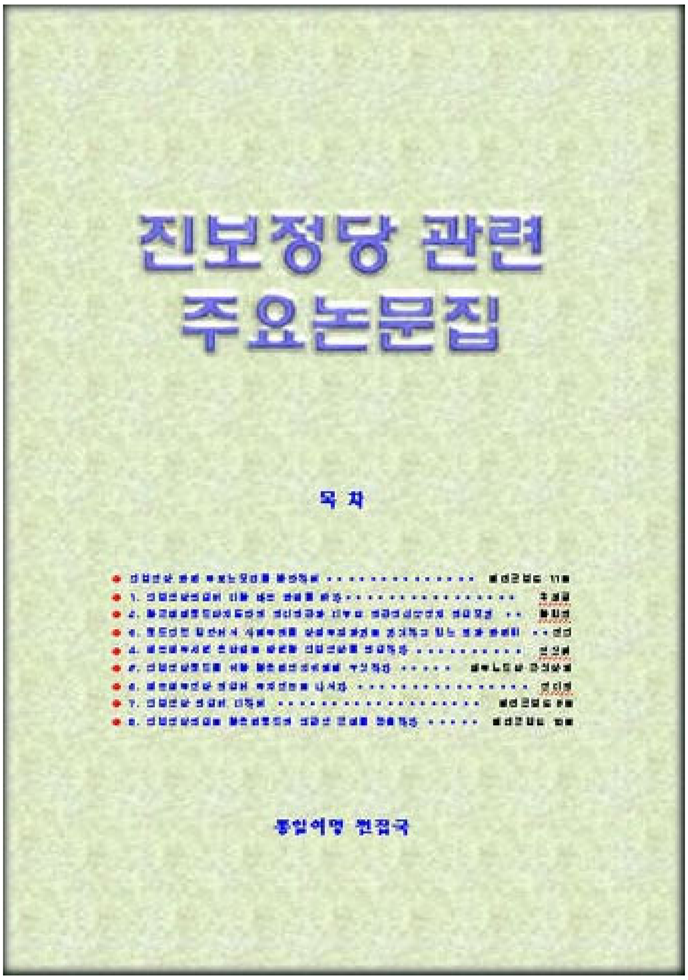
육군산악부대가 최근 사흘동안 육군1야전군사령부 통제아래 대 화력전훈련을 실시하고 초전필승을 운운하는 등 전쟁분위기를 고취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홍상섭위원장은 일본의 악랄해지는 대북적대시정책과 군국화책동을 규탄해 21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21일 이북을 방문한 중국 인민후방군 친선참관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진보정당관련 주요논문집

통일여명편집국



◈ 진보정당 관련 주요논문집을 발간하며 - 편집국보도 11호

◈ 1. 진보정당건설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자 - 추천글

◈ 2. 한국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연합과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문제 - 한백연

◈ 3. 운동진영 일각에서 사회주의를 당면투쟁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 정진

◈ 4. 민족민주세력 총단결로 강력한 진보정당을 건설하자 - 정성희

◈ 5. 진보정당운동을 위한 한총련정치위원회 구성하자 - 민주노동당 학생당원

◈ 6. 민족민주정당 건설에 주체적으로 나서자 - 정대연

◈ 7. 진보정당 건설에 대하여 - 편집국보도 9호

◈ 8. 진보정당건설로 한총련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자 - 편집국보도 10호